

국립국어원 2023-01-6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85-01

##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연구 책임자  
정 승 철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3년 5월 ~ 2023년 12월

2023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정 승 철(서울대학교)

사업 수행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정승철

공동 연구원 김덕호, 신우봉, 이상신, 임석규,  
정인호

연구 보조원 고은향, 김고은, 김동은, 김민지,  
김수영, 김영규, 김유겸, 김인규,  
김주성, 김한중, 박정순, 박주성,  
배윤정, 백은아, 안미화, 오청진,  
윤예진, 이재섭, 이철희, 이현주,  
임홍연, 전진호, 정성경, 최준호,  
현혜경, 현혜림, 홍석우



<사업 수행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정승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덕호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신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석규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인호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 보조원	고은향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김고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동은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김민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수영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영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유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인규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주성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한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정순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주성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배윤정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백은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안미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오청진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윤예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재섭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철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현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임홍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진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성경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강사)
	최준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혜경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홍석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이 연구는 지역어 변이 조사를 통해 한국어에 관한 언어 다양성 보존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대별·성별 변인에 따라 분화된 지역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의 언어생활이나 언어 정보화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언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및 각 지역의 언어문화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 가능한 언어 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물들이 연차적으로 축적된다면 한국어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언어 관측 및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이해에 기반을 둔 공용어 체계 구축 등 언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작업 결과를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질문지와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보완하였다. 2022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의 결과를 참조하여, 500개 내외의 어휘·표현 항목 및 2시간 조사 분량의 구술 발화 항목을 포함하는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2023)를 개발하였다. 특히, 어휘·표현 항목 가운데 100여 개 항목을 별도로 추려서 전통 방언형의 사용도·인지도가 조사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질문지를 통한 조사 및 결과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에 관한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을 정밀화하였다.

둘째, 세대별·성별 요인에 따른 지역어 변이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서술하기 위해 해당 조사 계획의 작업 절차에 따라 실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준비된 질문지와 조사 지침에 따라 전국의 9개 지점(수원·화성, 원주, 공주, 충주, 울산, 안동, 광주, 익산, 서귀포)을 선정하여 각 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의 남녀 제보자를 각각 조사하였다. 나아가 준비된 전사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2022년 및 2023년에 조사된 결과물에 대하여 지역별·세대별·성별 요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0대 이상에서 전통적 방언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으며, 20대에서는 몇몇 새로운 방언형이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주요어: 지역어, 언어 변이, 언어 다양성, 언어 변화, 표준어

<Abstract>

## **Language Variation Survey by Generation & Gender on Korean Dialects, in 202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cure basic data for language diversity preservation polici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through the Language Variation Surve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investigated regional varieties under consideration of generation and gender variables, and based on these findings, it established various language content DBs that can be used for actual linguistic life or language informatization and language diversity DBs that can be used as language culture archives in each region. If the results of these works are accumulated annually, a language observation system will be developed through analysis of changes in Korean language,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members of society will increase. And these results can be ultimately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language policy. The specific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questionnaire and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transcription, and organization of the results were supplemented to facilitate actual works for the Language Variation Survey by Generation & Gender on Korean dialects, Referring to the results of Language Variation Survey in 2022, <Language Diversity Survey Questionnaire> (2023) was developed. This questionnaire includes around 500 vocabulary and expression-related items and 2 hour oral utterance-related items. In particular, out of the vocabulary and expression-related items, around 100 items were selected to survey the usage and recognition of traditional dialect forms. Additionally, in order to systematically carry out the investig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results through this questionnaire,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and transcription & maintenance of the results were refined.

Second, a actual surve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working process of the already established plan for the Language Variation Survey to identify language variations by generation & gender variables, and describe its characteristics in Korean dialects. In this survey, in accordance with the prepared questionnaire and survey guidelines, in nine provinces (Suwon & Hwaseong, Wonju, Gongju, Chungju, Ulsan, Andong, Gwangju, Iksan, Seogwipo), the man and woman informants of three

generations (20s, 50s, and over 70s) were investigated for each survey area. Furthermore, maintenance works were carried out o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prepared transcription & maintenance guidelines.

Third, the results surveyed in 2022 and 2023 were analyzed according to factors by region, generation, and gender.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ditional words and expressions in each dialect was maintained to some extent in 50s and older, and several new dialect forms appeared in 20s.

Key Words: dialect, language variation, language diversity, language change, standard language



# 차 례

## 제1장 사업 개요

- 1.1. 목적 ..... 2
- 1.2. 과업 범위 ..... 2
- 1.3. 수행 절차 ..... 3

## 제2장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 2.1. 조사 질문지 ..... 8
- 2.2.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 ..... 19

## 제3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 3.1. 조사의 방법과 과정 ..... 24
- 3.2. 전사 및 표준어 대역 ..... 26
- 3.3. 조사 및 전사 자료 검토 ..... 28

# 차 례

## 제4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 4.1. 어휘·표현에 관한 분석 ..... 34
- 4.2. 구술발화에 관한 분석 ..... 53
- 4.3. 종합 분석 .....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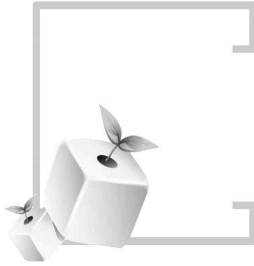
## 제5장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5.1. 사업 결과물 ..... 64
- 5.2. 의의 및 기대 효과 ..... 64

참고 문헌 ..... 69

## 부록

- [붙임 1]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 70
- [붙임 2] 전사 자료 정비 지침 ..... 106
- [붙임 3] 분절화 작업 지침 ..... 121



## 제 1 장

# 사업 개요



# 제1장 사업 개요

## 1.1. 목적

- (1) 세대별·성별 변인에 따른 지역어의 변이 양상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어 소멸 및 표준어 확산, 신방언 형성 등 지역어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각 지역어의 세대별·성별 변이를 조사·확인하고 해당 변이의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어 변화 양상의 사실적 파악과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변화 추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언어정책 수립의 객관적 지표로 삼고자 한다.

## 1.2. 과업 범위

- (1)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를 대상으로 2022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교체 및 수정 항목 선별 후 질문지를 보완한다. 아울러 이들에 관한 조사·전사 및 결과물 정비 지침(<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전사 자료 정비 지침>,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정비한다.
- (2)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실시: 준비된 질문지와 조사 지침에 따라 도별 9개 지점에 대하여 각 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남·여 각 1명의 체보자를 조사한다.(지점당 6명 조사)
- (3) 조사 결과물 작성 및 정비: 준비된 전사 및 정비 지침에 따라 2023년에 조사한 결과물에 대해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
- (4) 조사 결과의 분석·해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2022년 및 2023년에 조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각 지역어 어휘·표현 및 구술발화의 특징적인 언어문화 양상

을 지역별·세대별·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 1.3. 수행 절차

#### (1)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6월

▷ 절차: 국립국어원의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질문지 수정 ⇨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의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수정·보완 ⇨ 수정한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와 <조사·전사·정비 지침>에 대해 조사원들의 적정성 판단 ⇨ 최종 질문지 및 지침서 작성

▪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자 워크숍(6월 3일): 사업 개요 설명, 조사 및 전사, 결과물 정비 등에 대한 교육

▷ 질문지 정비

▪ 2022년 조사 질문지를 대상으로, 2022년의 결과 분석을 반영해 보완한다.

▷ 조사 및 전사 지침, 결과물 정비 지침 작성

▪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 사용한 조사·전사(엘란 프로그램 사용)·정비 지침을 수정 및 보완한다.

▪ 각 방언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별 전사 지침을 보완한다.

▪ 구술발화 조사에서 특정 주제의 편중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2)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실시: 7월~10월

▷ 실제 조사

▪ 조사 지점: 전국 9지점(전국 9개도 각 1지점)

- 강원(원주), 경기(수원·화성), 경남(울산·울주), 경북(안동), 전남(광주·광산), 전북(익산), 제주(서귀포시), 충남(공주), 충북(충주)

▪ 조사 대상: 각 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남녀(3대 이상 거주한 토박이) 각 1명(지역별 6명)

▪ 조사 주체: 조사 경험이 풍부한 방언학 및 사회언어학 전공 조사원

▪ 조사 내용: 500항목 내외의 어휘·표현 및 2시간 내외의 구술발화

▪ 조사 방법: 조사 지침에 따라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 및 전문 음성 녹음기를 사용한 조사(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 결과 검토: 연구 경력이 오래된 지역방언·사회방언 전문가 연구원

▷ 조사 결과 정리를 위한 조사자 워크숍(10월 28일)

- 조사 및 전사, 결과물 정비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조사 결과물 작성 및 정비: 11월

▷ 전사 지침에 따라 녹음 파일의 형태음소 전사 및 표준어 대역을 작성한다.

▷ 정비 지침에 따라 녹음 파일을 항목별로(어휘·표현) 혹은 주제별(구술발화)로 분절한다.

▷ 연구보조원은 자신이 조사한 녹음 파일에 대해 주어진 지침에 따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연구원은 권역별로 분담하여 이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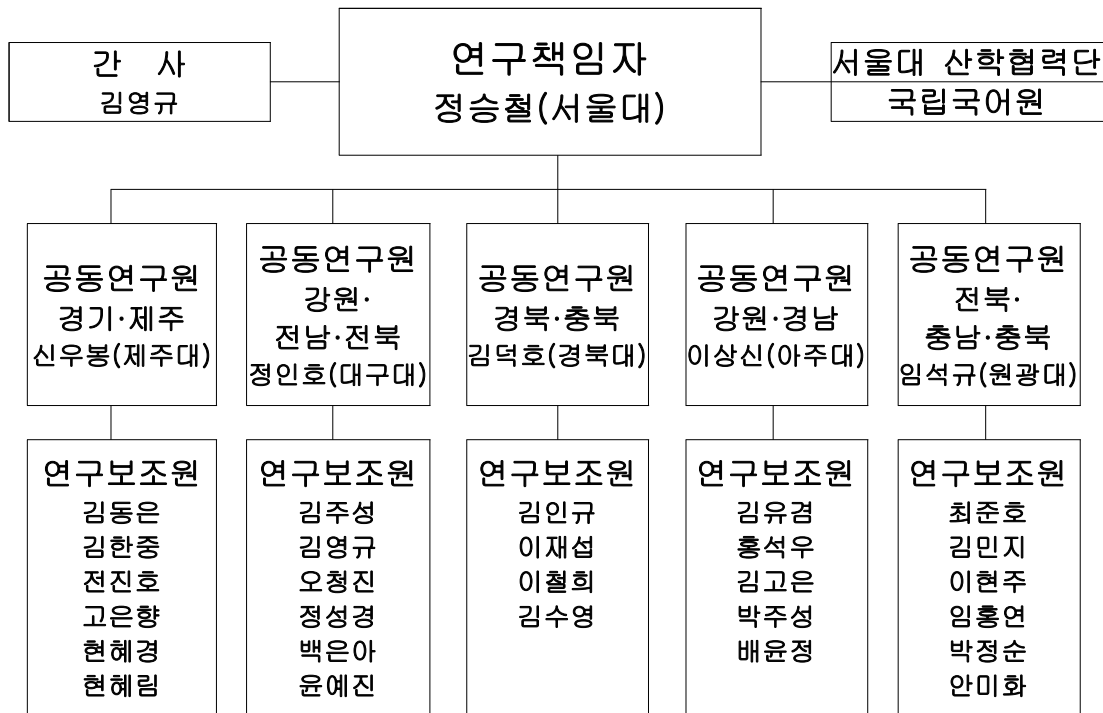
- 음성 분절 작업: 어휘·표현 관련 지역어 음성 자료를 보편적인 웹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음성 자료를 분절하고 다듬는 작업이다. 보편적 웹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음성 파일에서 개별 표제어를 추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주제별 분절 작업: 구술발화 음성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구성과 내용별 분류를 통해 자료 제시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표준어 대역, 오류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자료 활용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등을 포함한다.
- 메타데이터 작성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으로, 비속어, 혐오·차별 표현 등을 삭제한다.

(5) 조사 결과의 분석·해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12월

▷ 2022년과 2023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적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한다.

▷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 지역어 어휘·표현의 특징적인 세대별 변이 양상 분석
- 지역어 어휘·표현의 특징적인 성별 변이 양상 분석
- 지역어 구술발화의 특징적인 언어문화 양상의 지역별·세대별·성별 분석 및 해석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어 소멸, 표준어 확산, 신방언의 형성 등 지역어의 변화 양상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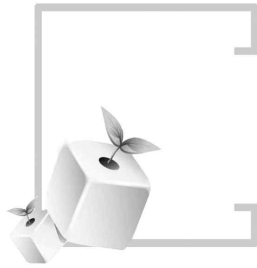


※ 각 지정 3세대, 세대별 남녀 1인 조사

<표 1> 2023년 지역어 변이 조사 수행도







## 제 2 장

#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 지침서 정비



## 제2장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 2.1. 조사 질문지

#### (1) 작성 목적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별·성별에 따른 지역어의 변이 양상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 (2) 거시적 구성

이 질문지는 서두, 구술발화 편, 어휘·표현 편으로 구성된다.

#### ① 서두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 질문지 앞에 ‘지역·세대·성별 한국어 자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 ‘조사 일정’, ‘일러두기’를 첨부하였다. 참조를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아래 제시한다(‘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 ‘조사 일정’, ‘일러두기’는 첨부하는 질문지 및 조사·전사 지침 파일 참조).

####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전문)

### 지역·세대·성별 한국어 자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국립국어원(이하 “이용자”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저작물: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에 대한 발화 자료

종별:  어문저작물

권리: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권 이용허락 대상 권리의 내용

1.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을 일정한 형식으로 전자적 기록 매체에 담아 보존하는 일
2.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자모, 음절, 어휘, 어절, 구절, 문장 및 텍스트 단위의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대상저작물을 복제·변형(목차·머리말·도표·그림·각주 등의 편집 및 삭제, 언어 단위별 분리,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부착 등)하는 일
3.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연구 및 기술 개발용으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배포하는 일
4.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제공·배포받은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 응용을 위하여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분석 및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4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권리자가 이용 허락을 중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이용 허락이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권리자가 이용 허락 중지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 내용에 따라 이용 허락을 중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용 허락 내용이 유지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 조건에 의해서만 대상저작물 재이용을 허락할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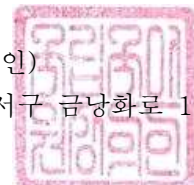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권리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용자 :  
성명 국립국어원장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 ② 구술발화

구술발화 질문지는 1. 조사 마을(동네)의 환경과 배경, 2. 일생 의례와 경험, 3. 생업 활동과 경제생활, 4. 의생활과 외모, 5. 식생활, 6. 거주생활, 7. 질병과 건강, 8. 세시 풍속과 여가 문화, 9. 언어 의식/태도 등 9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큰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세부 질문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 ③ 어휘·표현

어휘·표현 질문지는 직접 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조사 항목은 명사류를 중심으로 하되 동사류 및 부사류를 일부 첨가하였다. 어휘 질문지는 ‘인간과 자연, 사회생활, 경제생활,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문화생활, 언어생활, 일상표현’과 같은 9개의 주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각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소주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항목에 <그림> 정보를 제공해 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참고**로 표시된 부분에는 표제 항목에 대해 참고할 만한 상황을 제공해 조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조사 항목에는 <인지도/사용도>를 직접 조사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인지도/사용도> ① 사용 ② 이해 ③ 인지 ④ 무지

- 사용 :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
- 이해 : 써본 적은 있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다.
- 인지 : 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 무지 : 써본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 (3) 항목 번호

### ① 항목 번호 부여 기준

질문지의 모든 조사 항목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이 고유 번호는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번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분야 번호, 분류 항목 번호, 표제 항목 번호는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분야’란 구술발화, 어휘 표현의 두 분야를 가리키며, ‘분류 항목’은 주제 항목(또는 소주제 항목), 그리고 표제 항목은 질문 항목을 의미한다.

분야 - 분류 항목 - 표제 항목 - 주 항목

② 주 항목 번호

▪ 구술발화의 주 항목 번호

- 구술발화 조사 질문지의 주 항목 번호는 [보기]와 같이 만 단위(다섯 자리)로 한다.
- 분야 번호는 만 단위 자리의 1, 분류 항목(대주제 항목) 번호는 백 단위 자리, 표제 항목(질문 항목) 번호는 십 단위 이하 자리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분야(구술)	분류 항목(대주제 항목)	표제 항목(질문 항목)
10000	10101	10101

[보기]  
 10101 이 마을(동네)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모른다면, 이 마을(동네)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10510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먹을 때 주로 먹는 음식과 주로 가는 식당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외식은 주로 어떤 때 하십니까?

▪ 어휘 표현의 주 항목 번호

- 주 항목 번호는 [보기]와 같이 만 단위(다섯 자리)로 한다.
- 분야 번호는 만 단위 자리의 2, 분류 항목(소주제 항목) 번호는 천과 백 단위 자리, 표제 항목(질문 항목) 번호는 십 단위 이하 자리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분야(어휘)	분류 항목(소주제 항목)	표제 항목(질문 항목)
20000	21100	20101

[보기]  
 20101 가마(旋毛)  
 20102 새치

(4) 질문 항목 내역

① 수정 항목

2023년도 사업의 결과를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에 언어지도로 구축된 지역어 조사 항목을 모두 질문지에 포함하기로 하였

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에 등재(2015~2020)된 언어 지도 항목 중 제외되어 있는 다음 32개 항목을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 선정하였다. 이는 향후,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항목(총 32개): 감기, 갈치, 강아지, 거지, 고기, 고춧가루, 곤지곤지, 기지개, 팽과리, 꾸러미, 냄새, 누에, 다듬잇돌, 달걀, 메밀, 모기, 무지개, 반짚고리, 배꼽, 뺨, 부지깽이, 사닥다리, 새벽, 쓸개, 언제, 옛기름, 오디, 쥐불놀이, 찌꺼기, 행구다, 헛바늘, 회오리바람

② 총 항목

최종적으로 2023년의 질문지는 구술발화의 경우, 9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큰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세부 질문 항목으로 구성된다. 어휘·표현은 9개 부문인데 인간과 자연(167개), 사회생활(73개), 경제생활(27개), 의생활(19개), 식생활(66개), 거주생활(56개), 문화생활(16개), 언어생활(15개), 일상표현(79개)로 총 항목 수는 일반 조사 항목으로 492개와 지역의 방언 분화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표현으로 각 방언권별 4~6개 항목씩 28개 항목이 개발되어 총 5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도 질문지에 포함된 일반 어휘 표현 492개 항목과 지역 특수표현 28개 항목의 부문별 세부 표제어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과 자연	167	표제어
1-1 인체(얼굴과 머리/몸)	40	가마(旋毛), 새치, 흰자위, 검은자위, 눈두덩, 눈꺼풀, 귀청, 귀지, 귀이개, 옛뜯다, 뺨, 수영, 구레나룻, 낫, 보조개, 입술, 부르뜨다, 휘파람, 혀, 침, 뺨다, 콧구멍, 턱, 겨드랑, 팔짱끼다, 오른손, 왼손, 굳은살, 새끼손가락, 뺨, 엉덩이, 굶다, 가부좌(跏趺坐), 무릎, 복사뼈, 까치발, 고린내, 콩팥, 배꼽, 쓸개
1-2 질병과 생리	21	멍, 멍울, 비듬, 주근깨, 다래끼, 땀띠, 버짐, 기침, 딸꾹질, 사례(들리다/만나다/걸리다), 방귀, 쾀다, 재채기, 하품, 졸음, 잠꼬대, 기지개, (기지개를) 쾀다/하다/쓰다/퍼다, 저리다, 헛바늘, 감기
1-3 동물	43	새우, 거머리, 다슬기/올갱이/고디이, 메기, 명태, 미꾸라지, 아가미, 지느러미, 창자, 벌레, 개미, 구더기, 매미, 모기, 벌,



		파리, 쉬파리, 쉬슬다, 메뚜기, 바구미, 지렁이, 회충(蛔蟲), 고양미, 돼지, 주둥이, 박쥐, 수컷, 수탉, 벃(鷄冠), 암컷, 암탉, 닭똥, 닭털, 모이, 노루, 여우, 갈치, 고기, 쇠고기, 강아지, 뱀, 누에, 번데기
1-4 식물	18	꽃, 잎, 억새, 갈대, 질경이, 진달래꽃, 해바라기, 숲, 숲, 칩, 이끼, 부스러기, 옷, 딸기(산)_야생, 벼, 보리, 참외, 오디
1-5 자연, 시 후, 날씨와 방 향	45	바위, 돌(石), 모래, 묘, 산꼭대기, 낭떠러지, 거품, 가뭄, 가을, 겨울,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어제, 그저께, 그꼬저께, 이튿날, 올해, 내년, 후년, 작년, 재작년, 더위, 추위, 따뜻하다(溫), 우박, 진눈깨비, 고드름, 서리, 노을,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언제, 아직, 이제, 지금, 나중에, 먼저, 새벽, 무지개, 회오리바람

2. 사회생활	73	표제어
2-1 육아	15	갓난아이, 포대기, 기저귀, 오줌, 뉘다(排便), 아우타다, 쌍둥이, 어린아이, 사내아이, 계집아이, 구린내, 눅히다, 거짓말, 부아, 야위다
2-2 친족	40	아버지(호칭), 어머니(호칭), 할아버지(호칭), 할머니(호칭), 형(호칭), 아우(호칭), 누나(호칭), 누이(지칭), 오빠(지칭), 언니(지칭), 남편(지칭), 남편(호칭), 아내(지칭), 아내(호칭), 시아버지(호칭), 시어머니(호칭), 아범, 사위(호칭), 아주버니(호칭), 서방님(호칭), 도련님(호칭), 형님(호칭), 아가씨(호칭), 율케(호칭), 매형(호칭), 매제(호칭), 제부(호칭), 큰아버지, 삼촌(결혼 전 호칭), 작은아버지(결혼 후 호칭), 이모(호칭), 이모부(호칭), 장인(호칭), 장모(호칭), 처남(손위, 호칭), 처남댁(손위, 호칭), 처남(손아래, 호칭), 처남댁(손아래, 호칭), 처제(호칭), 동서(손위, 호칭)
2-3 관계	8	아저씨(호칭), 아주머니(호칭), 여보(일반 호칭), 사장님/선생님(고객 호칭), 형(학교에서/직장에서), 음식점 장년 여성(호칭), 음식점 청년 여성(호칭), 음식점 청년 남성(호칭)
2-4 인사(화행)	5	(친구를 만났을 때) 안녕, (음식점에서) 여기요/저기요, (친구와 헤어질 때) 안녕/잘 가/들어가, 다녀오겠습니다/다녀올게요/다녀올게, (집에서) 잘 먹겠습니다/잘 먹을게요/잘 먹을게
2-5 높임	5	성함/함자, 편찮으시다/아프시다, 여쭙다, 잡수시다/자시다/드시다, 돌아가시다,

3. 경제생활	27	표제어
---------	----	-----

3-1 농경	12	품앗이, 텃밭, 거름, 삽, 호미, 방아, 절구, 이삭, 껍질, 추수하다, 흥년, 허수아비
3-2 일반	6	거지, 구두쇠, 덤, 빗, 꾸다(借), (쌀을) 팔다
3-3 단위	7	(나무) 그루, 서 되/세 되, (신발) 켄레, (김) 툇, (배추) 포기, (볼펜) 자루/개, 꾸러미

<b>4. 의생활</b>	<b>19</b>	<b>표제어</b>
4-1 의복	9	저고리, 무늬, 옷고름, 주머니, 허리띠, 누더기, 덧버선, 양말, 짚신
4-2 바느질 외	10	가위, 형겄, 바늘, 골무, 매듭, 베개, 재봉틀, 다리미, 다림질, 방석

<b>5. 식생활</b>	<b>66</b>	<b>표제어</b>
5-1 주식과 부식	22	메/제삿밥, 더운밥/뜨신밥, 찬밥/식은밥, 밥알/밥풀/밥풀때기, 누룽지, 송늬, 국수, 칼국수, 수제비, 건더기, 고명, 가루, 식혜(食醯), 김(海苔), 싱겁다, 고소하다, 메밀, 옛기름, 고춧가루, 달걀, 찌꺼기, 행구다
5-2 반찬과 별식	22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김장, 담그다, 깎두기, 무생채, 부추김치, 석박지, 양념, 콩나물, 장아찌, 새알심, 팔죽/동지죽, 술떡, 이바지, 소주, 전/부침개/지짐이, 소, 버무리다, 냄새
5-3 식기	4	그릇, (물건을) 떨어뜨리다, 시루, 뚜껑
5-4 곡물과 채소	18	감자, 고구마, 고추, 나물, 오이, 무, 배추, 부추, 상추, 도라지, 마늘, 시래기, 줄기, 옥수수, 조, 메주, 곰팡이, 매달다

<b>6. 거주생활</b>	<b>56</b>	<b>표제어</b>
6-1 마을	7	마을, 이웃, 우물, 가(邊), 샘(泉), 동 주민 센터, 대장간
6-2 가옥	16	도배, 아궁이, 구멍, 굴뚝, 그을음, 마루, 지붕, 장독대, 변소, 벽, 모서리, 거울, 서랍, 주방, 욕실, 넓다
6-3 생활용품	31	종이, 새끼(繩), 따리, 빗자루, 갈고리, 갈퀴, 도끼, 자루(柄), 작두, 솥돌, 맷돌, 바퀴, 성냥, 세숫대야, 소쿠리, 송곳, 뽕족하다, 참빗, 키(箕), 회초리, 슬리퍼, 구둣주걱, (담배를) 피우다/태우다, 뚫리다(뚫히다), (보일러를) 켜다/틀다/돌리다/때다, (에어컨을) 켜다/틀다/돌리다, 부지깥이, 사닥다리, 반짚고리, 다듬잇돌, 팽과리
6-4 이동수단	2	자전거, 비행기

<b>7. 문화생활</b>	<b>16</b>	<b>표제어</b>
7-1 놀이와 민속	16	(돈을) 잃다/꿘다, 가위바위보, 공기놀이, 자치기, 곤지곤지, 그네, 딱지치기, 굴렁쇠, 목말, 소꿉놀이, 윷놀이, ①도, ④윷,

		쥐불놀이, 귀신, 도깨비
--	--	---------------

8. 언어생활	15	표제어
8-1 돌온말	10	키보드/자판, 배터리, 샐러드/사라다, 샤워/목욕, 키/열쇠, 텔레비전/테레비/티브이/티비, 플레시/후레시, 튀김/덴뿌라, 휴대전화/휴대폰/핸드폰/폰/스마트폰, 내비게이션/내비
8-2 선택표현	5	(그릇을) 부시다/씻다, 가렵다/간지럽다/근지럽다, (이쪽으로) 다오/주라, 다르다/틀리다, 싸다/헐하다

9. 일상표현	83	표제어
9-1 담화, 화용, 언어	17	땡땡이치다, (멸치를) 우리다, ‘감사합니다’에 대한 응답, ‘미안합니다’에 대한 응답, (명절을) 쇠다/보내다, (발) 씻다/닦다, (불만 표현) 음식이 너무 짠데요, (비확정적 표현) 그런 것 같아요, (사과 표현에의 응답) 아니에요, (칭찬 표현에의 응답) 감사합니다, (호의에 대한 거절) 괜찮아요, ‘마음씨가 참 좋습니다’에 대한 응답, 부탁에 대한 거절, 내 아내/우리 아내, 내 동생/우리 동생, 네 남편/너희 남편, 너희 집
9-2 문법	26	내-가, 저-가, 너-가, 너희, 무슨, 왜, 여기, 저기, 거기, 애, 개, 재, (-밖에) 너밖에, -듯이, (-겠-) 오겠다, (-고) 싶다, (-나/는가보다) 추운가 보다, (부정)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부정)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으면서) 보면서, 달히다, 얼리다, 어떻게, -으려고, 가니?, (보조동사) 버리다
9-3 관용표현	6	개나 소나, 내버려 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여보세요(길 가는 사람을 부를 때), 죽마고우
9-4 필수음운	6	말다, 밥하고, 작다, 효과, 살, 쌀
9-5 지역특수표현 (권역별)	28 (6)	<전라권>징하다, 권, 개미, 흑하다, 심간, <경상권>단디하다, 천지삐까리다, 새그랍다, 까리하다, <충청권>그니, 째다, 납들다, 해설피, 심간, <강원권>개락이다, 춘천이여, 오짐싸개, 요   (이외), <제주권>갈웃, 가름돌다, 버루기, 우치다/우찌다, 쿠시룽하다/쿠승하다/쿠실하다, 밥주리/물자리/물짬/밤부리. <경기권>단허리로, 반대작하다, 가장귀, 가짓고자리

(5) 그림

어휘 표현 492개 표제어 중에 108개의 항목에는 <그림>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021년 <그림>(저작권, 출판권 확보)의 210장 중에서 2022년도 질문지 항목에 해당하는 106개를 선별하고, 2023년에는 ‘산딸기, 사마귀<곤

층-(강원)오십싸개>’ 항목의 그림을 추가하여 총 108개로 된 부록을 마련하였다.

## (6) 특징

2023년도 질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발화 질문지는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노년층 농촌 지역 거주자만이 아니라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도시 지역 거주자도 두루 응답할 수 있도록 주제와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세대나 지역에 따라 응답이 어려울 수 있는 세부 질문은 대안 질문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어휘 질문지의 각 항목은 주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 항목의 기저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원의 의도에 맞게 조사하도록 하고 별도의 부수 항목을 두지 않는다. 이때 **주의**에 ‘기저형 조사 필요’라고 표시한다. 다만 주 항목과 관련된 어휘를 함께 묻는 경우에도 별도의 주 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한다.

셋째, 어형, 용법, 의미 등에서 차이가 예상되는 항목 뒤에는 **주의** 표시 뒤에 예상되는 차이 등을 예시하여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각 항목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와 같은 명명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항목에 따라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와 같이 선택식 질문 방식도 활용하였다. 선택 항목으로 명시된 것 외에 새로운 응답형은 조사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섯째, 질문은 그림이나 사진 또는 동작의 형용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림>은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하여 제보자가 이를 보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괄호 안에 ‘모양을 형용하거나 시늉을 하면서’ 등과 같이 표시하여 그 항목의 개념이나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을 몸동작 등으로 보여주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조사에 필요한 그림이나 사진 등은 따로 제작하여 질문지와 한 벌이 되도록 하였다.

일곱째, 조사 항목에는 조사자가 해당 세대별 지역별 언어형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당 항목의 옛말을 **참고** 표시 뒤에 제시하였다.

여덟째, <사용도/인지도> 조사는 유의미한 항목을 선별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전체 항목 중에 101개 항목의 경우 사용어, 이해어 및 미사용어의 경우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했다. <사용도/인지도> 조사가 유의미하다고 선정한 10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흰자위, 눈두덩, 귀청, 귀지, 귀이개, 구레나룻, 입술, 휘파람, 콧구멍, 겨드랑, 무릎, 복사뼈, 배꼽, 딸꾹질, 졸음, 기지개, 헛바늘, 미꾸라지, 벌레, 구더기, 매미, 모기, 벌, 파리, 쉬슬다, 메뚜기, 지렁이, 회충(蛔蟲), 고양이, 모이, 노루, 여우, 갈치, 강아지, 뱀, 누에, 번데기, 억새, 벼, 오디, 바위, 모래, 가을, 겨울, 글피, 그저께, 그끄저께, 우박, 노을, 언제, 새벽, 회오리바람, 아우타다, 계집아이, 늙히다, 할머니(호칭), 형(호칭), 사위(호칭), 호미, 거지, 서 되/세 되, 꾸러미, 짚신, 가위, 다리미, 건더기, 메밀, 옛기름, 고춧가루, 달걀, 간장, 콩나물, 시루, 뚜껑, 오이, 무, 부추, 시래기, 가(邊), 아궁이, 구멍, 그을음, 마루, 장독대, 변소, 벽, 새끼(繩), 뽕리, 갈퀴, 키(箕), 부지깥이, 반진고리, 다듬잇돌, 팽과리, 자치기, 곤지곤지, 그네, 목말, 소꿉놀이, 쥐불놀이, 다르다/틀리다, (101개 항목)

<사용도/인지도> 조사를 위한 101항목의 경우, 조사 대상 지역의 대표 방언형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실제 현장 조사 시 조사원들이 지역 방언형을 참고하여 이를 기준을 <사용도/인지도>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홉째, 일상표현에서 지역의 방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수표현으로 방언권별로 4~6개 항목씩 총 28개를 개발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 2.2.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

- 목적: 전형적인 지역어형의 조사 및 기저형을 반영한 전사 그리고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 경과: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서의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의 일부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차례의 공동 연구원 회의를 통해 지침서를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조사 지침에서는 <사용도/인지도>의 판별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구술발화 주제의 편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전사 지침에서는 지역별 특이성을 좀 더 반영하였고, 결과물 정비 지침에서는 음성 녹음과 관련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 (1) 조사 지침

기존 전통 방언에 대한 조사(제보자: 노인층) 사업과 달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토박이 화자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므로 각 지역의 적절한 연령별 제보자(20대/50대/70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지침이 작성되었다. 기존의 조사 지침과 비교하여 현장 조사 방법(‘구술발화 조사 방법’ 포함)과 <사용도/인지

도>의 판별 기준에 한하여 약간의 수정·보완이 있었다.

<참조> 구성: 어휘·표현 및 구술발화 조사 공통 지침, 어휘·표현 조사 지침, 구술발화 조사 지침, 녹음기 사용법 등

- 질문지를 활용한 직접 질문 방식의 현장 조사
  -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접하고 제보자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는 항목은 해당 방언형이 없는 것으로 함.
  - ‘보일러를 켜다/틀다/돌리다/매다’와 같은 선택형 항목은 자주 쓰는 방언형을 조사함.
  - 방언형의 특기할 만한 의미적 특징은 ‘부가 정보’란에 밝혀 두도록 함. 특히 해당 방언형이 제보자만 사용하는 개인어일 수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보자 선정 기준
  - 토박이 조건: 연령별 제보자(20대/50대/70대) 모두 3대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해야 함. 다만 어머니는 가급적 동일 지역 출신이어야 하나, 동일 방언권도 허용함.  
<참조> 강원 영동/영서(2개 방언권), 경기(1개 방언권), 충청(1개 방언권), 전북/전남(2개 방언권), 경북/경남(2개 방언권), 제주(1개 방언권)
  - 학력 조건: 70대(가급적 국민학교 졸업 이하), 50대(고등학교 졸업 이하), 20대(대학교 졸업 이하)
  - 군대 경력은 고려하지 않으나, 대학교는 다른 대방언권에서 수학한 경우에 제외함.
- 구술발화: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 사용도/인지도: 해당 어형을 현재 쓰고 있는가, 써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등의 기준을 마련해 좀 더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도/인지도’는 방언형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표준어형은 조사하지 않음을 명시함.

## (2) 전사 지침

「지역어 보완 조사 사업」에서는 거의 유사한 성격의 <전사 지침>(2018)과 <구술발화 작업 및 형태음소 전사 지침>(2019)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21년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에서 이 두 지침을 통합하여 <언어 다양성 조사 표

기 지침>(2021)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사 도구가 ‘트랜스크라이버’에서 ‘엘란’으로 변경되면서 전사 도구의 교체에 따른 미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각 지역 조사원들이 해당 지역어를 정확히 효율적으로 전사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이성을 반영한 방언별 전사 지침을 따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속 수정·보완하여 이번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을 위한 <지역어 변이 조사 표기 지침>(2023)을 마련하였는바 수정·보완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형태음소 전사 관련 문제

- 표준어의 구가 복합어로 기능하면서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살려 적는다. 단, 표준어 대역에서는 사이시옷 없이 띄어쓰기하여 적는다. [예] 형태음소 전사: 영엇시간[영어씨간], 경줏김[경주깁] / 표준어 대역: 영어 시간, 경주 김
-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을 따르기로 한다.
- 수를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오직 한글로만 적는다.

▪ 표준어 대역 관련 문제

-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구별하여 적절한 어미로 옮긴다. [예] 죽었다라고 했어요. → 죽었다고 했어요.
  - ‘-어서 가지고, -어서 갖고’ 구성은 ‘-어서’로만 대역한다. 또한, 서술격조사에 이어지는 ‘가지고, 갖고’는 ‘-어서’로 대역한다. [예] 잡아서 가지구 → 잡아서 / 외향적이어 가지고 → 외향적이어서
  - ‘거시기하다’ 등 새로 표준어에 등재된 어휘들에 특히 주의하여 대역한다.
- <참조> 구성: 어휘·표현 기저형 표기 지침, 구술발화 표기 지침 등

(3) 결과물 정비 지침

이번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서 활용한 전사 및 정비 도구는 기존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와 동일하게 ‘엘란’이었다. 따라서 결과물 정비 지침에서 기본 원칙이 바뀐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음성 파일 추출 원칙에 ‘음성의 최대 샘플값이 10,000~20,000이 되도록 마이크 음량 조절’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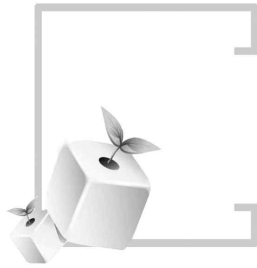
▪ 구술발화 전사 자료 정비 지침

- 구술발화 입력은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의 ‘엘란’ 작업 지침을 그대로 활용함.

▪ 분절화 작업 지침

- 어휘·표현 항목별 음성 분절: 음성 분절 및 전사 도구로 ‘엘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절하는 방법을 활용함.
- 구술발화의 주제별 음성 분절: Goldwave, Praat, Cool Edit Pro 등 음성편집기를 활용하도록 함.





## 제 3 장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 제3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 3.1. 조사의 방법과 과정

#### (1) 조사 방법

지역어 변이 조사는 지역은 물론 세대별·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관찰함을 목표로 하므로 70대, 50대, 20대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또 해당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해 왔다는 조건을 가급적 충족한 사람을 제보자로 택하였다. 결국 이번 조사의 제보자는 ‘해당 지역에 3대 이상 거주한 70대/50대/20대’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조사는 질문지를 미리 작성한 후 현지에 가서 제보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질문지는 총 500여 항목(공통 항목 및 지역별 특수 항목 포함), 총 148쪽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 질문지 앞에 ‘지역·세대·성별 한국어 자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를 첨부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전사는 엘란을 활용하여 형태음소적 원칙에 따라 수행하였다. 형태음소적 전사가 가능하도록 실제 조사에서 응답형의 기저형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2) 조사 지역

조사 지역은 수원·화성(경기), 원주(강원), 충주(충북), 공주(충남), 안동(경북), 울산·울주(경남), 익산(전북), 광주·광산(전남), 서귀포(제주)로 선정하였다. 지역의 역사성, 인구수, 방언 구획 등을 고려하면서도 2022년 지역어 변이 조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지점을 정하였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경남의 울산시와 울주군, 전남의 광주시와 광산군은 역사·문화적으로 한 권역을 이룬다고 보아,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한 지역으로 간주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전년도 사업에서 제주시 중산간 지역을 다루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서귀포시 해안 지역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 (3) 조사 과정

6월에서 12월까지, 순차적인 조사 일정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6~7월에 조사 및 전사 지침을 숙지하고 11월까지 본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

다. 다만, 제보자의 일정이나 조사 지점의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을 일부 조정하였다.

연구보조원(조사원) 1명이 1~3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으며, 지역별로 묶어 연구원들이 결과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구진의 조사·전사 및 검토 담당 내역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세대	성별	조사원	제보자	검토자
강원	20대	남	홍석우	○○○(00년생)	이상신 정인호
		여	김유겸	○○○(02년생)	
	50대	남	홍석우	○○○(65년생)	
		여	김주성	○○○(66년생)	
	70대	남	홍석우	○○○(49년생)	
		여	김유겸	○○○(51년생)	
경기	20대	남	전진호	○○○(97년생)	신우봉
		여	김동은	○○○(94년생)	
	50대	남	김한중	○○○(68년생)	
		여	김한중	○○○(66년생)	
	70대	남	전진호	○○○(40년생)	
		여	김동은	○○○(49년생)	
경남	20대	남	박주성	○○○(98년생)	이상신
		여	배윤정	○○○(97년생)	
	50대	남	김고은	○○○(65년생)	
		여	김고은	○○○(71년생)	
	70대	남	박주성	○○○(39년생)	
		여	배윤정	○○○(44년생)	
경북	20대	남	이재섭	○○○(99년생)	김덕호
		여	이철희	○○○(96년생)	
	50대	남	김인규	○○○(65년생)	
		여	김인규	○○○(65년생)	
	70대	남	이재섭	○○○(42년생)	
		여	이철희	○○○(47년생)	
전남	20대	남	김영규	○○○(97년생)	정인호
		여	정성경	○○○(97년생)	
	50대	남	오청진	○○○(73년생)	
		여	오청진	○○○(65년생)	
	70대	남	김영규	○○○(51년생)	
		여	정성경	○○○(51년생)	
전북	20대	남	최준호	○○○(01년생)	정인호 임석규
		여	백은아	○○○(04년생)	
	50대	남	윤예진	○○○(71년생)	
		여	윤예진	○○○(73년생)	
	70대	남	최준호	○○○(44년생)	
		여	백은아	○○○(50년생)	
제주	20대	남	현혜경	○○○(99년생)	신우봉
		여	현혜경	○○○(99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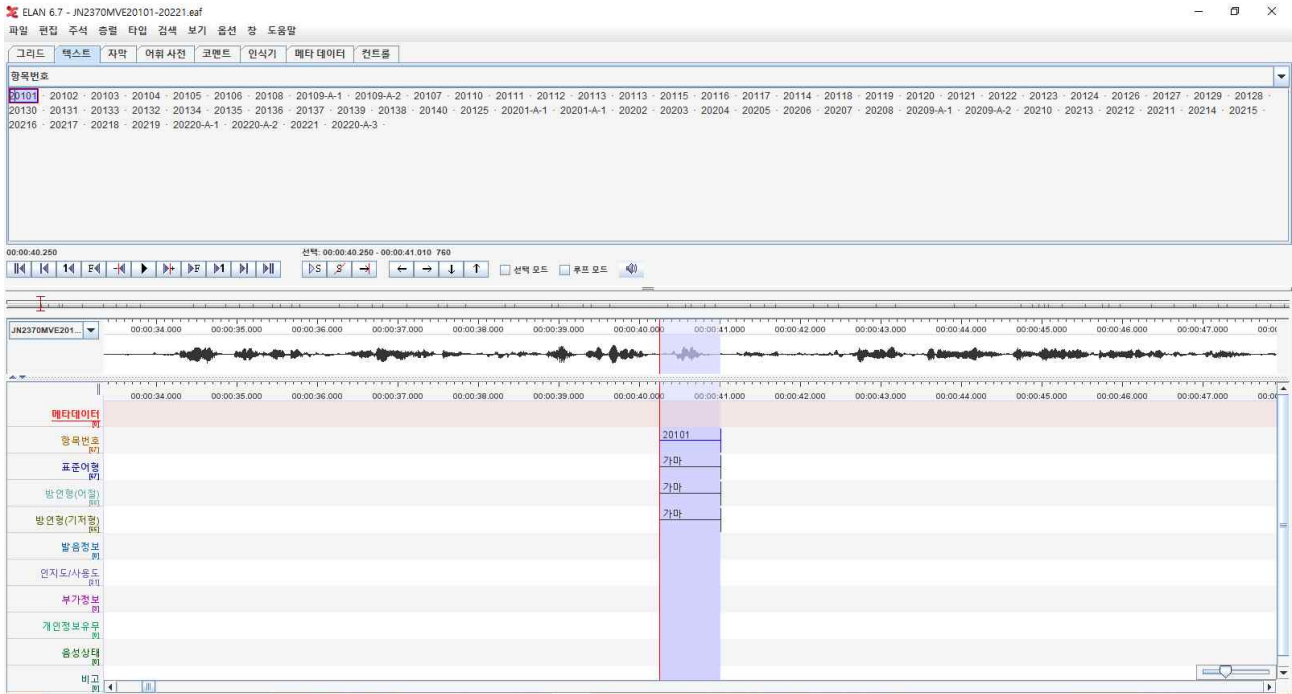
	50대	남	고은향	○○○(66년생)	
		여	현혜림	○○○(66년생)	
	70대	남	고은향	○○○(53년생)	
		여	현혜림	○○○(48년생)	
충남	20대	남	임홍연	○○○(04년생)	임석규
		여	김민지	○○○(03년생)	
	50대	남	이현주	○○○(69년생)	
		여	이현주	○○○(69년생)	
	70대	남	임홍연	○○○(54년생)	
		여	김민지	○○○(46년생)	
충북	20대	남	박정순	○○○(99년생)	임석규 김덕호
		여	김수영	○○○(01년생)	
	50대	남	이철희	○○○(71년생)	
		여	안미화	○○○(68년생)	
	70대	남	박정순	○○○(46년생)	
		여	김수영	○○○(52년생)	

<표 2> 조사·전사 및 검토 담당 내역

### 3.2. 전사 및 표준어 대역

구술발화 항목이든 어휘·표현 항목이든 조사의 결과를 형태음소적으로 전사하  
 되 전사 도구로 엘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어휘·표현 항목의 경우, 어절 단위  
 로 전사하되 해당 방언형의 기저형을 따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재정리하였다. 구술발화의 경우, 전사와 함께  
 표준어 대역을 제공하였다. 이때, 해당 방언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준어형  
 을 사용하여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엘란을 활용한 전사(‘전남 70대 남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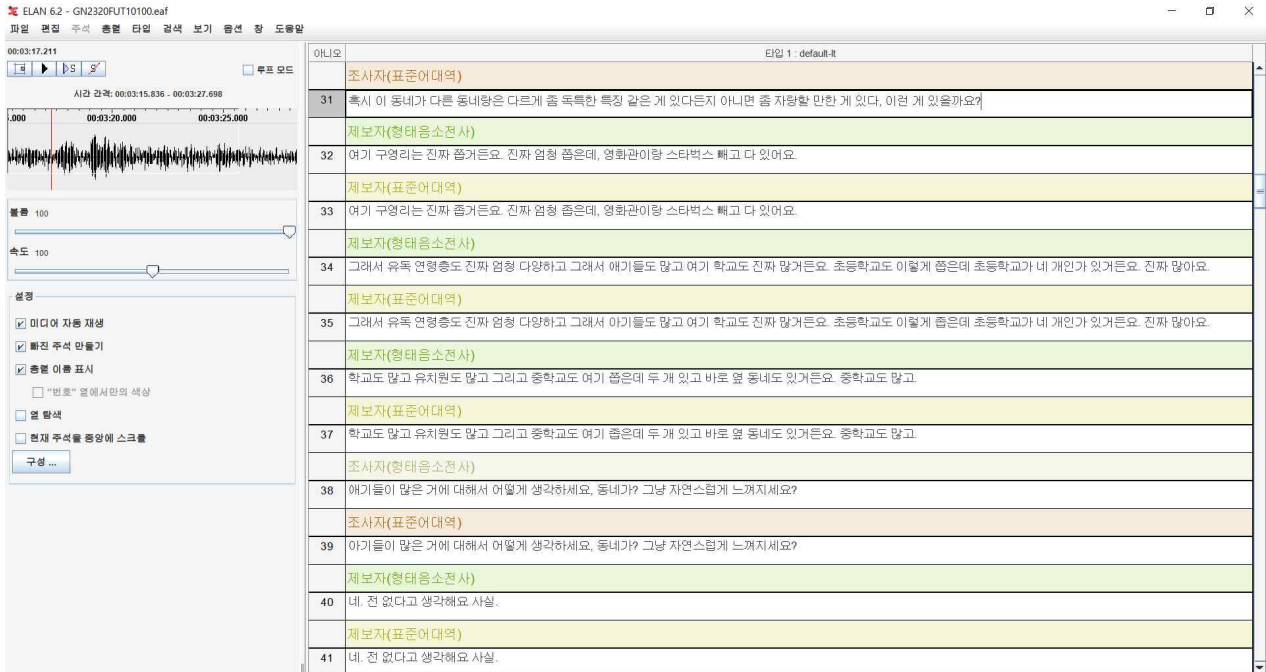


<그림 1> 엘란을 활용한 어휘·표현 전사

■ 결과 정리 엑셀 파일(‘전남 70대 남성’의 경우)

일련번호	항목 번호	표제어	방언형 (어절)	방언형 (기저형)	사용도/ 인지도
JN2370MVE20101	20101	가마	가마	가마	
JN2370MVE20102	20102	새치	새치	사치	
JN2370MVE20103	20103	흰창	흰창	흰창	1
JN2370MVE20104	20104	검은자위	검은창	검은창	
JN2370MVE20105	20105	눈덩이	눈덩이	눈덩이	1
JN2370MVE20106	20106	눈꺼풀	눈꺼풀	눈꺼풀	
JN2370MVE20107	20107	긱밥	긱밥	긱밥	1
JN2370MVE20109-A-1	20109	귀이개	이지	이지	
JN2370MVE20109-A-2	20109	귀지기	귀지개라고도 했어요	귀지개	1
JN2370MVE20110	20110	얌든다	얌든다고	얌든다	
JN2370MVE20111	20111	뺨	뺨이라고도 허고	뺨	
JN2370MVE20112	20112	수염	쉬옴이라고도 쉬옴	쉬옴	

## ■ 구술발화 전사 자료 정비 작업 파일(‘경남 20대 여성’의 경우)



<그림 2> 엘란을 활용한 구술발화 전사

### 3.3. 조사 및 전사 자료 검토

#### (1) 조사 관련 문제

① 질문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조사 항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한 후 제보자의 여건이나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변용함.

<참고> 동질감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해당 지방의 어미(‘-는고’ 등)를 활용하고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방언형도 메모, 숙지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함.

②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어휘·표현이나 구술발화의 경우에는 제보자가 응답이 끝난 후 적당한 휴지를 확보함.

③ 질문지에 조사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곡용형과 활용형의 기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함. 질문지에 제시된 조사나 어미는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기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조사나 어미로 대체할 수 있음.

받은 --> 받을

④ 해당 세대나 지역에서 전형적인 방언형이 있음에도 표준어형으로만 응답할 경우,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세대나 지역의 방언형에 대한 <사용도/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음.

⑤ 자료 정리 시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당 지역의 자연스럽게 전형적인 방언형이 나올 수 있게끔 응답을 유도함.

걸음마↗ 귀#고리 분#리#수#거

⑥ 어간 재구조화나 여러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기저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저형을 확인해야 함. 곡용형과 활용형을 능숙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도 있음.

배튼다 → 벨다/배트다: 기저형 확인 불가

겨드랑이 → 겨드랑/겨드랑이: 기저형 확인 불가

⑦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에 앞서 조사자와 체보자 간에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함.

⑧ 어휘·표현 조사보다 구술발화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함(전형적 어형 출현 기대). 어미의 형태가 어휘 조사와 다를 경우, 구술발화에서 확인한 어미가 우선됨.

⑨ 체보자의 발화를 가장 많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부터 시작함.

⑩ 표준어와 어형은 같으나 의미 차가 있는 경우, ‘부가 정보’ 열에 그 내용을 밝혀 둠.

(2) 형태음소 전사 관련 문제

① 담화표지 ‘그냥/기양, 인제/인자’ 등이 의심할 여지 없이 줄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준 대로 적되 붙여 쓰도록 함.

근디 양 → 근디양  
개서 냥 → 개서냥  
미리 양 → 미리양  
그래선제

② 만약 준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담화표지를 띄어서 적어주는 게 나을 듯함.

하천 제 → 하천 인제  
그담은제 → 그담은 인제  
그면은 제 → 그면은 인제

③ 담화표지 이외는 원형을 전사하는 게 나을 듯하고 정말로 준말이 확실하다면 이 경우에도 붙여 쓰도록 함.

그렇게 서 → 그렇게 해서 / 그렇게서  
해나 → 해야 데나

④ 조사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에는 연결을 함.

아무곳이/아무것이(아무개) → 아무그시/아무거시

⑤ 번역한 표준어가 문맥에 맞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듯함. 아무리 들어도 문맥에 맞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면 음성 상태 불량으로 처리하기를 권장함.

⑥ 표준어의 구가 복합어로 기능하면서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살려 적음. 단, 표준어 대역에서는 사이시옷 없이 띄어쓰기하여 적음.

형태음소 전사: 영엇시간 [영어씨간], 경줏김 [경주깁]

표준어 대역: 영어 시간, 경주 김

⑦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을 따르기로 함.

⑧ 수를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오직 한글로만 적음.



(3) 표준어 대역 관련 문제

① 의도치 않게 발화가 중단되어 번역문이 어색한 경우에는 ( ) 안에 보충해 줌.

같습. → 같습(니다).

② 번역문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역의 원칙을 지키도록 함.

주고 그렸어, 우리 아버지를. → 주고 그렸어, 우리 아버지에게. ⇒ 아버지를  
같으 낚 념 막 나오셔서 → 같아 놓은 것을 막 나오셔서 ⇒ 것

③ 대응 표준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간단히 뜻풀이를 하거나 작은따옴표 안에 방언형을 그대로 표기함.

부수개 → 부스개 ⇒ ‘부수개’ 또는 ‘부스개’

④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구별하여 적절한 어미로 옮김.

(간접인용) 죽었다라고 했어요. → 죽었다고 했어요.

⑤ ‘-어서 가지고, -어서 갖고’ 구성은 ‘-어서’로만 대역함. 또한, 서술격조사에 이어지는 ‘가지고, 갖고’는 ‘-어서’로 대역함.

잡아서 가지구 → 잡아서

외향적이어 가지고 → 외향적이어서

⑥ ‘-어서’ 앞에 ‘-었-’이 결합한 경우, 표준어 대역에서는 ‘-었-’을 반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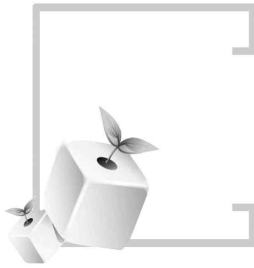
처음이었어서 → 처음이어서

⑦ ‘거시기하다’ 등 새로 표준어에 등재된 어휘들에 특히 주의함.

⑧ 《표준국어대사전》에 작성례 없이 인용례만 실려 있는 어휘는 표준어 대역에 사용하지 않음.

석경(石鏡) → 거울, 대근하다 → 고단하다





## 제 4 장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 제4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언어 조사는 크게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로 나뉜다. 질적 조사는 대체로 사례 조사를 통해 언어 변화 또는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요소의 영향에 따라 해당 사회에 어떤 변화나 변이들이 출현하는지를 사례별로 추적해 보는 조사를 이른다. 이러한 질적 조사는 해당 사회의 언어 변화나 변이를 직접 발견하고 그것들을 출현하게 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러하기에 이 조사는 언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 나아가 그러한 질적 조사의 결과로서 발굴된 언어 변화나 변이가 사회적으로 의의를 지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통계에 의한 양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은 질적 조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요소(9개), 세대 요소(3개), 성별 요소(2개)에 따라 각각 제보자를 달리 구하여 전체 54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결과의 사회적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번 사업의 결과는, 입증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결과 예측된 것이 아니므로 부분적·잠정적 사례 조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각 요소(지역, 세대, 성)를 고려한 더 많은 제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번 사업의 결과를 확인·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추후 양적 조사가 요청된다.

### 4.1. 어휘·표현에 관한 분석

이번 조사 사업의 어휘·표현 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항목 번호순으로 나열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103 흰자위

지역과 세대 그리고 성별을 불문하고 ‘흰자위’와 ‘흰자’와 같은 표준어가 많이 나타난다. 다만 경남(남녀)과 전라(남)의 70대에서 ‘흰창’이 나타나는 점, 경기의 50대(남녀), 70대(여)에서 구개음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자’가 나타나는 점

이 특이하다. 전자는 ‘검은자위’(20104)의 방언형으로 ‘검은창’(전라 70대 남)과 ‘꺼명창’(전남 70대 여)이 나타나는 것과 평행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0105 눈두덩

지역과 세대 그리고 성별을 불문하고 ‘눈두덩’과 ‘눈두덩이’와 같은 표준어가 많이 나타난다. 다만 경상외의 50대(경남 여)와 70대(경북 여)에서 ‘눈떠부리, 눈떠버리’와 같은, ‘봉’으로 소급하는 경상 지역어의 ‘ㅂ’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주 지역어의 ‘눈뚜경’(20대 남)과 ‘눈두께’(70대 여)와 의미적인 차원에서 이어지는 지역어형이라 할 수 있다.

### 20108 귀지

표준어 ‘귀지’도 여러 경우에 나타나지만, ‘긱밥’과 ‘귀칭’도 매우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 ‘긱밥’은 “긱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을 뜻하지 않으며 또 ‘귀칭’도 “긱구멍 안쪽에 있는 막”을 뜻하지 않고 ‘귀지’의 의미로 쓰인다. ‘긱밥’과 ‘귀칭’의 지역어형과 분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남녀 모두 사용).

#### ■ ‘귀지’(‘기지’ 포함)

- 경기 20대, 50대, 70대(남), 강원 20대, 70대(남), 충남 20대(남), 70대(남), 경남 20대, 전남 20대(여), 전북 20대
- ‘귀지’ 포함하여 두 지역어형이 함께 나타남: 충북 20대(남), 충북 70대(남), 경남 20대(여), 경북 20대(여), 50대(여), 70대(남), 전남 50대(여), 제주 50대(남)

#### ■ ‘긱밥’(‘귀밥, 기팍’ 포함)

- 경기 70대(여), 강원 50대(여), 충남 20대(여), 50대, 70대(여), 충북 20대(남), 50대(남), 경남 50대, 경북 20대, 전남 전부(20대 여, ‘귀지’ 제외), 전북 50대, 70대, 제주 전부

#### ■ ‘귀칭’(‘귀총, 귀칭이, 귀체이, 귀채이, 기칭이’ 포함): 50대 이상

- 강원 50대(남), 70대(여), 충북 50대(남), 70대, 경남 70대, 경북 50대, 70대

이들은 다음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첫째, 두 지역어형이 함께 쓰일 경우에, 대체로 둘 중 하나는 ‘귀지’이다. 표준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둘째, ‘긱밥’은 여러 경우에 보이나 충남, 전남, 전북, 제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귀

칭’은 강원, 충북, 경남, 경북에서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전국이 동서로 양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 두 지역어형은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서 세대별 분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20109 귀이개

‘귀이개’는 소수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다양한 지역어형이 나타난다. 대체로 표준어 ‘귀이개’를 쓰는 20대와 그 외의 지역어형을 쓰는 50·70대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귀이개’는 주로 20대를 중심으로 사용됨.
  - 강원 20대(남), 50대(여), 경남 20대(여), 전남 20대(여), 전북 20대, 제주 20대(여)
- 다른 지역어형과 함께 쓰이는 ‘귀이개’는 표준어의 확대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충남 20대(여), 충북 20대(남), 50대(남), 경북 20대
- ‘귀후비개, 귀쭈시개, 귀지개, 귀파개, 귀밥파개’ 등 다양한 지역어형이 쓰임.
- ‘귀(기) 후비는 거, 킷밥 내는 거, 킷밥 파는 거’와 같은 구형이 경남과 제주의 70대에게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함.

### 20110 엇듣다

특별히 주목할 다른 방언형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표준어 단일형 항목이다. 다만 제주 70대(여)의 ‘예사듣다’는, 어간만으로 형성된 합성어(V+V) ‘엇듣다’와는 달리 어미 ‘-아’가 개입되어 있는 합성어(V-아+V)인 것으로 보인다(구일 가능성도 없지 않음). 이는 제주의 ‘야사보다’(“엇보다”)와 그 구조가 같을 것이다.

### 20113 구레나룻

표준어형 ‘구레나룻’이나 이의 변이형이 전반적으로 발견된다. 다만 70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X수염’형을 볼 수 있다.

- ‘구레수염’형(‘꾸리췌이미, 구리샘/구리새미, 굴레쉬움, 괴알시엄’)
  - 경남 70대, 경북 70대, 전남 70대
- 녹데쉬엄, 녹두쉬엄: 제주 70대

위의 ‘X수염’형은 세대로는 70대, 지역으로는 경남, 경북, 전남, 제주에서만 보여 남부지역으로 그 분포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괴알’은 “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솔”을 뜻하는 ‘귀알’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녹데’와 ‘녹두’는 “굴레”를 뜻하는 몽고어 차용어일 것이다.

## 20114 낮

표준어형 ‘낮’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간말평음화에 의한 ‘낮’도 ‘낮’에 못지않게 분포하고 있다. 제주 50대(여), 70대(여)의 ‘양지’는 중세국어의 ‘양즈’로부터의 변화형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어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한 좋은 예이겠다.

## 20124 겨드랑

경기와 전북은 모든 경우에서 표준어 ‘겨드랑(겨드랑이)’이 나타나고,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은 20대와 50대에는 표준어가 나타나고 70대에서는 비표준어가 나타나 세대별 차이를 명확히 보여 준다.

- 저드랑: 강원 70대(여), 충남 70대(여), 충북 70대, 전남 70대(남)
- 자트랑이: 경남 70대(여)
- 경북: ‘자다랑, 자드랑, 저드랑’(50대), ‘자드락, 저드럭, 자드라기’(70대)
- 제주: ‘조깅이’(20대 여), ‘저깅이’(50대, 70대 여), ‘젓가렁이’(70대 남)

경북과 제주는 ㄱ-구개음화 적용 여부와 ‘jʌ’의 변화 여하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어형을 보인다(경남의 ‘자트랑이’ 포함). 경북과 제주의 20대와 50대의 경우가 있지만 ‘겨드랑’의 지역어형은 세대별 분화를 비교적 명확히 보여 주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25 팔짱 끼다

‘팔짱 끼다’가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70대를 중심으로 ‘끼다’가 ‘찌다’로 나타나고(구개음화) 전남과 제주에서 ‘·’의 변화와 관련된 ‘팔짱’의 변이형을 볼 수 있을 뿐이다.

- 팔짱(폴짱, 폴짱) 찌다: 경북 20대(남), 70대, 전남 70대(여), 전북 70대(여), 제주 70대(남)
- 폴짱 끼다(찌다): 전남 70대(여), 제주 20대(여)
- 폴짱 찌다: 제주 70대(남)
- 기타 팔굽 지다(끼다): 경북 70대

### 20129 새끼손가락

표준어 일색이라 할 정도로 ‘새끼손가락’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새끼손가락’이 경기 70대(여), 충북 70대(남)에서 보이고, ‘새끼손가락’이 강원 70대(여), 충북 70대(여), 전남 70대(남), 전북 70대(남)에서 보여 세대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20133 가부좌

‘가부좌’는 극히 소수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책상다리, 양반다리, 아빠다리, 나비다리’ 등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가부좌’와 함께 ‘양반다리’ 및 ‘책상다리’는 표준어이나 ‘아빠다리’와 ‘나비다리’는 그렇지 않다. 세대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빠다리, 나비다리’의 세대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아빠다리: 경기 20대, 강원 20대(남), 50대(남), 충남 20대, 충북 20대, 경남 20대, 경북 20대(여), 전남 20대, 50대(남), 전북 20대(남)
- 나비다리: 경남 20대(여)

50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20대를 중심으로 ‘아빠다리’와 ‘나비다리’가 쓰이고 있어 신방언 형성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한적인 자료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빠다리’나 ‘나비다리’가 보이지 않고 20대도 ‘양반다리’와 ‘가부좌’를 쓰고 있는 제주는 보수적인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듯하다.

### 20134 무릎

표준어형 ‘무릎’보다는 어간말평음화가 반영된 ‘무릅’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릎’은 충남 20대, 충북 20대(여), 경북 20대(여) 등에서 주로 보이는데 어간말평음화의 변화 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표준어의



영향일 것이다. 제주에서 보이는 ‘독무릎, 독모릅, 독모립, 독무릅’은 이 지역 특유의 지역어형이겠다.

### 20136 까치발

표준어형 ‘까치발’이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북, 제주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꽃발, 꼬발’이 보편적으로 쓰여서 인상적이다. 경남과 경북에서 보이는 ‘깨금발’도 이 지역 특유의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나 경기 70대(남)과 충북 50대(남)에게도 보여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70대의 ‘재끼발’도 특유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경남, 경북 그리고 전남에서 지역 특유의 지역어형이 우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표준어형이 우세하다.

### 20138 콩팥

표준어형 ‘콩팥’은 극히 산발적으로 소수의 경우에만 나타나고(한자어 ‘신장’은 덜 드물게 나타남) 지역어형 ‘콩팸’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콩팥>콩팸’으로의 변화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콩팥’과 ‘콩팸’은 경남과 경북에서 주로 보이고 ‘으>오’의 변화에 의한 ‘콩팸’이 전남 70대(여)에 나타난다.

### 20202 명울

‘명’계와 ‘몽’계로 크게 나뉘어 실현된다. ‘명-’계는 ‘명울, 명얼, 명울아지, 명우리, 명어리’ 등의 형태(42건), ‘몽-’계는 ‘몽우리, 몽아리, 몽오리, 몽구리, 몽울(을)’ 등의 형태(37건)로 나타났다. 기타 ‘혹, 물혹’ 등을 포함하여 세대별로 20대는 ‘명-’계가 우세하고 50대와 70대에서는 ‘몽-’계가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207 버짐

‘버짐’계와 ‘버즘’계로 크게 나뉘어 실현된다. ‘버짐’계는 ‘버짐, 마른버짐’ 등의 형태(39건), ‘버즘’계는 ‘버즘, 군버즘’ 등의 형태(29건)로 나타났다. 기타 ‘습진, 비듬, 버리치기(경남 70대 남), 도장병(충남 70대 여), 범버섯(경북 70대), 찌개미(전북 70대 남)’ 등을 포함하여 세대별로 20대에서는 ‘버즘’계, 50대와 70대에서는 ‘버짐’계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209 딸꼭질

‘딸꼭-’계와 ‘갈딱-’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딸꼭-’계는 ‘딸꼭질, 따꼭질, 딸꼭질’ 등의 형태(80건), ‘갈딱-’계는 ‘갈딱질, 갈뚝질, 갈때(떼)기, 갈따구, 갈딱지, 갈뜨래기, 갈따질, 갈뜨기, 꼰떡디기’ 등의 형태(16건)로 나타났다. 기타 ‘퍼깍(깍)질(2: 전북 70대 여), 포깍질(3: 전남 70대), 툭곡지(1: 제주 70대 남), 털국질(1: 제주 50대 남)’ 등을 포함하여 세대별로 20대에서는 ‘딸꼭-’계가 우세하고 70대에서는 ‘갈딱-’계를 주로 사용하였다. 50대는 두 가지 어형의 ‘완충 세대’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완충 세대’란 방언이 변화되는 과정에 구세대 방언과 신세대 방언이 공존하는 세대를 뜻한다.

## 20211 방귀

‘방귀’계와 ‘방구’계로 크게 나뉘어 실현된다. ‘방귀’계는 ‘방귀, 방기’ 등의 형태(40건), ‘방구’계는 ‘방구, 똥방구, 뺑구’ 등의 형태(75건)로 나타났다. 기타 ‘똥끼다(1: 경북 50대 남), 똥/똥냄새(2: 제주 20대 여, 50·70대)’ 등이 조사되었다. 전 세대에 걸쳐 대체로 ‘방구’형이 우세한데, 20대의 경우 ‘방귀’계와 ‘방구’계가 비슷하게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완충 세대로 분석된다.

## 20212 꺾다

‘꺾다’(53건), ‘꾸다’(8건), ‘끼다’(49건)로 나뉘어 실현된다. 전반적으로 ‘꺾다’의 단음화형 ‘끼다’가 매우 우세한데, ‘꾸다’의 경우 주로 70대에서 월등하게 실현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20215 졸음

‘잠’계와 ‘졸음’계, ‘자부림’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잠’계는 ‘잠’(44건), 그리고 ‘졸음’계는 ‘졸음, 졸음, 졸림, 조름’ 등의 형태(61건), ‘자부림’계는 ‘자부림, 자부람, 자부름’ 등의 형태(7건)로 나타났다. 기타 ‘조라움(1: 제주 70대 여)’ 그리고 동사형을 조사한 ‘자울다(1: 전남 70대 여)’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졸음’계와 ‘잠’계가 여전히 우세하며 ‘자부림’계는 점차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303 다슬기

‘다슬기’계와 ‘올갱이’계, ‘고동(동)’계, ‘달팽이’계, ‘고디’계, ‘골부리’계 등으로 나뉘어 실현된다. ‘다슬기’계는 ‘다슬기’(63건), ‘올갱이’계는 ‘올갱이, 비틀어올갱이’(12

건), ‘고동(동)’계는 ‘고동, 고동이’(19건), ‘달팽이’계는 ‘달팽이, 탈팽이, 탈패이’(8개 표본), ‘고디’계는 ‘고디이, 사고디, 사리고디, 싸고디이’(7건) ‘골부리’계는 ‘골부리, 꼴부리, 골배이’(4건)로 나타났다. 기타 ‘개우렁, 대사리(되살이, 대수리), 고메기(내꼬매기), 빼뚜리(빼트리)’ 등이 출현하였다. ‘다슬기’형은 지역적 방언형이 상당히 복잡하였으나 현재는 ‘다슬기, 올갱이, 고동형’으로 통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 20310 벌레

‘벌레’계와 ‘벌거지’계와 ‘벌러지’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벌레’계는 ‘벌레, 버랭이, 베랭이’(86건), ‘벌거지’계는 ‘벌거지’(12건), ‘벌러지’계는 ‘버러지, 버럭지, 벌러지, 버라지’(6건) 등으로 나타났다. ‘벌레’계와 ‘벌거지’계가 융합된 방언형으로 6건이 조사되었는데 ‘버러지, 버럭지, 벌러지, 버라지’ 등이 그 실현형이다. 이 중 ‘벌거지’계와 ‘벌러지’계는 20대와 50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타 ‘물것(컷), 곤충’ 등이 조사되었다.

### 20317 쉬파리

‘쉬-’계와 ‘똥-’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쉬-’계는 ‘쉬, 쉬파리, 쇠파리, 시파리, 췌(췌)파리, 쇠파리, 쉬포(피, 픈)리’ 등(46건), ‘똥-’계는 ‘똥파리, 똥파레이, 똥포(푼)리’ 등(42건)으로 나타났다. ‘쉬-’계 방언형이 고품이고 ‘똥-’계 방언형이 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해파리(1: 충남 70대 여), 날파리(1: 전북 50대 남), 애벌레(1: 제주 50대 남)’ 등이 조사되었다.

### 20320 바구미

‘바구미’계와 ‘쌀벌레’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바구미’계는 ‘바구미, 바그미, 바기(끼)미, 바개(귀)미, 쌀바구미’ 등(58건), ‘쌀벌레’계는 ‘쌀벌레, 쌀버럭지’ 등(17건)으로 나타났다. ‘바구미’계 방언형이 고품이고 ‘쌀벌레’계 방언형이 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콩벌레(1: 경남 50대 남), 좀(1: 경남 50대 여), 좀파랭이/좀버랭이(1: 제주 50대 여)’가 조사되었다.

### 20329 벼

표제어 ‘벼(鷄冠)’은 ‘벼’계와 ‘벼슬’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벼’계로는 ‘벼, 별, 벳’ 등(10건), ‘벼슬’계로는 ‘벼슬, 닥벼슬, 벳실, 베슬, 비슬, 베실’ 등(90건)이 조사되

었다. ‘벼슬’계가 전 세대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벧’계의 경우 주로 20대 중심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고달’형(‘고달, 득고달’)의 경우, 제주 70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337 갈치

‘갈치’(90건)와 ‘칼치’(24건)와 ‘깎치’(4건)로 나뉘어 실현된다. ‘갈치’계와 ‘칼치’계의 구분은 어류의 칼 모양에서 비롯된 분화형이고 ‘갈치’는 발음상의 분화로 분석된다.

### 20338 고기

‘고기’계와 ‘괴기’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고기’계는 ‘고기, 꼬기, 살꼬기, 육고기’ 등(82건), ‘괴기’계는 ‘괴기, 궤기, 계기’ 등(13건)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고기’계는 주로 20대, ‘괴기’계는 50대와 70대가 사용하였다.

### 20343 번데기

‘번-’계와 ‘뺨-’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번-’계는 ‘번데기, 번디기, 번데, 번디이’ 등(22건), ‘뺨-’계는 ‘뺨데기, 뺨디기’ 등(71건)으로 나타났다. 전 세대에서 ‘뺨-’계 방언형이 주로 사용된다. 기타 ‘고조리(1: 제주 70대 여)’는 제주, ‘꼰데기(1: 경북 70대 여)’는 경북, ‘뺨데기(1: 전남 70대 여)’는 전남 방언형이나 인지도가 매우 낮아 현재는 소멸 단계에 들어선 형태로 분석된다.

### 20406 진달래꽃

‘진달래’계와 ‘참꽃’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진달래’계는 ‘진달래꽃, 진달래, 진달래나무, 신달래꽃’ 등(99건), ‘참꽃’계는 ‘참꽃, 창꽃’(20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개진달래, 참진달래(전북 70대 여)’의 경우 두 어형이 융합된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 20408 숲

‘숲’(71건)과 ‘수풀’(5건)과 ‘습’(24건)으로 나뉘어 실현된다. 기타 ‘고지, 밀림, 군림, 곳, 빌레’ 등이 조사되었다.

### 20410 칩

표제어 ‘칩’의 경우, ‘칙(칙뿌리)’(92건)과 ‘칠기’(6건)로 나뉘어 실현된다. 기타 ‘칩

(충북 50대, 충남 20대 남)’이나 ‘꼭, 꺾(제주 50·70대)’가 조사되었다.

### 20412 부스러기

‘부스러기’계와 ‘뿌스러기’계로 나뉘어 실현된다. ‘부스러기’계는 ‘부스러기, 부스레기, 부시레기, 부르러기, 부슬거리, 비시러기’ 등(74건), ‘뿌스러기’계는 ‘뿌스러기, 뿌스레기, 뿌시레기’ 등(19건)으로 나타났다. 전 세대에서 ‘부스러기’계 방언형이 주로 사용된다. 기타 ‘찌끄레기/찌끄리기(2: 경북 70대 여, 전북 70대 남)’나 ‘비시러기(1: 전남 70대 여), 뿌찌레기(1: 경북 20대 여)’가 조사되었다. ‘뿌찌레기’의 경우 ‘뿌스러기’와 ‘찌꺼기’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신방언으로 분석된다.

### 20413 옷

‘옷’(30건)과 ‘옷’(69건)으로 나뉘어 실현된다. 기타 ‘온/오돌(전북 70대 여, 경남 70대 남)’이나 ‘칠낭(제주 70대 여)’이 조사되었다.

### 20415 벼

‘벼’계와 ‘나락’계로 크게 나뉘어 실현된다. ‘벼’계는 ‘벼, 베’ 등(96건), ‘나락’계는 ‘나락, 나록, 나룩’ 등(4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산디’(제주 70대 여)도 조사되었다. 전 세대에서 ‘벼’형이 우세하며 ‘나락’계의 경우 50대와 70대에서 주로 사용하나 일부 20대(경상 20대 남)에서 이해어 정도로 조사되었다.

### 20606 아우타다

표준어형 ‘아우타다’는 70대 경기(남·여), 충북(여)에서, 지역어형 ‘아수타다’는 70대 강원(여), 50대 충남(여), ‘아시타다’는 70대 경남(남·여), 전남(여), 50대 경남(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아우타다, 아수타다, 아으타다’ 등의 형태는 대부분 ‘④ 무지’로 나타났다. ‘아우타다’의 사용도/인지도에서 ‘① 사용’ 또는 ‘② 이해’로 나타난 지점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해당 어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남성: 70대 경기, 경남

- 여성: 70대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 50대 충남, 충북, 경남

### 20601 계집아이

표준어형인 ‘계집아이’는 지역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단어 중 하나이다. 경

기에서는 ‘계집애/가시네’, 강원·충청에서는 ‘기집애’, 경남에서는 ‘기집애애’, 경북에서는 ‘계에집아’, 전남에서는 ‘가시내’, 전북에서는 ‘지집애’, 제주에서는 ‘지집아이’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만, 경북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해당 어형이 ‘④ 무지’로 나타나서 지역어형이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703 할아버지(호칭)

표준어형인 ‘할아버지’는 전 세대 54개 중에 46개가 발견되므로 점차 표준어형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경상에서는 대부분의 세대가 지역어형 ‘할배’, 표준어인 ‘할아버지’를 함께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경북 50대(남), 경남 70대(남)에게는 ‘할배’만 나타났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 70대만 지역어형 ‘하내’를 사용하고 이하 세대들은 할아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704 할머니(호칭)

표준어형인 ‘할머니’는 전 세대 54개 중에 46개에서 발견되므로 점차 표준어형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경상에서는 대부분의 세대가 지역어형 ‘할매’, 표준어인 ‘할머니’를 함께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경북 50대(남), 경북 70대(여)에게는 ‘할매’만 나타났다.

### 20707 아범

표준어형 ‘아범’은 전 세대 54개 중에서 4개(경기 70대 여, 강원 70대 남, 충남 70대 여, 경남 50대 남)만 발견되므로 사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범’ 대신에 ‘OO아빠, OO애비, OO남편’의 형태가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736 처남댁(손위, 호칭) / 처남댁(손아래, 호칭)

‘처남댁(손위, 호칭), 처남댁(손아래, 호칭)’은 20대와 50·70대 사이의 세대 간 차이를 보이는 단어 중 하나로 보인다. 처남댁(손위, 호칭)은 경북 20대(여), 전남 20대(여), 전북 20대(남)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20대들이 ‘처남댁’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남댁(손아래, 호칭)은 경북 20대(남·여), 전남 20대(여), 제주 20대(남)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20대들이 ‘처남댁’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어휘 모두 대부분의 지역에서 50대 이상은 ‘처남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901 (친구를 만났을 때) 안녕

종종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 쓸 수 있는 인사말이다. ‘안녕’과 ‘하이’는 20대에서 주로 확인되며 ‘좋은 아침’은 50대 남성에게서 주로 확인되는 형태다. ‘오랜만이-, 잘 지내-’ 등이 전형적인 형태로 확인되나 이는 종종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의 인사말은 아닐 것이다. 질문문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밤새 무사했는지, 끼니는 거르지 않았는지 하는 생존과 관련된 전통형의 잔재는 흥미롭게도 거의 경북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2022년 결과물의 경우, 경북의 50대에서는 성별 차이마저 보인다. 50대 남성 제보자는 ‘밥 뭣나?’, 여성 제보자는 ‘안녕’이라고 답한 것이다. 다만 70대에서는 남녀 공히 ‘밥 뭣나/뭣나?’로 답했다. 실생활과 관련짓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경북은 양식이 풍부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다. 경북을 제외하면 이런 표현이 유일하게 전북 70대(여)에서 확인된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다만 2023년 조사에서는 ‘밥’과 관련한 인사말(‘밥 뭣나?’)이 경북 50대(남)에서 유일하게 확인된다는 점은 약간의 문제로 남는다. 더 많은 조사의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생존과 관련된 인사말 대신 ‘왔-’, ‘안녕’으로 표현하는 제보자를 아래에 제시한다.

- 왔나/왔냐/왔어(17건): 20대가 40%로 세대별 요소가 주로 관여함.
  - 2023년: 경기 50대(여), 충북 20대(남), 충북 50대(남), 경남 20대(여), 경북 20대(여), 경북 70대(여), 전남 20대(남)
  - 2022년: 충남 70대(남), 충북 20대, 경남 20대, 경북 20대, 전북 50대(여), 전북 70대(여), 제주 50대(남)
- 안녕(41건): 20대가 50%를 차지하되 여성이 우세함. 표본이 확대된다면 좀더 흥미로운 결과가 예상된다.
  - 2022년은 17(여) 대 4(남)로 여성이 압도적임: 경기 20대(남), 강원 20대, 강원 50대(여), 강원 70대(여), 충남 20대, 충남 50대(여), 경남 20대, 경남 70대(여), 경북 20대(남), 경북 50대(여), 경북 70대(남), 전남 20대(여), 전남 50대, 전북 20대, 전북 50대(남)
  - 2023년은 11(여) 대 9(남)로 수적으로 비등해짐: 경기 20대(여), 경기 50대(여), 강원 20대(여), 강원 50대(여), 강원 70대(여), 충남 20대, 충남 50대(여), 충북 50대(여), 충북 70대(남), 경북 20대(여), 경북 50대(여), 경북 70대(여), 전남 20대, 전남 50대(여), 전남 70대(여), 전북 20대, 전북 50대(여), 전북 70대

(여)

연령별로는 ‘왔-, 안녕’ 계열이 40~50%에 이르고 있어 이런 추세는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50대 이상에서 확인되는 ‘어디 가-/뭐하러 가-’와 같은 항목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건네는 인사말’ 심지어 ‘2-3일 만에 만나는 친구, 2-3년 만에 만나는 친구’ 등으로 나누어서 화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미 그렇게 조사한 조사자도 있음).

한편 외국어를 그대로 쓰는 ‘하이’는 20대의 전유물로 보이며 번역형 ‘좋은 아침’은 20대보다는 오히려 50대에서 일반화된 형태로 보인다.

- 하이(7건): 1건을 제외하면 20대에서만 확인됨. 다만 충북 50대 제보자(2022년 조사)는 ‘바이, 하이, 좋은 아침, 안녕’ 등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함.
  - 2023년: 경기 20대(여), 충북 20대(여), 전남 20대, 제주 20대
  - 2022년: 전남 20대(남), 전북 20대(남), 충북 20대(남), 충북 50대(남)
- 좋은 아침(7건): 50대 5건, 20대 2건
  - 2023년: 강원 50대(남), 충남 50대, 충북 20대(여), 경북 50대(여), 전북 20대(여)
  - 2022년: 충북 50대(남)

### 20903 (친구와 헤어질 때) 안녕/잘 가/들어가

전통적인 표현은 ‘잘 가’, ‘다음에/또 봐’ 정도일 텐데 이들보다는 ‘들어가’의 확산을 알아보고자 하는 조사 항목이 된다. ‘잘 가’라는 표현이 전 연령층에서 전형적인 인사말로 확인되는 반면 ‘들어가’라는 표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쓰임을 넓혀 가고 있다. 또 ‘안녕’은 50대 이상에서 주로 사용하며 일부 20대 제보자는 ‘바이/빠이’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들어가’의 경우, 이 표현은 50대 이상에서 선호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2022년과 2023년을 합하여 18건 중 3건이 20대, 50대는 8건, 70대는 7건 출현한다.

- 안녕(16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13건), 성별로는 여성(12건)이 압도적임.
  - 2023년: 강원 50대(남), 강원 70대(여), 충남 50대(여), 경남 70대(여), 경북 20



대(남), 경북 50대(여)

- 2022년: 경기 70대(여), 충남 70대(여), 충북 50대(남), 경북 20대(여), 경북 50대(여), 경북 70대(여), 전남 20대(여), 전남 70대, 전북 70대(여)

■ 바이(4건): 1건을 제외하면 3건이 20대이다. 다만 충북 50대 제보자(2022년 조사)는 ‘바이, 하이, 좋은 아침, 안녕’ 등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함.

- 2023년: 전남 20대

- 2022년: 충북 20대(여), 충북 50대(남)

■ 들어가(18건)

- 2023년: 충남 50대(남), 충북 50대(여), 경남 20대(여), 경남 50대(남), 전남 50대, 전남 70대(여)

- 2022년: 강원 70대(남), 경북 20대(남), 경북 50대(여), 경북 70대, 전남 20대(남), 전남 70대, 전북 50대(여), 전북 70대(여), 제주 50대(남)

질문지의 인사말로 ‘안녕, 잘 가, 들어가’가 예시로 나와 있는 경우이니 이 또한 상황 맥락을 잘 고려해서 질문해야 한다. ‘각자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상황에서 건네는 인사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귀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들어가’라는 인사말은 답변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친구 사이인데 ‘안녕하세요, 바이요’ 등의 해요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다른 표현에서도 그런 화법이 가능한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20대의 화법일 수 있는 ‘꺼정/꺼져’류 하나만 답으로 제시한 조사라면 다른 표현도 이끌어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21203 덤

주로 표준어형인 ‘덤’이 나타난다. 물론 일부 지역어의 50·70대에서는 전통적인 방언형이 사용된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주로 20대를 중심으로 외래어 ‘씨비쓰’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 전통적인 방언형 ‘우수(또는 운수)’가 사용되는 경우

- 경북 50대(여), 경북 70대(남,여), 전남 70대(남,여)

■ ‘씨비쓰’가 사용되는 경우

- 충남 20대(남), 경남 20대(남,여), 전북 20대(여)

## 21405 허리띠

표준어형 ‘허리띠’의 쓰임이 가장 흔한데 50·70대를 위주로 ‘허리끈/헐끈’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한자어 ‘혁명/혁대’가 쓰이고 있으며 20·50대를 위주로 외래어 ‘벨트’의 쓰임도 적지 않은바, 이 항목은 다양한 어종의 형태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울러 ‘허리띠’와 ‘혁명’의 혼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혁띠’가 나타나기도 한다.

### ■ ‘허리끈/헐끈’이 사용되는 경우

- 강원 70대(여), 경남 50대(남), 경남 70대(남), 경북 20대(남), 경북 50대(남·여), 경북 70대(남·여), 전남 50대(남), 전남 70대(여), 전북 20대(여), 전북 50대(여), 전북 70대(여)

### ■ ‘혁명/혁대’가 사용되는 경우

- 강원 70대(남·여), 충남 70대(남), 충북 70대(남·여), 경북 50대(남)

### ■ ‘벨트’가 사용되는 경우

- 경기 50대(여), 강원 50대(남), 충남 20대(남·여), 충북 20대(남·여), 충북 50대(남·여), 경남 20대(여), 경북 20대(남·여), 전남 50대(여), 전북 20대(남·여)

### ■ 혼효형 ‘혁띠’가 사용되는 경우

- 경기 50대(남), 경북 50대(남), 전북 50대(남), 전북 70대(남)

## 22105 그을음

표준어형 ‘그을음’이 산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으’ 탈락 및 경음화에 의한 ‘끄름’이 경기, 충남, 충북의 50대와 70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의 ‘△’에 대응하는 ‘ㅅ’이 나타나는 지역어형이 경남과 경북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전남과 제주의 70대에서도 나타나고 경남의 70대에서는 ‘△’에 대응하는 ‘ㅈ’이 보이기도 함).

## 22109 변소

표준어형 ‘변소’, ‘화장실’ 그리고 ‘뒷간’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 표준어 ‘축간’으로부터의 변화형 ‘척간’이 전남과 전북의 70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돼지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똥통’이 제주에서 전반적으로 쓰여 제주의 토속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 22206 갈퀴

표준어형 ‘갈퀴’와 그것의 변이형 ‘갈키, 갈쿠, 갈뀌, 괄키’ 등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도를 중심으로 ‘갈쿠리, 깔꾸리, 까꾸리’ 등이 쓰이고 제주에서 ‘글쟁이’가 쓰인다. 지역적 분화를 비교적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22209 작두

표준어형 ‘작두’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몇 가지 점은 주목할 수 있다.

- 경기 20대(남)의 ‘절단기’를 볼 수 있음. 신방언화 혹은 전통적 어휘인 ‘작두’를 몰라서 생긴 사어화와 관련된 형태일 것으로 판단됨.
- 경음화에 의한 ‘작두’와 ‘짱두’(?)가 경남, 경북, 전남의 70대를 중심으로 나타남.
- 비어두 ‘ㄱ>ㄷ’의 변화를 입기 전의 형태인 ‘작도’가 충남과 제주의 70대에서 나타남.

## 22210 솟돌

표준어형 ‘솟돌’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은 주목할 만하다.

- 경기 20대(남), 충북 20대(남)의 ‘칼갈이’: 신방언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칼갈이’는 원래 “칼을 갈아 날을 세우는 일”이나 “칼을 갈아 주고 샅을 받는 사람”을 뜻함.

[참고] 다음 지역어형들은 국어사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돌: 경기, 충북의 일부
- 싯돌: 전남 70대
- 신돌, 써돌: 제주
- 술또, 술뚜, 술둑: 전북

## 22222 구뚫주걱

표준어형 ‘구뚫주걱’과 이의 변이형 ‘구두주걱’이 여러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구두순가락, 구두칼’이 산발적으로 보이되, ‘구두칼’은 경기, 강원, 제주의 70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일본어 ‘헤라’가 전남과 전북의 50대와 70대에 보임

도 인상적이다.

### 22223 (담배를) 피우다/태우다

크게 다음의 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피우다’(‘피다’ 포함) 단독으로 조사된 경우: 경기, 강원, 충남
- 둘 중 하나를 쓰는 경우(‘피우다’가 더 많이 쓰임): 전남, 전북
- 대체로 ‘피우다/태우다’를 함께 쓰는 경우: 충북, 경남, 경북, 제주

### 22227 부지깅이

표준어형 ‘부지깅이’가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점은 주목된다.

- 전남, 전북, 제주의 노년층을 중심으로 ‘비지땅, 부지땅, 부지땡이’가 쓰이고 있음.
- 충북 20대(남), 경북 20대(남), 전북 20대(여)에서 ‘불쭈시개’와 ‘불쏘시개’가 쓰여 일종의 신방언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2229 반질고리

표준어형 및 그것의 부분적인 변이형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 세 가지 점은 주목할 수 있다.

- 경남 50대와 70대의 ‘반땅세기, 반땅시개, 바늘당시기, 당시기’는 동남방언 특유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음.
- 제주의 ‘바농상지(50대·70대 여), 바농구덕(70대 남)’은 제주 특유의 ‘바농, 상지, 구덕’을 보여 주고 있음(‘상지’는 ‘전남 70대 남’의 ‘바느질상자/상지’에서도 볼 수 있음).
- ‘바늘통’(경기 20대 남), ‘바느질통’(경남 20대 남)은 신방언 형성의 한 예라 할 수 있겠음.

### 22230 다듬잇돌

표준어형 및 그것의 부분적인 변이형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를 중심으로 ‘빨래판’(경기 20대 남)과 ‘빨랫돌’(전남 20대 남)이 소수 쓰이고 있다(경남 20대 남, 50대 여, 70대 남, ‘다듬잇돌, 다듬잇돌, 서답돌’과 함께 쓰임). “빨래할 때 쓰는 판”을 뜻하는 ‘빨래판’과 “빨래할 때에 빨랫감을 올려놓고 문지르기도 하며 두드리기도 하는 넓적한 돌”을 뜻하는 ‘빨랫돌’이 ‘다듬잇돌’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신방언화 현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2231 썰과리

전국 여러 지역의 70대에서 ‘ㄹ’형 지역어형, ‘깁메기, 깁깨미, 깁깨미, 깁매, 깁매기, 썰매기’가 나타나 세대별 분화를 보이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 ‘ㄹ’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표준어형 혹은 표준어형으로부터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 충남, 충북, 제주에는 ‘ㄹ’형이 나타나지 않아 부분적으로 지역별 분화를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 22401 잃다/뺏다

지역과 세대 그리고 성별을 불문하고 표준어형 ‘잃다’가 많이 나타난다. 다만 경남·경북·제주 지역에서는 지역어형인 ‘뺏다’가 ‘잃다’와 함께 쓰이며, 전남 지역에서는 지역어형 ‘푸다’가 ‘잃다’와 함께 쓰이고 있다.

### 22409 목말

표준어형 ‘목말’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양한 지역형이 나타난다. 대체로 ‘목마, 무등’을 쓰는 지역과 그 외 지역어형을 함께 쓰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에서는 ‘목마, 무등’의 지역어형을 사용하며, 경남에서는 ‘목마’와 함께 ‘호옥말, 흑말’을 경북에서는 ‘무등, 동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마’와 ‘무등’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대는 ‘목마’를 사용하며, 50대 이상은 ‘무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410 소꿉놀이

표준어형 ‘소꿉놀이’는 경기·전라 20대와 경남의 전세대에서 나타난다. 그 외 지역에서는 다양한 지역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 강원, 충남 50대 이상은 ‘소꿉놀이, 소꿉장난’ 충북 70대(남)는 ‘통고바리’, 경북 70대(남·여)는 ‘혼집놀이, 혼잡, 혼두깨비’, 전라 50대 이상은 ‘바꿈살이’, 제주 70대(남·여)는 ‘흑밥, 흑밥놀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경상 20대(여)에서 ‘엄마놀이’라는 신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22507 플래시/후레시

규범 표기인 ‘플래시’보다 비규범 표기인 ‘후레시, 후라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레시, 후라시’의 형태가 사용되었으며, ‘플래시’는 일부 지역(강원 여, 충남 남, 경북 남, 제주 여)의 20대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601 (그릇을) 부시다/씻다

경상의 70대와 전북 70대 그리고 경남 50대(남)는 ‘쫘다, 시끄다’, 전라 70대는 ‘씻다’, 전북 20대(여) 그리고 제주 50대·70대와 제주 20대(여)는 ‘시치다’를 사용하며,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씻다’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로 50대 이상에서 지역적 분화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한편 제주의 50대 화자를 제외하면 ‘부시다’는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지할 때 이 형태는 거의 사어화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 22604 다르다/틀리다

‘색깔’이 다른 경우에 대해 20대의 경우 충북(남), 경북(남), 전남(남·여), 제주(여)는 ‘다르다/틀리다’를 혼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다르다’를 사용하고 있다. 50대 이상은 ‘다르다/틀리다’를 혼용하거나 ‘틀리다’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르다	다르다/틀리다	틀리다	합계
20대	13	5	0	18
50대	7	6	5	18
70대	5	3	10	18

### 22701 땡땡이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땡땡이치다’가 사용되는 가운데(‘땡땡이’ 대신 ‘농땡이, 빠구리’ 등이 사용되기도 함) 충북 및 경상도·전라도 지역의 20대를 중심으로 ‘째다’가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통계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으나 2022년(4건)에 비해 2023년(7건)에 더 많은 출현 예가 보고되었다.

## 22902 내버려 뒤

‘내버려 뒤(강원, 경기, 충청), 내빼리 도(경상), 내비 뒤(전북, 충북), 냅 뒤(전라), 내비/냅 도(경상, 전남), 내불라(제주)’에서처럼 어느 정도 지역적 분화를 보여 준다. 흥미로운 것은 남부형 ‘냅뒤’나 ‘냅도’가 2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부 방언형이 신방언으로 선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 22906 죽마고우

‘피복쟁이친구’(전라)를 제외하면 ‘소꿉친구, 불알친구’ 등의 형태가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자성어 ‘죽마고우’는 거의 사라져 가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죽마고우’가 지역, 세대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산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교육 수준과 관련된 표현으로 판단된다. 특징적인 것은 20대를 중심으로 ‘절친’ 또는 ‘베프’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 4.2. 구술발화에 관한 분석

단어 중심의 어휘·표현 조사와 달리, 문장 중심의 구술발화 조사는 그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한국인의 생활사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이러한 구술발화 조사의 결과물들은 말투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언어학적으로 말투는 크게 격식 말투와 비격식 말투로 나뉜다. 말투의 면에서 어휘·표현 조사 결과물과 구술발화 조사 결과물을 거칠게 비교하면 어휘·표현은 격식 말투, 구술발화는 상대적으로 비격식 말투를 조사한 것이 된다. 이러한 두 말투는 음성, 억양, 단어, 어구, 문장, 텍스트 등 여러 부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결과의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기본 말뭉치 확보가 전제된다. 아직 그러한 크기의 말뭉치가 전혀 구축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단어 차원에서의 비교를 통해 두 말투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는 작업으로 한정된다. 그리하여 일단,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어휘·표현 조사의 결과물과 구술발화 조사 결과물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선별해 내고 이에 대해 지역·세대·성별 요소를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해 본다.

‘ㄱ’말음 체언이나 움라우트 관련하여, 70대 남성 화자의 경우에 어휘 조사와 구술발화 조사에서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발견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비격식 말투에 가까운 구술발화에서 전통형이 출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 조사의 사례가 더 많아진다면 70대 여성 화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ㄱ’말음 체언

- 어휘·표현: 겨울
- 구술발화: 겨웁 cf. 겨웁-에

■ 전통형 및 움라우트 관련

- 어휘·표현: 참외, 밖 cf. 밖에
- 구술발화: 참이/참이, 백 cf. 백에

경음화에서는 세대뿐 아니라 사례별로 성별 차이를 보여 주기도 한다. 다음은 50대·70대 여성 화자에게서 나타난 어두경음화의 예다. 일단 이 경우에는 사례가 더 축적되면 남성 화자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역시, 구술발화에서 전통형 또는 비표준형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어휘·표현: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 썬터
- 구술발화: 꼬춧가루, 꼬추장, 꼬추, 썬타

다만 다음 항목의 경우, 70대 남성 화자가 다소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구술발화에서는 표준형 즉 경음화하지 않은 방언형이 산출되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일단은 특이 사례로 간주해 두고자 한다.

- 어휘·표현: 지끔, 씨래기
- 구술발화: 지금, 시래기

이는 ‘다리미’라는 단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70대 남성 화자가 어휘·표현 조사에서 ‘다레미, 대리미’와 같은 방언형을 실현하였으나 구술발화에서는 ‘(전기)다리미’형을 보였다. 선행 요소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이 또한 특이 사례로 간주한다. 경기 지역의 70대 남성 화자가 가지는 사회적 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모음화의 경우, 70대 이상 여성 화자에게서 두 말투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또한 성별 차이를 가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술발화에서 전통형 즉 ‘은제’ 등의 ‘ㄱ>ㅡ’ 고모음화형이나 ‘백이’ 등의 ‘개>ㅣ’ 고모음화형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 어휘·표현: 언제, 백에
- 구술발화: 언제/은제, 백이

다만 50대 남성의 구술발화에서 ‘으떻게/으쨌게’(어떻게)와 같은 고모음화형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현재로선 50대 남성이 더 보수적 어형, 즉 전통형을 유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위’의 경우, 70대 이상 화자와 50대 남성 화자는 공통적으로 구술발화에서 전통형 ‘우’를 보였다. 다만 50대 여성 화자의 경우, 항목에 따라 말투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으며 심지어 하향이중모음 ‘우이[uj]’의 실현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단 사례만 제시하기로 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인지, 개인차인지 분명하지 않다.

■ 어휘·표현에서 표준형 출현(일반적)

- 어휘·표현: 쥐불놀이
- 구술발화: 지불놀이

■ 구술발화에서 표준형 출현(비일반적)

- 어휘·표현: 우, 가이, 바끼
- 구술발화: 위/우/우이, 가위, 바뀌

대명사의 경우에도 어휘 항목과 구술발화 간의 몇몇 차이점이 눈에 띄지만 사례가 적어 현재로선 일반화하기 어려워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 너가

- 어휘·표현: 너가(20대 남), 네가(70대 남성)
- 구술발화: 니가

■ 너희

- 어휘·표현: 너희(20대), 느네(70대 여)
- 구술발화: 너네(20대), 너희(70대 여)

이제까지 보아 온바 구술발화의 경우, 사례가 너무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통상적인 논의에서 언급되어 오는 바와 달리, 구술발화에서 격식형 즉 표준형을 보이는 사례도 제법 발견된다. 이러한 사례들이 조사 항목의 성격에 따른 결과인지, 조사 방법의 문제에서 발생한 결과인지 현재로선 밝혀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는 구술발화 분석 도구의 확립을 위한 분석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4.3. 종합 분석

이상에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어 변이 양상을 대략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는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므로 추후에 더 많은 제보자를 조사하여 상당 규모로 사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1) 전국적으로 표준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흰자위’(20103), ‘눈두덩’(20105), ‘엷든다’(20110), ‘팔짱 끼다’(20125), ‘새끼손가락’(20129), ‘우박’(20528) 항목은 표준화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많은 항목에서 20대는 표준어화가 대체로 완료된 모습을 보여 준다. 거의 모든 지역의 20대는 ‘처남댁’(20736)을 모르며 ‘할아버지’(20703), ‘할머니’(20704)의 경우에도 경상도 50대·70대(‘할배, 할매’), 전남 70대(‘하내, 할매’)를 제외하고는 표준형 ‘할아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역별 분화: 대체로 70대 이상에서 지역 분화형을 볼 수 있다.

지역적 분화를 볼 수 있는 항목으로 ‘귀지’(20108), ‘구레나룻’(20113), ‘까치발’(20136), ‘소꿉놀이’(20401), ‘계집아이’(20601), ‘갈퀴’(22206), ‘내버려 뒤’(22902) 등을 들 수 있다.

- 귀지(20108): 표준어 ‘귀지’가 여러 경우에 나타나는데, 지역어형 ‘긷밥’은 충남·전남·전북·제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귀청’은 강원·충북·경남·경북에서 나타남. ‘귀지’를 제외하면, 지역적으로 서쪽의 ‘긷밥’과 동쪽의 ‘귀청’으로 전국이 동서로 양분되고 있음.
- 구레나룻(20113): 70대의 경우, ‘×수염’형이 경남·경북·전남·제주에서만 보여 남부지역으로 그 분포가 제한적임.
- 까치발(20136): 70대의 경우, 경상도에서는 ‘깨금발’, 전남에서는 ‘뽕발’이 사용됨.
- 소꿉놀이(20401): 경기·강원·충남의 50대 이상은 ‘소꿉놀이, 소꿉장난’, 충북 70대는 ‘통고바리’, 경북 70대는 ‘혼집놀이, 혼잡, 혼두깨비’, 전라도의 50대 이상은 ‘바꿈살이’를 사용함.

- 계집아이(20601): 경기에서는 ‘계집애/가시네’, 강원·충청·경남에서는 ‘기집애’, 경북에서는 ‘계집아’, 전남에서는 ‘가시네’, 전북에서는 ‘지집애’, 제주에서는 ‘지집아이’의 형태로 나타남. 다만, 경북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해당 어형이 ‘㉔ 무지’로 나타나서 지역어형이 사라지고 있음이 확인됨.
- 갈퀴(22206): 경상도를 중심으로 ‘갈쿠리, 깔꾸리, 까꾸리’ 등 그리고 제주에서 ‘글쟁이’가 쓰이고 있어, 경상·제주와 그 외의 지역으로의 분화를 비교적 분명히 보여 줌.
- 내버려 뒤(22902): ‘내버려 뒤(강원·경기·충청), 내빼리 도(경상), 내비 뒤(전북·충북), 냅 뒤(전라), 내비/냅 도(경상·전남), 내블라(제주)’에서처럼 어느 정도 지역적 분화를 보여 줌.

그 외 ‘졸음’(20215), ‘다슬기’(20303), ‘벼’(20415), ‘부시다’(22601) 등도 분화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70대에서는 지역 분화형을 보여 주고 있다.

### (3) 세대별 분화: 전통형은 50대 이상에서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 분화를 볼 수 있는 항목은 50대를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나뉜다.

#### ■ 20대와 50대·70대로 분화

- 귀지(20108): 충남·전남·전북·제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긷밥’과 강원·충북·경남·경북에서 나타나는 ‘귀청’이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 지역은 물론 세대별 분화 양상을 보임.
- 귀이개(20109): 20대는 표준어 ‘귀이개’, 50·70대는 지역어형(‘귀후비개, 귀쭈시개, 귀지개, 귀파개, 귀밥파개, 귀(기) 후비는 거, 긷밥 내는 거, 긷밥 파는 거’ 등)
- 명울(20202): 20대는 ‘명-’계, 50대·70대는 ‘똥-’계
- 버짐(20207): 20대는 ‘버즘’계, 50대·70대는 ‘버짐’계
- 쉬슬다(20318): 20대는 모든 지역에서 ‘㉔ 무지’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50대(충남·경북 여, 경기·전남 남)와 대부분의 70대들은 지역어형(‘쉬썰다, 쉬 깔리다, 쉬실다, 쉬 싸다’)을 사용하고 있음.

- 고기(20338): 20대는 ‘고기’계, 50대·70대는 ‘괴기’계
- 허리띠(21405): 20대는 ‘허리띠’, 경상·전라의 50대·70대는 ‘허리끈/헐끈’
- 플래시/후래시(22507):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래시, 후라시’ 등 ‘ㅎ’계를 사용하는 가운데 규범 표기인 ‘플래시’가 일부 지역(강원·충남·경북·제주)의 20대들만 사용함.

#### ■ 20대·50대와 70대로 분화

- 구레나룻(20113): 표준어형 ‘구레나룻’이나 이의 변이형이 전반적으로 분포하나 70대의 경우 ‘X수염’형이 경남·경북·전남·제주 등 남부지역으로 그 분포가 제한적임.
- 겨드랑(20124): 20대·50대는 표준어 ‘겨드랑, 겨드랑이’가 나타나나(경북과 제주의 20대와 50대의 예외가 있음) 70대에서는 비표준어가 나타남. 경기와 전북에서는 70대도 표준어 ‘겨드랑, 겨드랑이’를 사용함.
- 꿩과리(22231): 전국 여러 지역의 70대에서 ‘ㄹ’형 지역어형(꿩매기, 꿩개미, 꿩개미, 꿩매, 꿩매기, 꿩매기)이 나타남.

세대 요소를 고려하여 인사 표현을 살필 때 친구와 만날 때나 헤어질 때의 인사말 ‘안녕’(20901, 20903)이 흥미롭다. 20대의 경우, 만날 때는 50%가 ‘안녕’을 사용하나 헤어질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헤어질 때의 ‘안녕’은 오히려 50대 이상에서 80%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만날 때의 ‘안녕’은 2022년 조사에서 여성 선호형으로 간주되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성별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더 많은 표본을 통한 통계가 요구된다.

#### (4) 성별 분화: 20대 남성이 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조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전통형을 제법 많이 보고하였으나 2023년 조사 결과, 확정적인 결론을 유보하게 되었다. 2024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의 조사에서는 전통형보다는 신형의 출현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 여성이 전통형을 유지

- 눈두덩(20105): 경상도의 ‘50대·70대 여성’이 전통형(눈떠부리, 눈떠버리)을 사

용함. 제주의 ‘70대 여성’의 전통형(눈두께)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됨.

## ■ 20대 남성이 신형을 확산

- 작두(22209): 경기 20대 남성의 ‘절단기’
- 숫돌(22210): 경기·충북 20대 남성의 ‘칼갈이’
- 반진고리(22229): 경기·경남 20대 남성의 ‘바늘통, 바느질통’
- 다듬잇돌(22230): 경기·경남·전남 20대 남성의 ‘빨래판’이나 ‘빨랫돌’

### (5) 신방언이 출현하기도 한다.

‘신방언’이란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겪어 신형이 탄생한 경우를 이른다.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특징적인 사실은 신방언의 확산이 경기도 출신의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항목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 가부좌(20133): 표준형 ‘가부좌’는 극히 소수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책상다리, 양반다리, 아빠다리, 나비다리’ 등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남. 특히 ‘아빠다리’와 ‘나비다리’는 50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20대를 중심으로 쓰여 신방언 형성의 좋은 예가 됨.
- 소꿉놀이(20401): 경상도의 20대 여성들이 ‘엄마놀이’라는 신형을 사용함.
- ‘안녕’(20901, 20903): 외국어 표현 ‘하이’와 ‘바이’는 20대의 전유물로 보임.  
cf. 외국어를 번역한 ‘좋은 아침’은 50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됨.
- 덤(21203): 경남 20대, 충남 20대 남성, 전북 20대 여성이 ‘씨비쓰’를 사용함.
- 허리띠(21405): 충청·경상·전라의 20대에서 ‘벨트’가 사용됨. ‘벨트’는 경기·강원·충북에서 50대도 사용하므로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된 신형으로 판단됨.
- 부지깥이(22227): 충북·경북·전북의 20대에서 ‘불쑈시개’와 ‘불쏘시개’가 쓰임. (‘불쏘시개’는 원래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붙게 하기 위해 먼저 태우는 물건”을 뜻함).
- 땡땡이치다(22701):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땡땡이치다’가 사용되는 가운데 (‘땡땡이’ 대신 ‘농땡이, 빠구리’ 등이 사용되기도 함) 충북 및 경상·전라의 20대를 중심으로 ‘짜다’가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내버려 뒤(22902): 남부형 ‘넵뒤’나 ‘넵도’가 신방언으로 선택되어 2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죽마고우(22906): 20대를 중심으로 ‘절친’ 또는 ‘베프’가 사용되기 시작함.

■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신방언이 출현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됨.

- 작두(22209): 표준어형 ‘작두’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20대 남성은 전통적 어휘인 ‘작두’를 몰라서 ‘절단기’를 사용함.
- 솟돌(22210): 경기·충북의 20대 남성은 ‘칼갈이’를 사용함.(‘칼갈이’는 원래 “칼을 갈아 날을 세우는 일”이나 “칼을 갈아 주고 샅을 받는 사람”을 뜻함).
- 반질고리(22229): 경기·경남의 20대 남성이 ‘바늘통, 바느질통’을 사용함. 역사 용어로 “바늘을 담아 두던 통(청동기 시대의 유적에서 나온 것으로, 둥근 동물 뼈의 한쪽 끝을 막아서 만들었음)”을 뜻하는 ‘바늘통’과 여기에서의 ‘바늘통’은 별개의 것일 듯함.
- 다듬잇돌(22230): 경기·경남·전남의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빨래판’이나 ‘빨랫돌’이 소수 쓰임. “빨래할 때 쓰는 판”을 뜻하는 ‘빨래판’과 “빨래할 때에 빨랫감을 올려놓고 문지르기도 하며 두드리기도 하는 넓적한 돌”을 뜻하는 ‘빨랫돌’이 ‘다듬잇돌’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

(6) 사어화: 전통 지역어형뿐 아니라 표준어형도 사어화를 겪고 있다.

표준어화에 따라 전통형의 사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무수히 많으므로 대부분의 예들을 생략하며 다만 여기서는 인사 표현의 경우만 예로 들기로 한다.

- ‘안녕’(20901, 20903): 친구와 만날 때 전통적인 인사말은 밤새 무사했는지, 끼니는 거르지 않았는지 하는 생존과 관련된 표현이 활용되었는데 그것이 ‘왔나’, ‘안녕’ 등으로 대치되고 있음. 2023년 조사에서는 ‘밥’과 관련한 인사말이 전국에서 경북 50대 남성에게서 유일하게 확인됨(밥 했나?).

■ 전통형뿐만 아니라 표준어형의 사어화도 진행되고 있다.

- 아우타다(20606): 일부 70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보자들에게 ‘㉓ 인지’ 또는 ‘㉔ 무지’로 조사됨.
- 아뵤(20717): 일부 70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OO아빠, OO애비’와 같은 형태를 사용함.
- 부시다(22601): 전북 20대 여성과 제주의 여성 화자(‘시치다’)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씻다’를 사용함. ‘부시다’는 거의 사어화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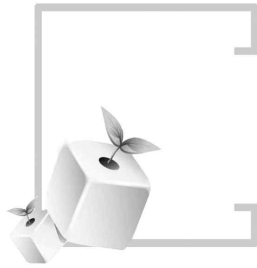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전통형이 유지되면서 표준어형만 사라지는 단어들도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 목말(22409): 표준어형 ‘목말’이 사용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어형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목마, 무등’을 사용하는 지역(경기·강원·충청·전북·전남·제주)과 그 외 ‘혹말(경남), 무동, 동대(경북)’ 등 지역어형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나뉨.

이상에서 보듯, 사어화하는 표준어형은 자연물이나 문물 또는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다. 대상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가리키는 언어 표현이 함께 사라져 사어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전통형의 소멸 현상을, 표준어에 의해 밀려나 사라지는 경우와 사회 변화에 의해 사라지는 경우를 구별하여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제 5 장

#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제5장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5.1. 사업 결과물

이 연구는 한국어에 관한 언어 다양성 보존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어에 관한 세대별·성별 변이 양상을 조사하여 실제의 언어생활이나 언어 정보화 및 각 지역의 언어문화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 가능한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결과물들을 목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결과보고서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사진 자료 포함): [별첨 파일]
-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붙임 1]
- 전사 자료 정비 지침: [붙임 2]
-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 [붙임 3]
- 조사 결과물: [별첨 파일]

#### <어휘·표현>

- 전체 녹음(WAV)
- 항목별 녹음 분절(WAV)
- 전사(EAF)
- 결과물 정리(XLS)

#### <구술>

- 전체 녹음(WAV)
- 전사 및 표준어 대역(EAF)

### 5.2.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준어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지역별, 세대별, 성별에 따른 표준어화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처럼 맹렬한 표준어화 과정 속에서도 전통적 방언형이 존속해 있거나 신형이 새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결국 해당 지역을 대

표하는 방언을 형성하게 되는 셈인데 이로써 앞으로의 조사 결과는 그러한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의 경쟁 및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리라 판단된다.

### 1) 의의

이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조사원들의 조사 작업을 통해서 지역별, 세대별, 성별 요소에 따라 드러나는 언어상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에서 전통형이 유지되고 있다.
- (2) ‘냅뒤/냅도(내버려 뒤), 바늘통(반진고리), 써비스(덤), 아빠다리(가부좌), 엄마놀이(소꿉놀이), 절친(죽마고우), 칼같이(숫돌)’ 등 20대를 중심으로 신방언형이 확산되고 있다.
- (3) ‘바구미, 다듬잇돌, 아우타다, 부시다’ 등 자연물이나 문물 또는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어휘는 표준어든 방언이든 상관없이 사어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정된 제보자를 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잠정적인 결과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어화를 겪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조사는 사전학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들 단어는 다음 세대에서는 결코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지금 현재, 해당 단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 충실히 해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단어들은 형태뿐 아니라 용례를 많이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해어로서는 좀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용례에 기반한 구사어로서의 명맥은 이미 사어화했을지도 모른다.

둘째, 신방언의 출현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언어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이런 신방언을 통해 가깝게는 방언이, 지난 세대의 유산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의식을 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신방언의 생성 및 확산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방언화자의 의식 나아가 한국인의 언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언학적으로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정리·분석의 면에서 의의를 갖는

다. 주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의미에서의 방언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70대 이상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기대 효과

이 연구는 세대와 성별이라는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지역어를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면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2021년 이후 동일한 취지로 이루어진 연차별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한국어 사용에서 지역과 세대,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사회적 변수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언어변화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언어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연구를 통해 언어가 항상 변화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나아가 언어의 역동성 및 자율성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로부터 방언을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지는 기존의 노년층 농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도시 지역 거주자도 두루 응답할 수 있도록 주제와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세대와 성별 그리고 지역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대안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각 조사 항목에서는 사용어, 이해어 및 미사용어를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도시 방언을 조사할 때도 기준이 되는 질문지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엘란(ELA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어 어휘와 구술발화에 대한 전사를 실시하였다. 엘란을 활용한 전사 자료는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물은 다양한 음성 자료 및 영상 자료의 결과물들과 비교 및 분석할 수 있어서 언어 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전문적인 언어 조사 요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어 조사 사업에 참여한 조사원의 경력 차이로 인해 조사 수준의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언어 조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언어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제 조사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훌륭한 언어 조사원을 양성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을 통해

서만 20여 명의 전문 조사원을 확보하게 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된다.

다섯째, 다양하고 입체적인 한국어 자료를 축적하여 확보함으로써 한국어 분야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사회학, 문화 예술 분야로 연구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 빅데이터 자료에 입각한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나아가 영화, 연극, 문학작품, 드라마 등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한류를 확산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여섯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의 궤적을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로 기록하고 무형 문화로서의 우리말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자료들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 자료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 3) 제언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① 조사 일반

이번 사업의 조사 지점(9개)은 대체로 통합 대도시(수원·화성, 원주, 충주, 공주, 익산, 광주·광산, 안동, 울산·울주, 서귀포)였는바 여러 언어 변종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해당 대도시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전통적 생활권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달리 선정·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토박이 조건을 준수하여 조사했다 하여도 선택된 제보자가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 항목을 500개로 한정하여 질문지를 만들고 실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더 조사했으면 하는 항목들이 발견된다.

첫째, 기존의 전통어 중심의 지역어 조사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언어생태 환경(사어화 포함)을 연구할 수 있도록 ‘아궁이, 사례’ 등 다소 보수적인 어휘를 어느 정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대별 차이를 확연히 보일 만한 단어, 예를 들어 ‘진지, 약주’ 등과 같은 공손어, ‘알레르기, 원룸’ 등 70대가 이해할 수 있는 외래 어휘 등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리가) 가늘다/얇다, (한턱) 내다/쏘다, (오줌) 누다/싸다’ 등과 같은 의미 분화 관련 어휘들을 조사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 ② 구술발화

이번 조사 지점이 대도시였던 까닭에 특히 구술발화 속에 나타나는 제보자들의 생활 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므로 이 또한 전통적 생활권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달리 선정·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③ 어휘·표현

인지도/사용도는 언어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일정 수 이상의 제보자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휘·표현 항목에 대한 인지도/사용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보자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어휘·표현 항목에서는 50대 이상의 여성 제보자와 남성 제보자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정말 그러한지 또 이들이 운소 측면에서도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연차적으로 더 많은 제보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운소 측면의 전사를 다시 도입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 ④ 결과물의 활용

이번 조사에서는 20대가 사용하는 언어에 주목하였는데 그 결과, 20대의 언어에서는 많은 항목들이 표준어화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은 표준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이며 주체적인 언어문화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20대뿐 아니라 세대 전반에 걸쳐 남편 호칭, 아내 지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언어 예절에 대한 다양성 및 혼란상이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규범의 실제 적용 및 변형의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심층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곽충구(2007), 방언의 사전적 수용,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 김덕호(2006), 연령별 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김덕호(2009), 《지리언어학의 동향과 활용》, 역락.
- 박경래(2012), 국어사전과 방언의 수용,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신우봉(2015),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
- 이기갑(2010),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 《새국어생활》 20-3, 국립국어원.
- 이상신(2020),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 임석규(2021), 《국어 음운론의 기초》, 역락.
- 임석규(2022), 《국어 성조의 이해》, 역락.
-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사.
- 정승철(2022),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 정인호(2011), 의문형 종결어미의 방언 분화, 《방언학》 14, 한국방언학회.
- 정인호(2022), ‘하-’ 관련 어형들의 방언사, 《방언학》 36, 한국방언학회.
-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편(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Chambers, J.K. & P.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 국립국어원,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 [붙임 1]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 1. 조사 지침

#### ※ 제보자 선정 기준

- ① 토박이 조건: 연령별 제보자 모두 **3대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어머니는 가급적 동일 지역 출신이어야 하나, 동일 방언권도 허용한다. 예) 영동/영서, 경북/경남
- ② 학력 조건: ■ 70대(가급적 국민학교 이하) ■ 50대(고등학교 이하) ■ 20대(대학교 이하)  
cf. 이주 경험: 군대 경력은 고려하지 않으나, 다른 대방언권에서 대학 다닌 경우는 배제.  
  
cf. 제보자 요건이 충족되면 한 가족(또는 친척) 내에서의 세대별 조사도 가능하다.

#### ※ 조사 시 주의 사항(어휘·표현 / 구술발화 공통)

- ① 질문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조사항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한 후 제보자의 여건이나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변용한다. cf. 동질감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해당 지방의 ‘어미(-응게 등)’도 활용/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방언형도 메모, 숙지.
- ②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어휘·표현이나 구술발화의 경우에는 제보자가 응답이 끝난 후 적당한 휴지를 확보한다.
- ③ 어휘·표현 조사보다 구술발화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형적 어형 출현 기대). 어미의 형태가 어휘 조사와 다를 경우, 구술발화에서 확인한 어미가 우선된다.

### <I> 어휘·표현 조사 지침

#### 1.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 (1)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책』 또는 그림 파일을 활용한다.
- (2) 질문지에 조사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곡용형과 활용형의 기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 질문지에 제시된 조사나 어미는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기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조사나 어미로 대체할 수 있다. 예) 받은 → 받을

#### 2. <인지도/사용도>에 대한 조사

- (1) <인지도/사용도>의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란에 ○이나 √ 표시를 한다.



- ① 사용 -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음
- ② 이해 - 써본 적은 있으나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음
- ③ 인지 - 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음
- ④ 무지 - 써본 적도 없는 처음 들어보는 말임

cf. 조사 시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가급적 ‘인지’로 처리한다. 또한 제보자의 첫 번째 응답형은 <인지도/사용도>를 조사하지 않고 ‘① 사용’으로 처리한다.

- (2) 선택식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한 방언형들을 순서에 따라 기록하며, 응답한 방언형들의 순서에 따라 <인지도/사용도>를 순서대로 조사하여 표시한다. [주의]에 있듯이 제시되지 않은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새로운 방언형을 기록한 후 인지도를 조사한다.
- (3) 해당 세대나 지역에서 전형적인 방언형이 있음에도 표준어형으로만 응답할 경우,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세대나 지역의 방언형에 대한 <인지도/사용도>를 확인한다.

### 3. 어휘·표현 조사의 유의점

####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① ‘에 / 애’의 변별 여부(예: 떼/때, 세-/새- 등)    ② ‘으 / 어’의 변별 여부 (예: 글/걸, 들어/털어 등)
- ③ ‘위, 외’의 발음 (예: 쥐, 외가 등)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예: 산+이, 강+이 등)

(2) 자료 정리 시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당 지역의 자연스럽고 전형적인 방언형이 나올 수 있게끔 응답을 유도한다.

걸음마<sup>ㄱ</sup>(x)                    귀#고리(x)                    분#리#수#거(x)

(3) 어간 재구조화나 여러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기저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저형을 확인해야 한다. 곡용형과 활용형을 능숙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배터, 배튼다 → ‘뱃다/뱃튼다’ - 기저형 확인 불가  
 겨드랑이, 테기(턱+이) → ‘겨드랑/겨드랑이, 턱/턱/테기’ - 기저형 확인 불가

## <II> 구술발화 조사 지침

- 1.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질문문 숙지, 관련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지역 유래, 특산품 등).
- 2. 구술발화 조사의 유의점
  - (1)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자와 제보자 간에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한다.
  - (2) 제보자의 발화를 가장 많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 (3)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Ⅲ> 녹음기 사용법

1. 녹음을 미리 해 보고 녹음이 잘되는 방법을 터득해 두도록 한다.
2. 다음 절차에 따라 현지에서 녹음을 진행한다.

#### (1) 녹음 환경

- ① 양질의 음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조사 시 소음을 최소화한다. 특히 휴대 전화 사용을 통제한다.
- ② 질문과 응답이 겹치지 않도록(조사자가 제보자의 말에 동조하는 “예, 예 맞습니다.” 등을 통제한다.
- ③ 말소리 이외의 기타 소음(매미 소리, 바람 소리 등)이 녹음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 ④ 질문 이후에 약간의 휴지(200ms 이상)를 두고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준다.

#### (2) 녹음 전 준비

- ① 음성 녹음 기자재는 TASCAM DR-05X로 한다.
- ② 녹음기 준비물 확인: 녹음기, 메모리카드, 카드리더기
- ③ 녹음기(후면)에 배터리 삽입: AA 2개
- ④ 녹음기(우측)에 SD카드 삽입
- ⑤ 전원 켜기
- ⑥ 언어 선택(한국어)
- ⑦ 녹음 설정 확인

형식: WAV 16bit
샘플: 44.1K
채널: 스테레오→모노
크기: 2G
MIC 전원: 켜기
로우컷: 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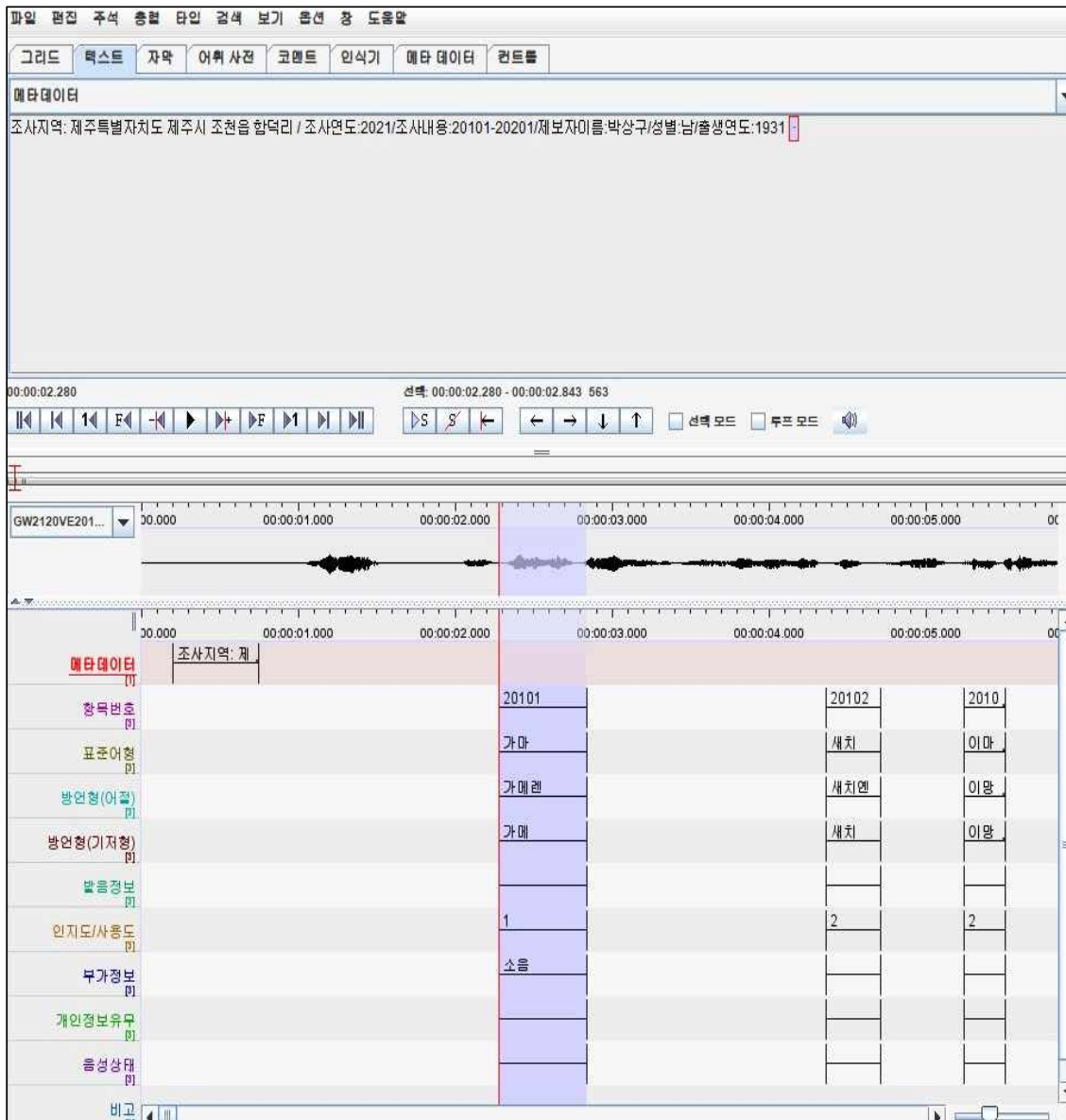
#### (3) 녹음기 사용

- ① 전원을 켜 상태에서 REC 버튼을 누른다: 녹음기 용량을 확인한다.
- ②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제보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입력 볼륨을 조절한다(PEAK 표시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한다).
- ③ ▶(PLAY)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실시한다(REC 표시를 확인하며, 녹음을 잠깐 멈추고 싶을 경우에는 ▶(Play)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PLAY) 버튼을 누른다).
- ④ 녹음 중인 소리를 점검하려면 이어폰을 녹음기 왼쪽 측면의 헤드폰 단자에 연결한다.
- ⑤ 녹음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HOME) 버튼을 누른다.

## 2. 전사 지침

### < I > 어휘·표현 기저형 표기 지침

#### 1. ‘엘란’ 작업 지침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어휘·표현)

- (1) 메타데이터 : ‘조사지역, 조사연도, 조사내용, 주제보자이름, 주제보자성별, 주제보자출생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2) 방언형(어절)

① 해당 어절을 형태음소 전사한다.

② 친족 명칭 등에서 개인정보(인명)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ㅇ’(알파벳 소문자)로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유무’란에 ‘유’라고 적는다.

(3) 방언형(기저형)

① 해당 방언형(어절)의 어간 기저형을 표기한다.

② 친족 명칭 등에서 개인정보(인명)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ㅇ’(알파벳 소문자)로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유무’란에 ‘유’라고 적는다.

(4) 발음정보 : ‘방언형(기저형)’의 발음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그 발음을 적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특정 방언형(기저형)의 발음이 ‘공통 발음정보’(3쪽의 (3)항)와 다른 경우

예 해당 제보자의 경우에 공통 발음정보에서 비모음화가 실현된다고 했는데 특정 ‘방언형(기저형)’에서 비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비모음화 비실현’이라 적는다.

② ‘공통 발음정보’의 사항 이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른 경우

예 일부 경상도 방언의 ‘새, 세다’는 ‘발음정보’란에 각각 ‘새, 세다’를 적는다.

③ 기타 특기할 만한 경우

예 전라도 방언의 ‘장닥(수탉)’은 ‘발음정보’란에 ‘장닥/장딱’을 적는다.

(5) 인지도/사용도 : 해당 번호를 적는다.

(6) 부가정보

① 발음정보 이외(문법, 의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내용만 입력하고 ‘+ , - , ( )’ 등의 어떠한 기호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 개인정보유무 :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라고 적는다.

(8) 음성상태 : 음성 상태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을 적는다.

(9) 비고 : ‘방언형(기저형)’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 ‘기저형 설정 불가’를 적거나, 기타 기저형 표기와 관련해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는다.

## 2. 표기 원칙

(1) 기저형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용언의 경우는 어미 ‘-다’의 결합형을 적는다.

예 안저, 안저고 ⇒ 안저다 || 건저, 건저고 ⇒ 건지다

뽕꺼, 뽕끄고 ⇒ 뽕끄다 || 찡허, 찡흥고 ⇒ 찡흥다

**【붙임】** 표준어의 ‘지, 치, 찌’ 발음이 ‘저, 처, 찌’로 대응되는 어간은 소리대로 적는다. ‘저, 처, 찌’로 적지 않음에 유의하도록 한다.

예 건저, 건저고 ⇒ 건저다 || 다쳐, 다쳐고 ⇒ 다쳐다 || 찌서, 찌고 ⇒ 찌다

② 체언을 비롯한 나머지 단어의 경우는 조사를 배제한 단독형을 적는다.

예 꽃을, 꽃도 ⇒ 꽃 || 부역을, 부역도 ⇒ 부역 || 돌클, 돌크도 ⇒ 돌크

빨리도 ⇒ 빨리

③ 구절이나 문장 표현은 표준어형의 구조에 맞추어 적는다.

(2) 의미와 형태면에서 방언형이 표준어형에 정확히 대응하는 경우에만 ‘방언형(기저형)’을 적는다.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방언형(기저형)’란을 비워 두고 ‘비고’란에 ‘기저형 설정 불가’를 적는다.

①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품사가 다른 경우

예 표준어형(명사) / 방언형(동사): 도배 / 벽보른다

②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문법 단위 크기가 다른 경우

예 표준어형(단어) / 방언형(구): 길들이다 / 질을 들이다

(3) 다음의 공통 발음정보는 <제보자 조사표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에서 따로 제공한다.

① ‘에 / 애’의 변별 여부

② ‘으 / 어’의 변별 여부

③ ‘위, 외’의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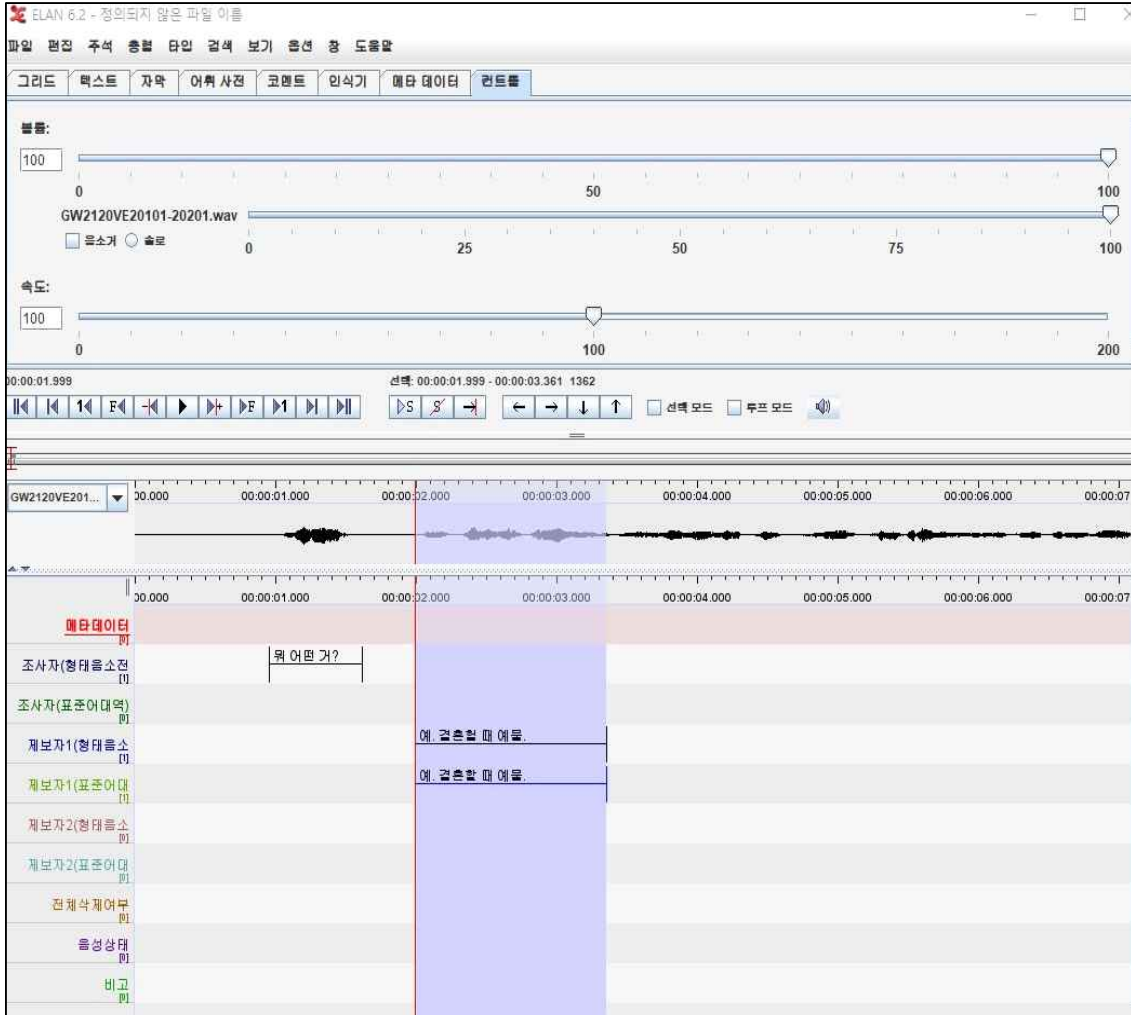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붙임】** 위 사항 이외의 발음정보는 각 항목의 ‘발음정보’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4) 표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Ⅱ. 구술발화 표기 지침(2. 표기 원칙)≫에 따른다.

## <II> 구술발화 표기 지침

### 1. ‘엘란’ 작업 지침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구술발화)

(1) 메타데이터 : ‘조사지역, 조사연도, 조사내용, 주제보자 이름, 주제보자 성별, 주제보자 출생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2) 조사자·제보자(형태음소전사)

① <2. 표기 원칙>에 따라 조사자와 제보자의 해당 파일을 형태음소전사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둔다. 다만 빈칸으로 인한 녹음 분량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체를 비식별화해야 하는 경우

㉡ 전체적으로 음성상태가 불량하여 전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붙임1】** ‘형태음소전사’란이 빈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삭제여부’란에 ‘삭제’를 적거나 ‘음성

상태'란에 '불량'을 적도록 한다.

【붙임2】 개인정보 비식별화 : 개인정보 여부는 전사자의 판단에 따르고 비식별화한 경우에는 음성파일의 해당 부분을 반드시 묵음 처리하도록 한다.

㉠ 전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태음소 전사를 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해당 문장을 제외한 앞뒤 2문장(총 5문장) 사이에 제시된 내용에서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두 정보를 조합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부분적인 개인정보는 해당 부분 앞과 뒤에 '&'를 붙여서 적는다.

㉢ 인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각각 '&인명&', '&상호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비식별화한다.

예) 어제 홍길동이 왔는데 ⇒ 어제 &인명&이 왔는데

㉣ 파일 내에 여러 인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인명1&', '&인명2&', '&인명3&', ...'과 같이 구별하며 나머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 상호명은 부정적인 경우에만 비식별화한다.

㉥ 정치적 비판, 특정 집단(장애인 등) 비하, 특정인 비난 등의 내용도 비식별화한다.

【붙임3】 부분적으로 음성상태가 좋지 않아 전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표준어 대역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음절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x'(알파벳 소문자) 표시를 하고 해당 어절의 처음과 끝에 '(( ))'(겹괄호)를 붙인다. 예) ((xxx해야)) 되겠더라

㉡ 음절수조차 헤아리기 힘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겹괄호)만을 적는다.

【붙임4】 비속어는 해당 단어의 앞과 뒤에 '@'를 붙여서 비식별화하고 음성파일의 해당 부분을 반드시 묵음 처리하도록 한다. 예) @개새끼@라고

(3) 조사자·제보자(표준어대역) : 표준어로 직역하여 적는다.

(4) 전체삭제여부 :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형태음소전사'란이 빈칸인 경우에만 '삭제'를 적고 그 밖에는 빈칸으로 둔다.

(5) 음성상태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음성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불량'을 적고 그 밖에는 빈칸으로 둔다.

(6) 비고 : 기타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는다.

【참고】 《I. 기저형 표기 지침》과 동일하게 다음의 공통 발음정보는 <제보자 조사표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에서 따로 제공한다.

① '에 / 애'의 변별 여부

② '으 / 어'의 변별 여부

③ '위, 외'의 발음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 2. 표기 원칙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i]’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i:ŋgam](영감) ⇒ 이응감

② ‘[jö]’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ö] ⇒ 이외

③ 상향이중모음 [ɥ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또는 ‘피아’로, [ɥə]는 ‘ㅍ어’ 또는 ‘기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ɥa](물류아) ⇒ 물류아    ||    [tɥa:](되아) ⇒ 되아

[əllɥə](얼류어) ⇒ 얼류어    ||    [t'ɥə:](뛰어) ⇒ 뛰어

**【예외】** 제주방언의 ‘으(아래아), 으(쌍아래아)’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데 <한글>에서 타이핑한 후에 <엘란>에 복사하도록 한다.

예 불바(뵤아) ⇒ 뵤다    ||    으뵤(여뵤) ⇒ 으뵤

④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이에 대한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예 [ãi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ĩi](술개) ⇒ 술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표준어에 있는 자음군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고 표준어에 없는 자음군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조사나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단독형 포함),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는다.

② 단독형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뒷자음을 따로 적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뒷자음을 후행음절의 초성자로 적는다.

㉠ 체언의 경우

예 {달ㄱ}({달}): 달ㄱ만(-만), 달ㄱ도(-도), 달ㄱ(-이), 달ㄱ(-을)

{지붕ㄱ}({지붕}): 지붕ㄱ만(-만), 지붕ㄱ도(-도), 지붕ㄱ(-이), 지붕ㄱ(-을)

㉡ 용언의 경우

예 {몽ㄱ}({몽}): 몽ㄱ는(-는), 몽ㄱ고(-고), 몽ㄱ(-어), 몽ㄱ(-은)

{양ㄱ}({양}): 양ㄱ는(-는), 양ㄱ고(-고), 양ㄱ(-어), 양ㄱ(-은)

{삼ㄱ}({삼}): 삼ㄱ는(-는), 삼ㄱ고(-고), 삼ㄱ(-어), 삼ㄱ(-은)



{짱ㅎ-}(짱-): 짱ㅎ는(-는), 짱ㅎ고(-고), 짱ㅎ어(-어), 짱ㅎ은(-은)

{음쓰-}(읏-): 음쓰는(-는), 음쓰고(-고), 음쓰어(-어)

【예외】 ‘ㅎ’은 후행하는 어미에 상관 없이 ‘ㄹㅎ’으로 적는다.

예 {꺠-}(꺠-): 꺠는(-는), 꺠고(-고), 꺠어(-어), 꺠은(-은)

### (3) ‘위, 외’ 표기

① 표준어의 ‘위’에 대응하는 [ü], [wi]는 모두 ‘위’로 전사하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다만 하향이중모음 [uj]는 ‘우이’로 적는다.

예 귀(耳): [kü]/[kwi] ⇒ 귀 || [kuj] ⇒ 구이

② 표준어의 ‘외’에 대응하는 [ö], [we], [we], [wE]는 모두 ‘외’로 적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다만 하향이중모음 [oj]는 ‘오이’로 적는다.

예 외가(外家): [öga]/[wega]/[wEga]/[wEga] ⇒ 외가 || [ojga] ⇒ 오이가

### (4) ‘의’ 표기

①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i]로 발음될 때는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의’ 또는 ‘이’로 적는다.

예 [힌떡](힌떡) ⇒ 힌떡 || [무니](무니) ⇒ 무니 || [떠운다](떠운다) ⇒ 띄운다

예 [모디](마디) ⇒ 모디 || [아니](아니) ⇒ 아니 || [버틴다](버티다) ⇒ 버틴다

②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i]로 발음될 때는 발음대로 적는다.

예 [흔떡](힌떡) ⇒ 흔떡

③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하향이중모음 [ij]로 발음될 때는 ‘으이’로 적는다.

예 [kij](게) ⇒ 그이 || [mundij](문둥이) ⇒ 문드이

④ 선행자음이 없는 ‘의’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ijsa](의사) ⇒ 의사 || [isa](의사) ⇒ 이사 || [isa](의사) ⇒ 으사

⑤ 속격조사 ‘의’도 소리대로 적는다.

예 [naij] ⇒ 나의 || [nae] ⇒ 나에 || [nai] ⇒ 나으 || [nai] ⇒ 나이

【예외】 속격조사 ‘의’가 모음 어간 뒤에서 [예]로 소리가 나더라도 ‘에’로 적는다.

예 [우리예](우리의) ⇒ 우리에 || [뇌예](뇌의) ⇒ 뇌에

【붙임】 제(1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속격조사 ‘의’의 원순모음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예 [나무 집](남의 집) ⇒ 남으 집

### (5) 기타 이중모음 표기

① 하향이중모음 [aj, əj]는 각각 ‘아이, 어이’로 적는다.

예 [sajni](상-이) ⇒ 사잉이 || [səjni](성-이) ⇒ 서잉이

② 비모음화 후에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ij](<[i])는 ‘이이’가 아닌 ‘이’로 적는다.

예 [mundij](<[mundi], 문둥이) ⇒ 문디 || [hadijman](하-더니만) ⇒ 하디만

【예외】 제(13)항의 【예외2, 3,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이’를 적는다.

예 [hɛs'ij](했으니) ⇒ 했이이 || [f'ɪdʒɪk'ene](짓으니까) ⇒ 짓이이깨네  
[tarij](<[tarɪ], 다른#이) ⇒ 다리아 || [mijnda](먹인다) ⇒ 미인다

③ 표준어의 ‘ㄷ’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kjeran](계란) ⇒ 계란 || [keran] ⇒ 케란

④ ‘ㅅ, ㅆ’ 뒤의 ‘ㄷ[jɛ], ㅈ[jɛ]’는 각각 ‘ㄷ, ㅈ’로 적는다.

예 [ʃ'jɛda](세다) ⇒ 세다 || [ʃjɛ](새) ⇒ 새

(6) 모음의 대립이 상실된 경우(㉠ 경상·전라 방언의 [E]('에'와 '애'의 비변별), ㉡ 경상 방언의 [ɔ]('으'와 '어'의 비변별)는 다음과 같이 적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① 대응 표준어가 있는 방언형은 표준어에 따라서 적는다.

예 [tʰE](輪) ⇒ 테 || [tʰE](胎) ⇒ 태  
[kɔɪ](書) ⇒ 글 || [kɔɪ](옷) ⇒ 걸

② 대응 표준어가 ‘여’이거나 음라우트의 피동화음이 ‘어, 오’인 경우에는 ‘에’로, ‘야’이거나 음라우트의 피동화음이 ‘아’인 경우에는 ‘애’로 적는다.

예 [pE](벼) ⇒ 베 || [Emi](어미) ⇒ 에미 || [kEgi](고기) ⇒ 게기  
[p'Em](뺨) ⇒ 뺨 || [Ebi](아버) ⇒ 애비

③ 한 단어 안에서는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적는다.

예 [homEpi](호미) ⇒ 호맹이

④ 대응 표준어가 없고 어원이 불확실한 경우, ‘[E]’는 ‘에’로, ‘[ɔ]’는 ‘어’로 적는다.

예 [kEgotʰEpi](자치기) ⇒ 게고탱이

【붙임】 표준어 ‘-으니까’의 ‘까’에 대응하는 모음 ‘[E]’는 ‘-으니까, -으니까, -으니까, -으니까, -으니까’ 등과 같이 ‘애’로 적는다.

(7) 경음

① 형태소 내부의 경음 표기는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예 [ʃɔkɪm](조금) ⇒ 쪄끔 || [kɔkɔkɔkɔ](깜빡) ⇒ 깜빡  
예 [kɔkɔkɔkɔ] ⇒ 국장이 || [kɔkɔkɔkɔ] ⇒ 흑찌

【붙임】 한자어의 경우에 대응 표준어의 평음이 경음으로 발음되면 경음으로 적는다.

예 [kɔkɔkɔkɔ](지금) ⇒ 지끔 || [kɔkɔkɔkɔ](간따나다) ⇒ 간뺨하다

② 체언어간말 유음·비음 뒤에서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malɔkɔ](말-도) ⇒ 말도 || [donɔkɔ](돈-도) ⇒ 돈도

(8) 한자어·외래어·숫자

① 한자어에서 ‘ㄴㄴ’이 ‘ㄹㄹ’로 실현되는 경우 ‘ㄹㄴ’으로 적는다.

예 [열련](年年) ⇒ 열년   ||   [솔려](孫女) ⇒ 솔녀

② 한자어에서 앞음절 종성 ‘ㅇ, ㄹ’이 ‘ㄴ’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분철하여 ‘ㄴ’으로 적는다.

예 [과냥](광양) ⇒ 관양   ||   [지녁](징역) ⇒ 진역  
[다님](담임) ⇒ 단임   ||   [치닙](침입) ⇒ 친입

③ 한자어에서의 ‘ㄴ’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함냥, 전녁, 공똥, 탈령] ⇒ 함양, 전역, 공용, 탈영

④ 한자어에서 ‘ㄴ’과 ‘ㄹ’ 뒤의 ‘ㅎ’이 규칙적으로 각각 ‘ㄴ’과 ‘ㄹ’로 바뀌는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ㅎ’을 그대로 표기한다.

예 [은냉, 전나, 올래, 발련] ⇒ 은행, 전하, 올해, 발현

⑤ 외래어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원눔](원룸) ⇒ 원눔   ||   [월룸] ⇒ 월룸

⑥ 아라비아숫자는 적지 않도록 한다.

예 [두개](두 개) ⇒ 두 개(○)   ||   [두개] ⇒ 2개(×)

(9) 움라우트

① 움라우트는 표기에 반영하되 형태소 경계가 있으면 분철한다.

예 [두루매기](두루마기) ⇒ 두루매기   ||   [에미](어미) ⇒ 에미  
[배비](뱀-이) ⇒ 뱀이   ||   [히미](흙-이) ⇒ 흙이  
[짜짜기](짜짜이) ⇒ 짜짜이   ||   [채미](참외) ⇒ 챔이

② 움라우트 이후에 모음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대로 적는다.

예 [비비](<베비, 법-이) ⇒ 뱀이   ||   [게기](<괴기, 고기) ⇒ 게기  
[킹이](<깡이<깡이, 쿡-이) ⇒ 킹이   ||   [지긴다](<쥐기다, 죽이다) ⇒ 직인다

③ 기타 변화(조음위치동화, 자음군단순화, ㅎ탈락 등)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닝긴다](넙기다) ⇒ 님긴다   ||   [앵긴다](웁기다) ⇒ 앹긴다  
[농인다](농이다) ⇒ 뇨인다

(10) 구개음화

① 주격조사 ‘이’,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할 때 어간 말음이 ‘ㅈ’으로 실현되면 이는 조사 ‘을, 은’이 결합할 때의 곡용형을 고려하여 ‘ㅌ’ 또는 ‘ㅊ’으로 적는다.

예 [바치, 바틀, 바튼] ⇒ 밧이, 밧을, 밧은

예 [바치, 바츨, 바츨] ⇒ 밧이, 밧을, 밧은

② 표준어의 ‘뭉히-어, 단히-어’ 등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무체, 다체]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뭉혜, 단혜’와 같이 적는다.

(11) 형태소 경계에서, 전설모음화(으>이)는 표기에 반영하되 원순모음화(으>우)나 조음위치 동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전설모음화 : [안진](坐) ⇒ 앉은(×)/앉인(○)

예 원순모음화 : [자분](捕) ⇒ 잡은(○)/잡운(×)

예 조음위치동화 : [창꽃] ⇒ 참꽃(○)/창꽃(×)

【붙임】 형태소 내부에서는 음운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소리대로 적는다.

예 전설모음화 : [아지고, 아지만](坐) ⇒ 아지고, 아지만 ★ 어간형태소: 아지-

원순모음화 : [노푸고, 노푸먼](高) ⇒ 노푸고, 노푸먼 ★ 어간형태소: 노푸-

조음위치동화 : [송구고, 송귀](植) ⇒ 송구고, 송귀 ★ 어간형태소: 송구-

(12) 음의 첨가

① 용언 어간말에 ‘-, ㅌ, ㄹ’가 첨가되어 어간이 바뀐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보끄지](볶-지) ⇒ 보끄지(○)/볶으지(×)

[더푸지](덜-지) ⇒ 더푸지(○)/덜우지(×)/덜으지(×)

[언지고](엷-고) ⇒ 언지고(○)/엷이고(×)/엷으고(×)

② 한 단어 안에서 음이 첨가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하마트면/함마트면](하마터면) ⇒ 하마트면/함마트면

③ 발화의 휴지(pause)로 인해 선행 발화의 끝에 자음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이 자음을 적지 않는다.

예 [명입 핏니다] ⇒ 명이 핏니다

[이런 두르기도 하고] ⇒ 이리 두르기도 하고

(13) 운율적 요소(음장, 성조 등)를 표시하는 ‘:’, ‘’ 등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동일 모음의 반복 표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 눈: ⇒ 눈 || 찌::그 ⇒ 찌그

예 마알 ⇒ 말 || 마알 ⇒ 말 || 마'알 ⇒ 말 || 마알 ⇒ 말

【붙임】 표준어의 ‘그을음’과 같은 방언형도 ‘글음’과 같이 적는다.

【예외1】 체언어간에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말 자음의 탈락으로 인해 동일모음이 생성된 경우에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kusəə](구석-에) ⇒ 구서어 || [iʃ'aa](이쪽-에) ⇒ 이짜아

[paa](방-에) ⇒ 바아 || [tʰoo](통-에) ⇒ 토오

【예외2】 [비음성]이 탈락한 어미 ‘-으이’(<-으니)류가 ‘ㅅ, ㅆ, ㅈ, ㅊ’ 어간말음 뒤에서 ‘-이이’로 전설모음화한 경우에는 ‘이이’로 반복 표기를 한다.

예 [həs'ij](했으니) ⇒ 했이이 || [ʃ'idsjik'ene](찢으니까) ⇒ 찢이이깨네

【예외3】 합성어에서도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tarij](<[tarɪ], 다른#이) ⇒ 다리이 || [kanij](가는#이) ⇒ 가니이

【예외4】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의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미이다](떡이다) ⇒ 미이다

(14) 어간말 자음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준해서 적는다.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때의 자음을 반영하여 적는다.

예 [바치, 바츨, 바츨, 받또, 반만](밭) ⇒ 밧이, 밧을, 밧은, 밧도, 밧만

[바시, 바슬, 바순, 받또, 반만](밭) ⇒ 밧이, 밧을, 밧은, 밧도, 밧만

【붙임】 특정 조사(주로 ‘에, 으로’ 앞에서)나 어미에 따라 어간 말음이 다르게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음을 그대로 적는다.

예 [바치, 바츨, 바츨, 바테, 바트로] ⇒ 밧이, 밧을, 밧은, 밭에, 밭으로

(15) 체언어간과 조사가 결합하여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① 주격조사

예 [칠기가, 칠기를, 칠기에](칩) ⇒ 칠기가, 칠기를, 칠기에

참 [칠기, 칠글, 칠게] ⇒ 칩이, 칩을, 칩에

② 처격조사

예 [미테가, 미테를, 미테로, 미테](밧) ⇒ 미테가, 미테를, 미테로, 미테

[유제싸람(이웃사람), 유제간(이웃간)] ⇒ 유젯사람, 유제간

참 [미치, 미틀, 미트로, 미테] ⇒ 밧이, 밧을, 밧으로, 밧에

③ 속격조사

예 [달그똥/달기똥](닭똥) ⇒ 달그똥/달기똥 || [달구장태](닭장) ⇒ 달구장태

[치나무덕](치남대) ⇒ 치나무덕

④ 호격조사

예 [히야가, 히야를](형) ⇒ 히야가, 히야를

(16) 역사적으로 ‘ㅎ’중성과 관련된 체언 어간말에 ‘ㄱ’이 실현되면 해당 공용형에만 한정하여 어간말 받침으로 ‘ㄱ’을 적는다.

예 [우아래, 우게, 우그로](위) ⇒ 우아래, 옥에, 옥으로

예 [가실, 가실도, 가실게](가을) ⇒ 가실, 가실도, 가쉬에

예 [돌, 돌도, 돌게](돌) ⇒ 돌, 돌도, 뉘에

(17) 불규칙 활용

① 표준어의 ‘ㅅ’불규칙 용언과 동일한 활용을 하는 용언은 표기도 동일하게 한다.

예 [구꼬, 굶는다, 구어](炙) ⇒ 굶고, 굶는다, 구어

[바꾸꼬, 바꾼는다, 바까도](換) ⇒ 바꿨고, 바꿨는다, 바까도

**【붙임】** 표준어의 불규칙 용언이 ‘ㅎ’말음 용언으로 바뀐 경우에는 ‘ㅎ’을 적는다.

예 [누코, 눈는다, 누어](馱) ⇒ 놓고, 놓는다, 놓어

② 불규칙 활용형에 음절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운율적 요소를 배제하여 축약된 대로 적되 동일모음 반복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군: 고기](←굽-은 고기) ⇒ 군 고기   ||   [춘: 날](←춥-은 날) ⇒ 춘 날

[구'우라](←굽-어라) ⇒ 구라   ||   [누'우](←눅-어) ⇒ 누

[췌:](←씻-어) ⇒ 췌   ||   [저:](←짓-어) ⇒ 저

[무'운](←묵-은) ⇒ 문   ||   [무'우라](←묵-어라) ⇒ 무라

**【예외】**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접미사를 드러내 표기하며 동일모음 반복 표기도 허용한다.

예 [미'이다](떡이다) ⇒ 미이다

③ 나머지 불규칙 활용형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는다.

### (18) 음절 축약

① ‘ㅎ’말음 용언에 음절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노:면](←놓-으면) ⇒ 노면   ||   [중:깨](←중-응깨) ⇒ 중깨

[난:](←냥-은) ⇒ 난   ||   [연:](←영-은) ⇒ 연

[나:라](←놓-아라) ⇒ 나라   ||   [뉘:](←놓-어) ⇒ 뉘

**【예외】** ‘ㅎ’말음 어간말 모음이 ‘ㄱ, ㄷ’이고 어미가 ‘-아/어X’인 경우에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나:](←냥-아) ⇒ 냥아   ||   [여:라](←영-어라) ⇒ 영어라

**【붙임】** 음절 축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간말에 ‘ㅎ’을 적는다.

예 [조아](←중-아) ⇒ 좋아   ||   [고아라](←공-아라) ⇒ 공아라

② 활음화, 활음탈락, 단모음화는 모두 표기에 반영하여 소리대로 적는다.

예 [쏘도](←쑤-어도) ⇒ 쏘도   ||   [전자:도](←전주-아도) ⇒ 전자도

③ ‘이-어 → 이’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이이’가 아닌 ‘이’로 적는다.

예 [비비서](←비비-어서) ⇒ 비비서   ||   [돌리](←돌리-어) ⇒ 돌리

④ 발화 속도와 관련된 음절 축약의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금](그림) ⇒ 금   ||   [그랜데](그랬는데) ⇒ 그랜데

[그랩다](그룹니다) ⇒ 그랩다

### (19) ‘하다’ 관련

① 기본형이 ‘X하/허다’인 경우에는 ‘-어/아’가 결합할 때 방언 활용형에 따라 ‘X해, X혀, X하, X히’ 등으로 적는다.

예 ‘만허다’(多): [만허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 만허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점잔하다’(점잖-): [점잔하고, 점잔해/점잔하] ⇒ 점잔하고, 점잔해/점잔하

【붙임】 음성적으로 ‘ㅎ’이 탈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는다.

예 [마녀고, 마내서/마녀서/마니서] ⇒ 만혀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② ‘ㅎ’이 기본형의 어간말음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방언 활용형에 따라 ‘Xㅎ아, Xㅎ애, Xㅎ야, Xㅎ여, Xㅎ이’로 적는다.

예 ‘많다’: [만코, 마나/마내/마녀] ⇒ 많고, 많아/많애/많여

‘점잖다’: [점잔코, 점자나/점자내/점자냐] ⇒ 점잖고, 점잖아/점잖애/점잖야

③ ‘ㅎ’말음 어간이 활용 패러다임에서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아무케나](아무렇게나) ⇒ 아무케나   ||   [이케/이키](이렇게) ⇒ 이케/이키

[이쿠저쿠](이렇게저렇게) ⇒ 이쿠저쿠

(20) 복합어

①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형태 차이가 음운론적(조음위치동화, 단모음화, ㅎ탈락 등)으로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언형을 표준어형에 준해서 적는다.

예 [자정거](자전거) ⇒ 자전거

예 [성누](석류) ⇒ 석류   ||   [게론](결혼) ⇒ 결혼

② 방언형의 일부 구성요소가 자립적으로 쓰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표준어와 구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표준어형에 준해서 적는다.

예 [송꼬락](손가락) ⇒ 손가락

③ 방언형의 원어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준어 원어에 준하여 적는다.

예 [시경](거울, 원어: 석경) ⇒ 석경

④ 방언형의 음운변화로 인해 분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비랑빡](벽) ⇒ 비랑빡   ||   [비찌락](빗자루) ⇒ 비찌락

(21) 복합어가 줄어든 경우에는 준 대로 적되 형태음소적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드로지](들어오-지) ⇒ 들오지   ||   [일라지](일어나-지) ⇒ 일나지

[끄란찌](끌어안-지) ⇒ 끌안지   ||   [드란찌](들어앉-지) ⇒ 들앉지

[가조지](가져오-지) ⇒ 갖오지   ||   [드가지](들어가-지) ⇒ 드가지

【붙임】 색채 / 모양형용사류의 경우에도 ‘-하다/허다’의 분석이 가능할 때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노러다](노랗다) ⇒ 놀허다   ||   [빨가다](빨갳다) ⇒ 빨허다

[퍼러너다](파랗다) ⇒ 퍼런허다   ||   [시커머다](시커멓다) ⇒ 시کم허다

[크다너다] ⇒ 크단허다   ||   [똥글똥그러다] ⇒ 똥글똥글허다

(22) 사이시옷 표기

①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복합어의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때에 뒷단

어의 두음이 해당 방언에서 경음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 [한새깡이](해당방언에서 ‘깡이’가 {깡이}인 경우) ⇒ 한새깡이

[한새깡이](해당방언에서 ‘깡이’가 {깡이}인 경우) ⇒ 한새깡이

② 복합어의 앞단어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이때에도 역시 뒷단어의 두음이 해당 방언에서 경음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 [꼭깡이, 콩깡이](해당방언에서 ‘깡이’가 {깡이}인 경우) ⇒ 꼭깡이, 콩깡이

[목깡이, 콩깡이](해당방언에서 ‘깡이’가 {깡이}인 경우) ⇒ 목깡이, 콩깡이

③ 표준어의 구가 복합어로서 기능하면서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영어씨간](영어 시간) ⇒ 영엇시간 || [경주깡](경주 깡) ⇒ 경जू깡

【붙임】 이때에 표준어 대역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띄어쓰기를 한다.

예 영엇시간 ➡ 영어 시간 || 경जू깡 ➡ 경주 깡

④ ‘-님’이 결합한 경우의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 선행요소가 독립된 단어이면서 [ㄴ]이 덧날 때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부몬님, 장몬님] ⇒ 부뫼님, 장뫼님

【예외】 선행요소의 말이음 ‘ㄹ’일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의거하여 ‘ㄷ’을 적는다.

예 [아든님] ⇒ 아든님

㉡ 선행요소가 독립된 단어가 아니면서 [ㄴ]이 덧날 때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어면님, 아변님, 아주변님] ⇒ 어면님, 아변님, 아주변님

【붙임】 [ㄴ]이 덧나지 않을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부모님,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 부모님,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23) 문장 부호 사용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고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의 표기를 따른다. 그리고 형태음소 전사와 표준어 대역의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는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기원적으로 관형형어미 ‘-을’의 ‘ㄹ’이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쓰되 뒷말과 붙여 쓴다.

예 [하꺼인디](할 것인데) ⇒ 하꺼인디 || [하꺠](할 꺠) ⇒ 하꺠

【붙임】 발화가 갑자기 끊어진 경우에는 쉼표(.)를 적고 표준어 대역도 동일하게 한다.

(24) 담화 표지

① 담화 표지는 소리대로 쓰되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붙임】 빠른 발화에서 담화표지가 앞 요소와 결합하여 줄어든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예 [그리곤제, 그래선제, 그래돈제] ⇒ 그리곤제, 그래선제, 그래돈제



- ② 서남방언의 ‘잉’, 제주방언의 ‘양’은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표준어의 보조사 ‘요’에 대응하는 방언형 ‘유, 예, 야, 이라우’ 등은 같은 보조사로 취급하여 앞말에 붙여 쓴다.
- ④ ‘헛기침, 웃음소리’ 등은 음소적 표기를 한다.

(25) 이 지침 이외의 사항은 <한글 맞춤법>에 준하여 적는다.

(26) 구술발화 전사 시 방언별로 필요한 유의 사항은 <부록>에 실는다.

(27) 표준어 대역

- ① 방언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준어형을 사용하여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응 표준어가 복수의 유의어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 유의어들의 사용빈도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형태가 유사한 어형을 택한다.
      - 예 어지께 ➔ 어저께(○)/어제(×)    ㉡ 인자 ➔ 인제(○)/이제(×)
    - ㉢ 방언형에 직접 대응하는 표준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표준어로 대체한다.
      - ㉢a 방언형과 뜻이 약간 다른 경우
        - 예 퍼뜩 ➔ 빨리
      - ㉢b <표준국어대사전>에 대응 표준어의 용례가 없거나 작성례 없이 인용례만 있는 경우
        - 예 석경/식경 ➔ 거울(○)/석경(×)    ㉢c 대간하다 ➔ 고단하다(○)/대근하다(×)
      - ㉢c <표준국어대사전>에 대응 표준어의 뜻풀이가 첫 번째가 아닌 경우
        - 예 육보다 ➔ 수고하다    ㉢d 심간 ➔ 마음
- 대근하다(→고단하다), 석경(→거울), 세한(→겨울), 시방(→지금), 심간(→마음),  
 언다(→어디에다), 육보다(→수고하다), 증하다(→징그럽다), 퍼뜩(→빨리)
- ㉢e 대응 표준어들에 의미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표준어형을 택하도록 한다.
    - 예 키가 짝다. ➔ 키가 작다.    ㉢f 돈이 짝다 ➔ 돈이 적다.
- ③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 표준어로의 뜻풀이가 한두 어절로 가능한 경우에는 문맥에 맞게 풀이하여 적는다.
    - 예 군지를 타면 호습제. ➔ 그녀를 타면 신나고 재미있지.
  - ㉤ 표준어로의 뜻풀이가 난해한 경우에는 작은따옴표 안에 방언형을 적는다.
    - 예 또 끼데 나가냐? ➔ 또 ‘끼데’ 나가니?
- ④ 다음 표준어는 대역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거시기, 거식하다/거시기하다, 그림/고림(그러면), 근데(그런데),  
 글로/골로(그리로), 기다(그것이다), 노느다(나누다), 담(다음), 따습다(따뜻하  
 다),  
 땀(때문), 뚜드리다/뚜들기다(두드리다), 맥없이(괜히), 머(뒤편), 무장(갈수록),  
 문대다(문지르다), 식겁하다, 쌓다(보조동사), 씨불거리다/씨불대다/씨불이다,  
 아따(감탄사), 오지다(흐뭇하다), 이럼/요름(이러면), 이쁘다(예쁘다),  
 일로/올로(이리로), 재밌다(재미있다), 저럼/조름(저러면), 절로/줄로(저리로),  
 켈(제일), 진작(진즉), 쪼끔/조끔/쪼금(조금), 후딱(빨리), 흘치다(흘다)

**【붙임】** 위 단어가 포함된 복합어도 동일한 표기를 한다.

⑤ 어미의 생략으로 인해 번역문이 어색한 경우에는 ( ) 안에 적절한 어미를 보충할 수 있다. 기타  
 의 생략 요소들은 매우 어색한 경우에만 보충해 주도록 한다.

㉠ 어미

예) 널쩍 겁. ➔ 떨어진 겁(니다).

㉡ 기타(조사)

예) 나 벌써 잊어 뿌렸는데 ➔ 나(는) 벌써 잊어 버렸는데

⑥ ‘-서’와 ‘가지고’의 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지고, 가지구, 가주고, 가이고, 가주, 가이’ 등의 방언형은 ‘가지고’로, ‘갖고, 갖구’는 ‘갖고’  
 로 대역한다. 단, 경상방언의 ‘-어/아가’는 ‘-어/아서’로 대역한다.

예) 무 가주고 ➔ 먹어 가지고

예) 잘 해가 ➔ 잘 해서

㉡ ‘-서 가지고’처럼 ‘-서’와 ‘가지고’가 중복 사용된 경우에는 ‘-서’만 사용하여 대역한다.

예) 잡아서 가지구 ➔ 잡아서

㉢ 서술격조사 뒤의 ‘가지고’는 ‘-서’로 대역한다.

예) 외향적이어 가지고 ➔ 외향적이어서

㉣ ‘-서’와 ‘가지고’에 선행하여 사용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표준어 대역에서 반영하지 않는  
 다.

예) 많았어서 ➔ 많아서    ||    처음이었어 가지고 ➔ 처음이어서

**【붙임】** 방언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록>에 신는다.

## <부록1> 강원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ɨ]’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ɨ:ŋgam](영감) ⇒ 이응감

② 상향이중모음 [ɥ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또는 ‘ㅅ아’로, [ɥə]는 ‘ㅍ어’ 또는 ‘ㅅ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ɥa](몰류-아) ⇒ 몰류아    ||    [tɥa:](되-아) ⇒ 되아

    [əllɥə](얼류-어) ⇒ 얼류어    ||    [t'ɥə:](뛰-어) ⇒ 뛰어

③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i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ĩi](솔개) ⇒ 솔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어간말 모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하여 ‘키’ 또는 ‘기’로 실현되면 소리대로 적는다.

예) [이페](입히-어) ⇒ 입헤    ||    [마케](막히-어) ⇒ 막헤    ||    [걸레](걸리-어) ⇒ 걸레

**【붙임】**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키’로 적는다.

예) [무체](묻히-어) ⇒ 묻헤    ||    [다체](담히-어) ⇒ 담헤

3. 곡용에서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격음화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말또] ⇒ 말도    ||    [여자들또] ⇒ 여자들도    ||    [돈또] ⇒ 돈도

예) [여자들토](여자들-도) ⇒ 여자들토

**【예외】**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하나또](하나도) ⇒ 하나또    ||    [하나토] ⇒ 하나토

4. 조사와 어미

① 표준어의 조사 ‘한테’에 대응하는 방언형 [인테, 인테]는 소리대로 적는다.

②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대응하는 방언형 [배끼, 배계]는 각각 ‘뻥이, 뻥에’와 같이 분철하여 적

는다.

- ③ 표준어의 어미 ‘-읍/습니다, -읍/습니까’에 대응하는 방언형 [-읍/습미다, -읍/습미까]는 각각 ‘-읍/습미다, -읍/습미까’로 적는다.

◆ 표준어 대역

1. 조사

① 중첩된 조사

예 이 밥은는 참 맛있어. ➔ 이 밥은 참 맛있어.

예 밥으르 많이 먹어요. ➔ 밥을 많이 먹어요.

2. 어미

① 의문형 어미 ‘-안/언’는 ‘-았/었니’로 번역한다.

예 강냉이를 탄? ➔ 강냉이를 땀니?

## <부록2> 경상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i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ĩi](술개) ⇒ 술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으:어’ 비대립 관련

① ‘으:어’의 대립이 비변별적인 지역의 조사 ‘언/년(보조사), 얼/럴(목적격 조사)’의 모음은 표준어 형인 ‘은/는, 을/를’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언/년, 얼/럴’로 적는다. 이는 ‘으:어’가 대립하는 지역에서도 ‘언/년, 얼/럴’의 발음이 실현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예 [요새'애년](요새-는) ⇒ 요새년

**【붙임】** 나머지 ‘으’모음 조사(‘으로’, ‘을래’)는 ‘으’로 적는다.

예 [사너로](산-으로) ⇒ 산으로

② 경상도 방언은 ‘으:어’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6)항에 의거하여 전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그으년](그거-는) ⇒ 그어년    ||    [미드득] ⇒ 미더덕

3. 대부분의 화자들에게 ‘에:애’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6)항에 의거하여 전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베'에게] ⇒ 베개    ||    [간데요글쎸] ⇒ 간대요 글쎸

4. 형태소 경계에서, 유음과 비음 뒤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길'또'](길-도) ⇒ 길도    ||    [산'또'](산-도) ⇒ 산도

예 [불'땡'기고] ⇒ 불땡기고    ||    [불'쌀'레고] ⇒ 불살레고

**【예외】** 한 단어로 굳어진 화석형은 경음화를 반영하여 적는다.

예 [한'나또](하나도) ⇒ 한나또

5. 다음과 같은 ‘ㄴ’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① 한자어에서 선행 한자가 공명음으로 끝나고 후행 한자가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ㄴ’첨가가 일어나면 이 ‘ㄴ(ㄹ)’은 적지 아니한다.

예 [함냥, 전녀, 공농, 탈령] ⇒ 함양, 전역, 공용, 탈영

② 보조사 ‘요’가 결합할 때 ‘ㄴ’첨가가 일어날 때에도 ‘ㄴ(ㄹ)’은 적지 아니한다.

예 [밤뇨, 물료] ⇒ 밤요, 물요

6. 운율적 요소(음장, 성조 등)를 표시하는 ‘:’, ‘’ 등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동일 모음의 반복 표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 눈: ⇒ 눈   ||   마알’ ⇒ 말

**【예외1】** 체언어간에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말 자음의 탈락으로 인해 동일모음이 생성된 경우에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kusəə](구석-에) ⇒ 구서어   ||   [paa](방-에) ⇒ 바아

**【예외2】** [비음성]이 탈락한 어미 ‘-으이’(<-으니)류가 ‘ㅅ, ㅆ, ㅈ, ㅊ’ 어간말음 뒤에서 ‘-이이’로 전설모음화한 경우에는 ‘이이’로 반복 표기를 한다.

예 [həs’ij](했으니) ⇒ 했이이   ||   [ʃ’idʒijk’ene](찢으니까) ⇒ 찢이이께네

**【예외3】** 합성어에서도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tarij](<[tarɪ], 다른#이) ⇒ 다리이   ||   [kanij](가는#이) ⇒ 가나이

**【예외4】**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의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미’이다](떡이다) ⇒ 미이다

7. 용언 어간 말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해서 ‘에’ 또는 ‘이’가 될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후자의 경우 ‘이이’로 적지 않음에 유의한다.

예 [비베](비비-어) ⇒ 비베   ||   [비비](비비-어) ⇒ 비비

8. 조사

① 속격조사 ‘에, 이, 으’, 처격조사 ‘에, 이’는 선행요소와 분철한다.

예 [나’메](남-의) ⇒ 남에   ||   [나’무](남-의) ⇒ 남으

예 [지’비](집-에) ⇒ 집이

②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해당하는 방언형 [빼께/베께, 빼끼/베끼]는 각각 ‘뽁에/뽁에, 뽁이/뽁이’와 같이 분철해 적는다.

예 [이’거’빼’께](이거-밖에) ⇒ 이거뽁에

9. 어미

- ① 표준어의 ‘-으니까’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응께, -으이께네, -으이까네, -으이꺼네’ 등으로 전사한다.
- ② ‘-이’가 첨가된 종결어미는 ‘-는대이, -어/아래이, -재이’ 등과 같이 표기한다.
- ③ 의문형 어미는 ‘-능/응교’는 소리대로 적고 ‘-는/은교’로 적지 아니한다.  
**【붙임1】** [-능/응가, -능/응고, -능/응강, -능/응공] 등은 각각 ‘-는/은가, -는/은고, -는/은강, -는/은공’으로 적는다.  
**【붙임2】** 표준어의 ‘-는/은가 보-’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는/은갑-’(붙여쓰기)로 적는다.
- ④ [-음/습미다, -음/습미까]는 각각 ‘-음/습미다, -음/습미까’로 적는다.

## 10. 인용문

- ① 표준어의 ‘-고 하다’류에 해당하는 ‘카다/커다/쿠다’는 소리대로 적되 띄어 쓴다.  
**예** [간다칸다] ⇒ 간다 칸다   ||   [가냐칸다] ⇒ 가냐 칸다  
       [가라칸다] ⇒ 가라 칸다   ||   [가자간다] ⇒ 가자 칸다
- ② 표준어의 ‘그러다’에 해당하는 [그러카다, 그러쿠다, 글카다, 글쿠다, 그카다, 그쿠다] 등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러다, 저러다’에 해당하는 방언형의 표기도 동일하다.

## 11. 표준어의 보조용언 ‘가지고’에 해당하는 방언형 중에 ‘가’는 앞말에 붙여 쓰고 ‘가주, 가이, 거주고’ 등은 띄어 쓴다.

- 예** 딸이 없어가  
       딸을 원해 가주, 그래 가이

## ◆ 표준어 대역

### 1. 어휘

- ① 거숙하다 ➡ 거식하다   ||   거시기하다 ➡ 거시기하다
- ② 머식하다 ➡ 무엇하다
- ③ 머시기 ➡ 무엇(사물), 아무개(사람)  
**예** 그기 머시기더라? ➡ 그게 무엇이더라?   ||   머시기도 오고 ➡ 아무개도 오고
- ④ 머라그다/머라글다/머라카다/머라쿠다 ➡ 나무라다  
**예** 머라근다 ➡ 나무란다   ||   머라글어라/머라캐라 ➡ 나무라라
- ⑤ 인용문의 ‘카다/커다/쿠다 ➡ -고 그러다  
**예** 가라 칸다. ➡ 가라고 그러다.

### 2. 조사

- ① 경북 서부 방언의 보조사 ‘-어/아여’는 해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예 어서 찾아여. ➡ 어서 찾아.

### 3. 어미

① 동사의 관형사형 ‘-었/았는-’은 ‘-은’으로 번역한다.

예 묵었는 놈이 ➡ 먹은 놈이

② 해라체 의문형 어미 ‘-나, -노, -가, -고’는 모두 ‘-니’ 또는 ‘-냐’로 번역한다.

예 핵고 가나? ➡ 학교 가니? || 어데 가노? ➡ 어디 가니?

니 책이가? ➡ 네 책이니? || 누 책이고? ➡ 뉘 책이니?

【붙임】 회상의 어미 ‘-다, -도’는 모두 ‘-더냐’로 번역한다.

예 어디 가도? ➡ 어디 가더냐?

③ ‘-(시)니까, -(시)능교, -이소’ 등은 합쇼체로 번역한다.

예 가시니까 ➡ 가십니까 || 가능교 ➡ 갑니까 || 가이소 ➡ 가십시오

④ ‘-이’가 첨가된 종결어미 ‘-는대이, -어/아래이, -재이’ 등은 ‘-는다, -어/아라, -자’ 등으로 번역한다.

예 묵는대이 ➡ 먹는다 || 살어래이 ➡ 살아라 || 가재이 ➡ 가자

⑤ ‘-이라/이래, -이라요/이래요’는 각각 ‘-이야, -이어요’로 번역한다.

예 내 집이래. ➡ 내 집이야. || 갔가 이기라. ➡ 갔다 이거야.

했는 모양이래요. ➡ 한 모양이어요. || 아이래요. ➡ 아니어요.

### 4. 통사

① 확인의문문 ‘-다 아니-’는 ‘-잖-’으로 번역한다.

예 왔다 아입니까? ➡ 왔잖습니까?

② 의존명사 ‘것’이 생략된 구문은 ‘것’을 살려서 번역한다.

예 비가 왔는 걸다. ➡ 비가 온 것 같다.

비가 올 걸다. ➡ 비가 올 것 같다.

③ ‘-지 싶-’ 구문은 ‘-은/을 것 같-’으로 번역한다.

예 했지 싶습니더 ➡ 한 것 같습니다.

④ 표준어의 보조용언 ‘가지고’에 해당하는 방언형 중에서 ‘가’는 ‘서’로 번역하고 ‘가주, 가이, 가주 고’ 등은 ‘가지고’로 번역한다.

예 딸이 없어가 ➡ 딸이 없어서

딸을 원해 가주 ➡ 딸을 원해 가지고 || 그래 가이 ➡ 그래 가지고



### <부록3> 전라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ö]’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ö] ⇒ 이외

② 상향이중모음 [ʏ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야’ 또는 ‘ㅍ야’로, [ʏə]는 ‘ㅍ어’ 또는 ‘기어’로 적고 ‘얌, 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ʏa](몰류-야) ⇒ 몰류야    ||    [tʏa:](퇴-야) ⇒ 퇴야

[əllʏə](얼류-어) ⇒ 얼류어    ||    [tʏə:](뛰-어) ⇒ 뛰어

③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i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ii](솔개) ⇒ 솔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ㅍ’ 발음 어간에 어미 ‘-야’가 결합하는 경우에, [ㅍ야]로 소리가 나더라도 ‘ㅍ야’로 적는다.

예 [퇴야](퇴-야) ⇒ 퇴야    ||    [쇠야서](쇠-아서) ⇒ 쇠아서

**【붙임1】** 어간 발음 ‘ㅍ’가 ‘ㄱ/ㅋ’로 변화한 경우도 동일하다.

예 [테야](테-야) ⇒ 테야    ||    [새야서](새-아서) ⇒ 새아서

**【붙임2】** 형태소 내부에서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퇴야지] ⇒ 퇴야지    ||    [퇴야지] ⇒ 퇴야지

3. 용언 어간 발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해서 ‘에’ 또는 ‘이’가 될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비베서](비비-어서) ⇒ 비베서    ||    [비비서] ⇒ 비비서

4. 표준어의 인용문 ‘-고 하다’류에 해당하는 ‘-가/거다’는 ‘-ㄱ 하/허다’와 같이 적는다. 이때 띄어 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간다간다] ⇒ 간닥 한다    ||    [가냐간다] ⇒ 가냘 한다

[가라건다] ⇒ 가락 현다    ||    [가자건다] ⇒ 가작 현다

5. 색채 / 모양형용사류는 ‘-하다/허다’를 분석하여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노려다](노랗다) ⇒ 놀허다   ||   [빨가다](빨갳다) ⇒ 빨허다  
[밀거다](말갳다) ⇒ 뵈허다   ||   [똥그라다](똥그랗다) ⇒ 똥글허다  
[크다너다] ⇒ 크단허다   ||   [똥글똥글러다] ⇒ 똥글똥글허다

6. 기원적인 관형어어미 ‘-을’의 ‘ㄹ’이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뒷말과 붙여 쓴다.

예 하꺼인디(할 것인데), 가껏이여(갈 거야)

7. 표준어의 ‘-잖아’에 대응하는 전라방언형은 ‘-잔해’로 적는다.

예 [가꼬가자내](갓고 가잖아) ⇒ 갓고 가잔해  
[잘 하자내](잘 하잖아) ⇒ 잘 하잔해

8. 표준어의 ‘-이야, -이어요’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이여, -이여라우’로 적는다. 이때 후자는 ‘-이여라우’가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지비여] ⇒ 집이여   ||   [지비여라우] ⇒ 집이여라우

9. 다음의 경음은 소리대로 적는다.

① 표준어의 ‘놓아두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나똥다]는 소리대로 ‘나똥다’와 같이 적고 ‘낫두다’로 적지 아니한다.

예 [카만 나똥](가만히 놔똥) ⇒ 카만 나똥(○)/카만 낫똥(×)

② 표준어의 보조용언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뿔다/뿌리다]는 소리대로 ‘뿔다/뿌리다’와 같이 적고 ‘스 불다/부리다’로 적지 아니한다.

예 [해뿔고](해 버리고) ⇒ 해 뿔고(○)/헛 불고(×)

10. 표준어의 ‘-나/는가 보다, -은가 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는값다/는가비다/는개비다, -은값다/은가비다/은개비다’와 같이 붙여 쓴다.

예 비가 왔는개며.(왔나 봐)   ||   더운값다.(더운가 보다)

**【붙임】** 표준어의 ‘-나/는가 봐, -은가 봐’에 해당하는 방언형 [-능값씨, -응값씨]는 각각 ‘-는값어, -은값어’로 적는다.

예 비가 왔는값어.(왔나 봐)

11. 담화표지 ‘잉’은 앞말에 붙여 쓴다.

예 내가잉 널잉 가게잉.

◆ 표준어 대역

1. 어휘

① 거식하다 ➡ 거식하다 || 거시기하다 ➡ 거시기하다

② 머식하다/머석하다 ➡ 무엇하다

③ 머시기/머서기 ➡ 무엇(사물), 아무개(사람)

예 고거이 머시기더라? ➡ 고게 무엇이더라? || 머시기도 오고 ➡ 아무개도 오고

④ 머락하다/머이락하다/멋이락하다 ➡ 나무라다

⑤ 인용문의 ‘-기 하다 ➡ -고 그러다

예 가락 한다. ➡ 가라고 그러다.

⑥ 겁나다, 허벌나다 ➡ 아주 많다

【붙임】 ‘겁나게, 허벌나게’는 동사 앞에서는 ‘아주 많이’로, 형용사나 다른 부사 앞에서는 ‘아주’로 번역한다.

예 사람들이 겁나게 왔어라우. ➡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힘이 허벌나게 세라우. ➡ 힘이 아주 세요.

⑦ 차말로 ➡ 참말로

⑧ 다닐러/다닐로/다일러/다일로 ➡ 그러게

⑨ 데차/데치나 ➡ 과연

⑩ 담화표지 ‘잉’은 ‘응’으로 번역하고 띄어 쓴다.

예 내가잉 널잉 가게잉. ➡ 내가 응 널 응 같게 응.

2. 조사 ‘라우’는 ‘요’로 번역하고 ‘-다우’은 ‘-대요’로 번역한다.

예 왔어라우. ➡ 왔어요.

집이 간다우? ➡ 집에 간대요?

3. 어미

① 선어말어미 ‘-겨/게-’는 ‘-(으)시-’로 번역한다.

예 풀쎌 와겼어라. ➡ 벌써 오셨어요.

② 표준어의 관형사형어미 ‘-는’(현재)과 ‘-은’(과거)은 전라도 방언에서 형태상의 대립이 상실되어 ‘-은’으로만 쓰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번역을 달리해야 한다.

예 시방 고기 잡은 사람 ➡ 지금 고기 잡는 사람

어지게 고기 잡은 사람 ➡ 어저께 고기 잡은 사람

③ 평서형 또는 의문형 어미 ‘-으요’는 ‘-어/아요’로 번역한다.

예 시방 머 잡으요? ➡ 지금 뭐 잡아요?

④ 평서형 어미 ‘-시’는, 체언에서는 ‘-일세’로, 용언에서는 ‘-네’로 번역한다.

예) 여그가 내 집이시. → 여기가 내 집일세.

차말로 깨끗하시. → 참말로 깨끗하네.

⑤ 어미 ‘-가니/간디’는, 연결어미일 때는 ‘-관테’로, 종결어미일 때는 ‘-졌어’로 번역한다.

예) 니가 멋이간디 까부냐? → 네가 뭐관테 까부느냐?

누가 그것을 알았간디? → 누가 그것을 알았졌어?

4. ‘그러다/그라다’는 ‘그렇다’(형용사)와 ‘그러다’(동사)의 의미를 모두 가지므로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

예) 그러다가 꼭 다칠 것이여. → 그러다가 꼭 다칠 것이야.

그것이사 그라제만 맘대로 될랍디여? → 그것이야 그렇지만 맘대로 되겠습니까?

5. 부정 표현

① ‘-든, -들, -도’는 각각 ‘-지는, 지를, -지도’로 번역한다.

예) 가들 말어. → 가지를 말아. || 가도 안해. → 가지도 않아.

② ‘있도 없다, 알도 모르다’는 각각 ‘있지도 않다, 알지도 못하다’로 번역한다.

6. ‘안’이 쓰인 확인의문문은 ‘-잖-’으로 번역한다.

예) 잘 가요, 안? → 잘 가잖아요?

빨리 오락 안 허냐? → 빨리 오라잖니?

【붙임】 ‘안’이 생략된 확인의문문도 있을 수 있으니 의문문의 의미가 ‘질문’인지, ‘확인’인지 구분하여(억양의 차이) 번역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집을 다 짓었습디여?(↗) → 집을 다 지었습디까? (질문)

집을 다 짓었습디여?(↘) → 집을 다 지었잖습디까? (확인)

7. 보조 용언

① 표준어의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의 쓰임이 매우 활발하여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뒤에 쓰이기도 하는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표준어로 번역하지 않도록 한다.

예) 너무 좋아 불어. → 너무 좋아.

② 보조 동사 ‘쓰다’는 ‘되다’로 번역한다.

예) 집이 꼭 가야 써. → 집에 꼭 가야 돼.

8. ‘-는갑다/는가비다/는가비다, -은갑다/은가비다/은가비다’는 ‘-나 보다’(동사) 또는 ‘-은가 보다’(형용사)로 번역한다.

예) 밥 다 먹었는갑다 → 밥 다 먹었나 보다.      작은개벼. → 작은가 봐.

## <부록4> 제주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으(아래아), 으(쌍아래아)’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데 <훈글>에서 타이핑한 후에 <엘란>에 복사하도록 한다.

예 불바(뵤아) ⇒ 뵤다 || 으뵤(여뵤) ⇒ 으뵤

2. 자음 뒤의 ‘의’ 표기는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4)항 ①에만 해당하며 표준어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면 자음 뒤에 ‘의’는 적지 않는다.

예 [이디서](여기서) ⇒ 이디서(○)/이디서(×)

3. 전설모음화(으>이)는 형태소 경계 여부에 관계없이 표기에 반영한다.

예 형태소 경계 : [안꼬, 아지난](坐) ⇒ 앓고, 앓이난(○)/앓으난(×)

형태소 내부 : [아지고, 아지난](坐) ⇒ 아지고, 아지난

4. 합성어 및 조사 결합형에서의 격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여 적는다.

예 처가침(처갓집) ⇒ 처가침(○), 처갓침(×)

예 하나토(하나도) ⇒ 하나토

5. 특정 단어의 표기

① ‘흐다/허다’의 모음어미 결합형은 ‘헤’로 적는다.

예 흐고↪허고, 헨(해서)

② 아니흐(허)다↪아녀다↪않다

예 [아녕](아니흐-영) ⇒ 아니헿(○), 앓헿(×)

예 [아넵네다](아녀-네다) ⇒ 아넵네다(○), 아니헿네다(○), 아니흫네다(×)

예 [아녕](안흐-영) ⇒ 안헿(○), 앓헿(×)

③ 잇다↪이시다(있다)

예 [인꼬, 이서, 이시난] ⇒ 잇고, 잇어, 잇이난

[이시고, 이셔, 이시난] ⇒ 이시고, 이셔, 이시난

④ ‘ㅎ’말음 용언

예 [죤네다](죤습니다) ⇒ 죤네다 || [노면](농-으면) ⇒ 노면

6. 동일한 구성(특히 ‘이-여’ 연쇄)이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 경의기영의기영(그렇게) || 가켜의가키어의가키여(가졌어)

【예외】 모음 어미(‘-어X, -엔’)가 연결된 경우에는 활음 j의 삼입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기-영(기-어서) ⇒ 경(○), 기영(○), 기영(×)

기-엇어(기-엇어) ⇒ 겻어(○), 기엇어(○), 기엇어(×)

가키-엔(가졌-다고) ⇒ 가켄(○), 가키엔(○), 가키엔(×)

7. 조사

① 처격조사 ‘디’는 ‘딤’로 적지 않고 ‘디’로 적는다.

② 속격조사 ‘의’는 선행요소와 분철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으’의 원순모음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예 [노미](남-의) ⇒ 놈이 || [노무] ⇒ 놈으

③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백이, 백에’ 등으로 분철해 적는다.

8. 어미

① 특정 활용형의 분철과 연결

예 오란 ⇒ 올안(오-아) || [노프고, 노프니] ⇒ 노프고, 노프니

② -암시/엄시- :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는 ‘시’를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고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미의 두음을 경음으로 적는다. 그리고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암시/엄시-’와 같이 적는다.

예 잡암서(잡-암시-어)

잡암찌(잡-암시-저), 잡암쭈(-주), 잡암꼬(-고), 잡암쭈다/잡암쭈과(-수-)

잡암시냐(잡-암시-으냐)

③ -앗/엇- : 형태음소 표기를 하되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는 ‘-아시/어시-’와 같이 적는다.

예 잡앗어(잡-앗-어) cf. 헤뵈어(헤-보-앗-어)

잡앗저(잡-앗-저), 잡앗주, 잡앗고, 잡앗수다/잡앗수과

잡아시냐(잡-앗-으냐)

④ -엔 : 자음 어간 뒤에서는 ‘-이엔’으로, 모음 어간 뒤에서는 ‘-엔’으로 적는다.

예 책이엔(冊), 소엔(牛)

⑤ -수/우 :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수’,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우’로 적는다.

예 곱수다(곱-수-다), 예뵈우짱(예뵈-우-짱)

【예외】 ‘-우’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연결될 때는 ‘-으우-’로 적는다.

예 잇짱우파(×), 잇짱으우파(잇지-얌-으우-파)

【붙임】 모음 뒤의 ‘-우’가 생략되었을 때는 생략된 대로 적는다.

예 뒤편

⑥ -(으)크- : 어미 ‘-여’나 ‘-엔’ 앞에서는 ‘-(으)키-’, 선어말어미 ‘-우-’ 앞에서는 ‘-(으)크-’으로 적는다.

예 가키여<sup>ㄴ</sup>가키어<sup>ㄴ</sup>가켜(가겠다) || 가키엔<sup>ㄴ</sup>가켄<sup>ㄴ</sup>가켄(가겠다고) cf. 가키엔(×)  
가쿠다(가겠습니다)

⑦ -안/언, -양/영 : ‘ㅎ-’와 결합할 때만 ‘-연, -영’으로 적는다.

예 되언(○), 되연(×) || ㅎ연<sup>ㄴ</sup>헨

## ◆ 표준어 대역

### 1. 어휘

① ‘이제’는 문맥에 따라 ‘지금’ 또는 ‘이제’로 번역한다.

예 아, 이제도 잇는다 : 아, 지금(○)/이제(×)도 잇는데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 지금(○)/이제(×) 잊어버렸어

② ‘놓다<sup>ㄴ</sup>노다’는 문맥에 따라 ‘넣다’ 또는 ‘놓다’로 번역한다.

③ 그 외 둘 이상으로 번역되는 경우

예 나 : ‘내가’ 또는 ‘나는’

예 경허다 : 그렇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

예 경 행/헨 : ‘그렇게 해서’ 또는 ‘그렇게 했어’

예 틀리다<sup>ㄴ</sup>뜰리다 : ‘다르다’ 또는 ‘틀리다’

예 거라마씨? : ‘거예요?’ 또는 ‘거네요.’

④ ‘이추룩한’은 ‘이와 같은’으로 번역한다.

⑤ 부정문

예 먹도 아녀는다 : 먹지도 않는데

쓰지 안행 : 쓰지 않아서

⑥ ‘-어지-’는 ‘-게 되-’ 또는 ‘-을 수’로 번역한다.

예 먹어질 : ‘먹게 될’ 또는 ‘먹을 수’

### 2. 조사

①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조사를 살려 적는다.

예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나(×) 지금 잊어버렸어

### 3. 어미

① -암시/엄시- :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고 있-’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예 ‘큅’ 험시네 : ‘큅’ 하네(○), ‘큅’ 하고 있네(×)

자꾸 왁짜 : 자꾸 온다(○), 자꾸 오고 있다(×)

허젠 험쭈다 :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② 연결 어미로서의 ‘-안/언, -양/영’ : 문맥에 따라 ‘-아서/어서’와 ‘-고’를 선택하여 적는다.

예 먹을 건 못 먹언 살아시난 : 먹을 건 못 먹고(○)/먹어서(×) 살았으니까

지평 가는 거 : 짚고(○)/짚어서(×) 가는 거

가정 읍서 : 가지고(○)/가져서(×) 오세요

③ 종결 어미로서의 ‘-안/언, -양/영’ :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과거형으로 적는다.

예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잊어버려서(×)

④ 문장 종결 어미를 가급적 적어준다.

예 청미레 덩굴 아니? ⇒ 청미레 덩굴 아니야?

예 떨어진 거? → 떨어진 거예요?

⑤ 종결 어미 ‘-(으)고, -(으)벼주’는 각각 ‘-은/는가, -지요’로 번역한다.

예 잊어신고예? ⇒ 잊었는가요?(○), 잊었습니까(×)

예 엇입주 ⇒ 없지요(○), 없습지요(×) || 놀아십주 ⇒ 놀았지요(○), 놀았습죠(×)



## <부록5> 충청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ɨ]’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ɨ:ŋgam](영감) ⇒ 이응감

② ‘[jɔ]’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ɔ] ⇒ 이외

③ 상향이중모음 [ɥ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피아’로, [ɥə]는 ‘ㅍ어, 거어, 피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ɥa](물류-아) ⇒ 물류아 || [tɥa:](되-아) ⇒ 되아

[əllɥə](얼류-어) ⇒ 얼류어 || [t'ɥə:](뛰-어) ⇒ 뛰어 || [tɥə:](되-어) ⇒ 되어

④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이에 대한 발음정보는 따로 제공한다.

예 [ãɪ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ɪɪ](술개) ⇒ 술병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하향이중모음 ‘[uj], [oj], [ij], [aj], [əj]’는 각각 ‘우이, 오이, 으이, 아이, 어이’로 적는다.

예 [kuj](귀) ⇒ 구이 || [ojga](외가) ⇒ 오이가 || [kij](계) ⇒ 그이

[sajɲi](상-이) ⇒ 사잉이 || [səjɲi](성-이) ⇒ 서잉이

3. 모음 ‘ㅞ’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된 종결형은 발음에 따라 적는다.

예 장작 줌 께.(장작 줌 께) || 꼭 붙들어 마.(꼭 붙들어 매)

장작 줌 께.(장작 줌 께) || 꼭 붙들어 매.(꼭 붙들어 매)

밥얼 잘 먹는다야.(밥을 잘 먹는다) || 널 간다.(널 간대)

4. ‘유’와 관련된 표기

①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여 1음절로 축약되면 ‘슈’로 적고 2음절로 발음되면 ‘시유’로 적는다.

예 [가슈](가-시-어요) ⇒ 가슈 || [가시유] ⇒ 가시유

② ‘있-, 없-, -있/았-, -졌/졌-’ 등과 결합한 경우에는 ‘유’로 적는다.

예 있유(있어요) || 없유(없어요) || 했유(했어요) || 허졌유(하졌어요)

③ 그 외 종결형이 ‘-유’와 결합하여 음절이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예 트집혈류?(할래요) || 뭘 모른다는 규?(거요)

【붙임】 ‘거’(것)에 조사(주격, 서술격)가 결합하여 줄어든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것두 모르는 겨.(거야) || 유의해 주시라 이겁니다.(이겁니다)

5. 형태소 경계에서의 조음위치동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형태소 내부에서는 조음위치동화에 의해 굳어진 대로 적는다.

예 당구다(담그다), 장구다(잠그다), 송구다(심다), 깡구다(끼우다), 농구다(나누다)

6. 동일한 구성이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는 발음대로 표기한다.

예 가면/가문/감(가-면)

7. 표준어의 ‘-나 보다, -는가 보다, -은가 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내비다, -는갑다, -은갑다’와 같이 붙여 쓴다.

예 비 오내벼.(오나 봐) || 더운갑다.(더운가 보다)

#### ◆ 표준어 대역

1. 억양과 연접을 고려하여 표준어 번역을 하고 문장부호로 구별한다.

예 여가 시청이래요. → ➡ 여기가 시청이에요.

여가 시청이래요? ↗ ➡ 여기가 시청이에요?

발째 끝난 겨. → ➡ 벌써 끝난 거야.

발째 끝난 겨? ↗ ➡ 벌써 끝난 거야?

2. ‘작다/즉다’는 문맥 의미에 따라 ‘작다’와 ‘적다’로 번역한다.

예 자는 키가 너머 즉어. ➡ 재는 키가 너무 작아.

가는 욕심이 즉어서 그리여. ➡ 개는 욕심이 적어서 그래.

3. ‘하마/하매’는 ‘벌써’로 번역한다.

예 하매 다 끝났어? ➡ 벌써 다 끝났어?

4. ‘고대’는 문맥에 따라 조금 지난 시점과 현재 시점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문맥에 따라 ‘아까’ (조금 지난 시점)와 ‘얼른’(현재 시점)으로 번역한다.

예) 언제 왔니? 고대 왔어. ➡ 언제 왔니? 아까 왔어.

꿈지럭거리지 말구 고대 가! ➡> 꿈지럭거리지 말구 얼른 가.

5. ‘거석하다’는 ‘거식하다’로 번역한다.

예) 말하는 기 쯤 거석하면 안 해두 되야. ➡ 말하는 게 쯤 거식하면 안 해도 돼.

## [붙임 2] 전사 자료 정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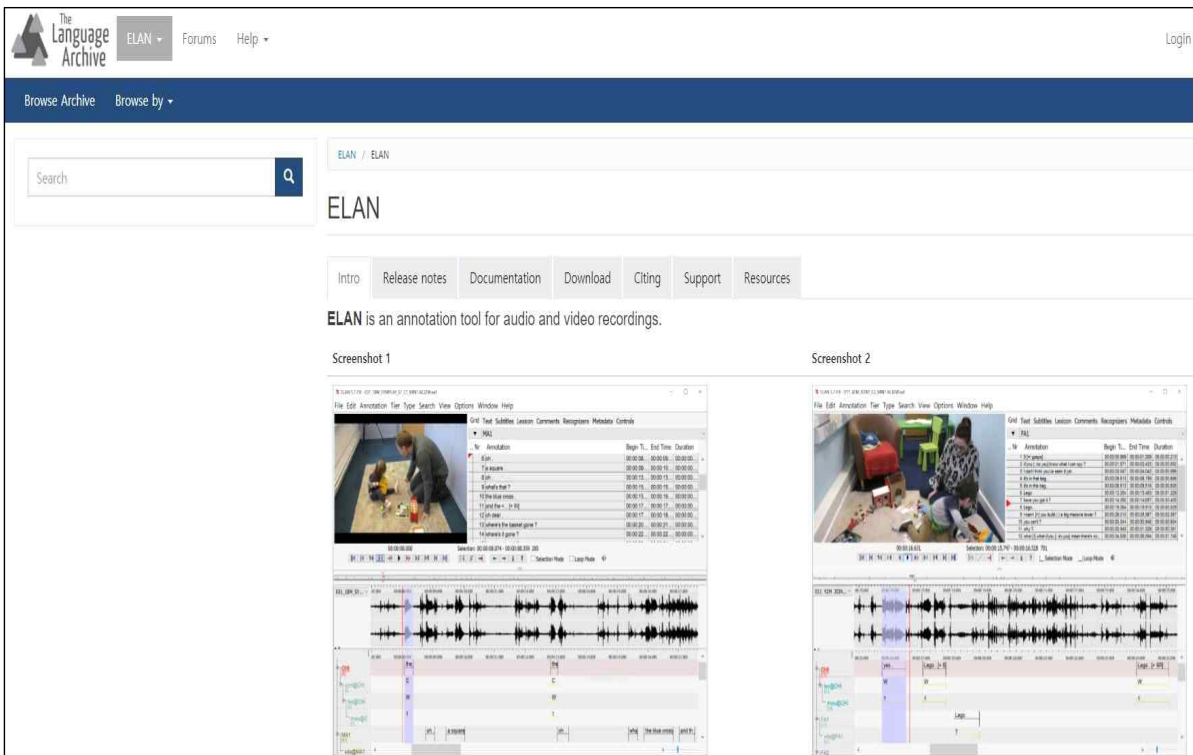
### 1) 파일 변환과 전사

#### (1) 파일 변환 및 음성 파일 편집 도구의 사용 방법

- ① 디지털 음성 변환(스테레오→모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음성 파일의 편집은 GoldWave 또는 Praat, Cool Edit Pro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 ② 어휘·표현 음성 파일의 경우 30분 정도의 길이로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 음성 파일이 길어질 경우 프로그램 속도가 저하될 수 있고, 음성 분절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30분 이내의 길이로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 ③ 구술발화 음성 파일의 경우 주제별로 음성 파일을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 (2) 전사 도구의 사용 방법

- ① 전사 도구는 엘란(ELAN) 6.2를 다운 받아서 설치한다.(2021년 7월 8일 기준)



엘란(ELAN) 메인 홈페이지(<https://archive.mpi.nl/tla/elan>)

# Download

Intro | Release notes | Documentation | **Download** | Citing | Support | Resources

Download the current version of **ELAN** for your platform

By downloading and using ELAN you agree to cite **ELAN** in any publication based on research in which **ELAN** has been used. You can cite a paper or cite as software, e.g. as follows: "ELAN (Version 6.2) [Computer software]. (2021). Nijmegen: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Retrieved from <https://archive.mpi.nl/ta/elan>"

OS	Download	Format	Description
Windows	ELAN 6.2 Simple-ELAN 1.3	[.exe] [.zip] [.exe]	Installer (.exe) and unpack-and-run (.zip) version both include a Java 14 runtime. Requires: 64-bit, Windows 10, 8, Vista, 7(? not tested anymore)
macOS	ELAN 6.2 Simple-ELAN 1.3	[.zip] [.dmg] [.zip]	Zip and dmg files containing a .app which includes a Java 14 runtime. Requires: 64-bit, macOS High Sierra (10.13) or higher
Linux	ELAN 6.2 Simple-ELAN 1.3	[.tar.gz] [.deb] [.tar.gz] [.deb]	Archive files or Debian installers, all including a Java 14 runtime. Requires: 64-bit, tested on Ubuntu 20.04
All	Source code of ELAN 6.2	[.zip]	Archive containing the source files and a Maven build script. Requires: Maven 3.3 or >, OpenJDK 9 or >
All	Previous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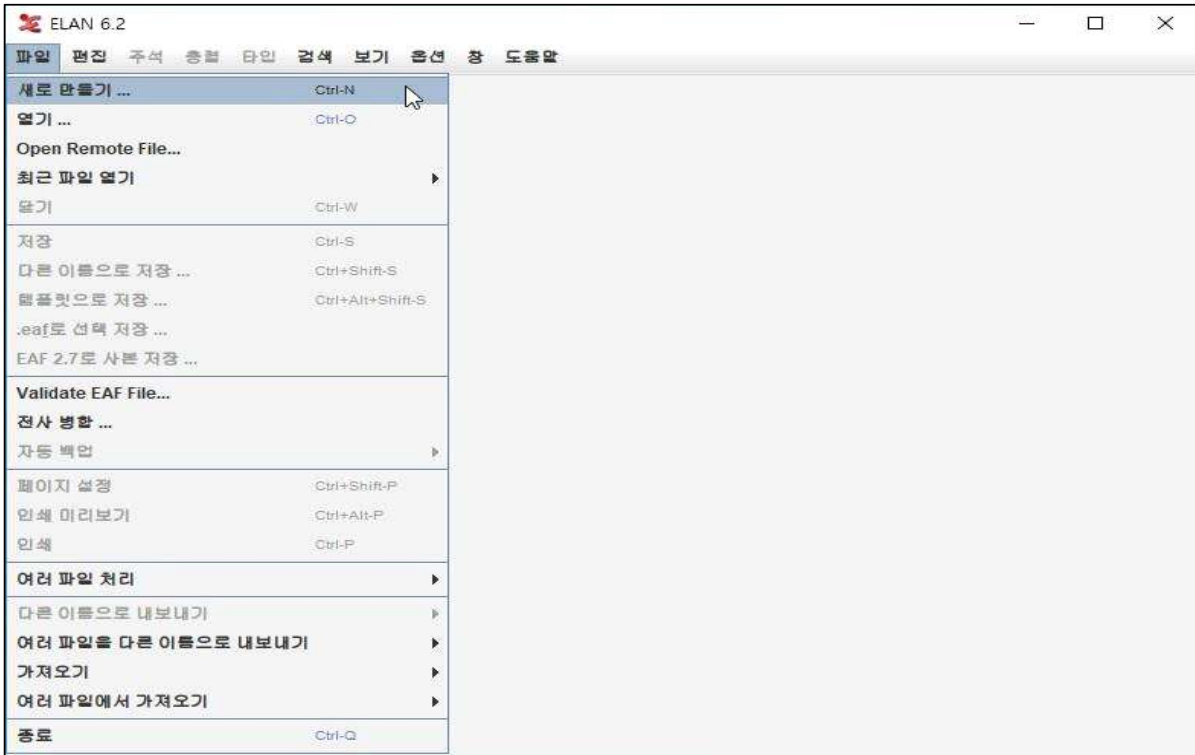
엘란(ELAN) Download 페이지

② 엘란(Elan)을 설치하고 실행한다. [옵션 - 언어 - 한국어]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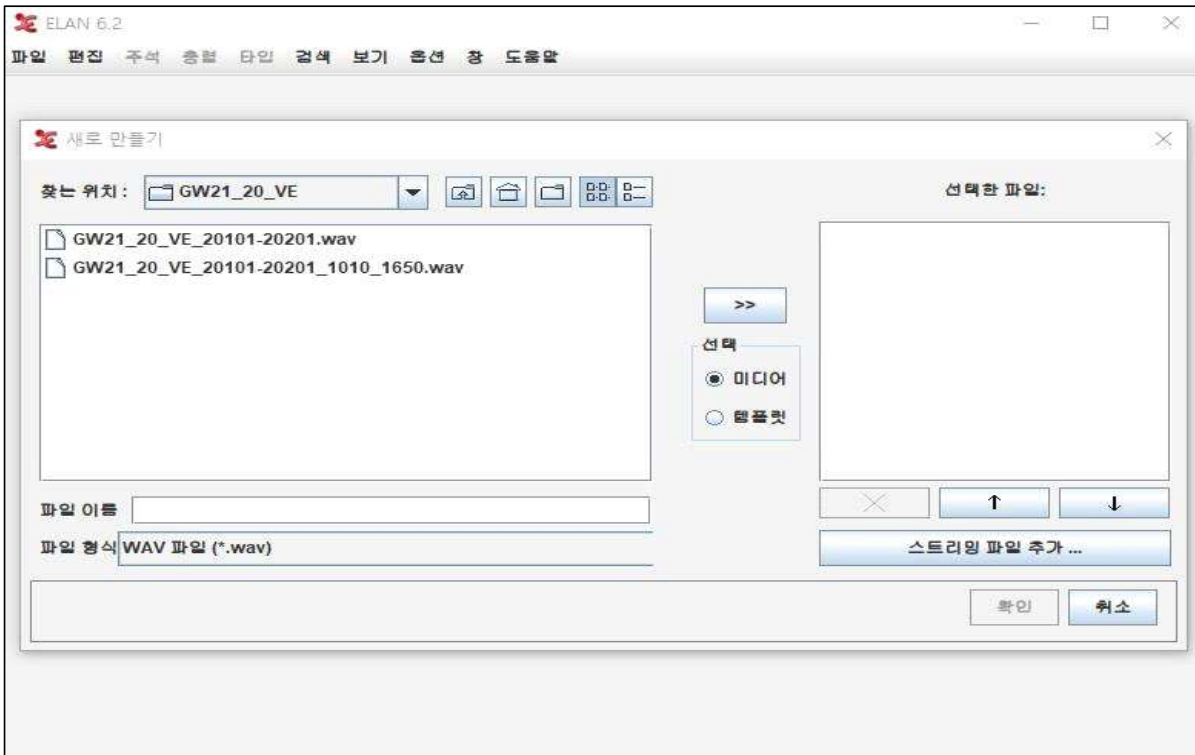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ELAN 6.2 application window. The menu bar includes '파일', '편집', '주석', '출력', '타인', '검색', '보기', '옵션', '창', and '도움말'. The '옵션' (Options) menu is open, showing various settings. The '언어' (Language) option is selected, and a sub-menu is displayed with the following options: Català, 简体中文, Deutsch, English, Español, Français, 日本語, **한국어** (highlighted with a mouse cursor), Nederlands, Português, Русский, Svenska, and 사용자 지정.

엘란(Elan) 실행 화면

③ 엘란(ELAN)의 [파일 - 새로 만들기...(Ctrl+N)]에서 전사할 음성 파일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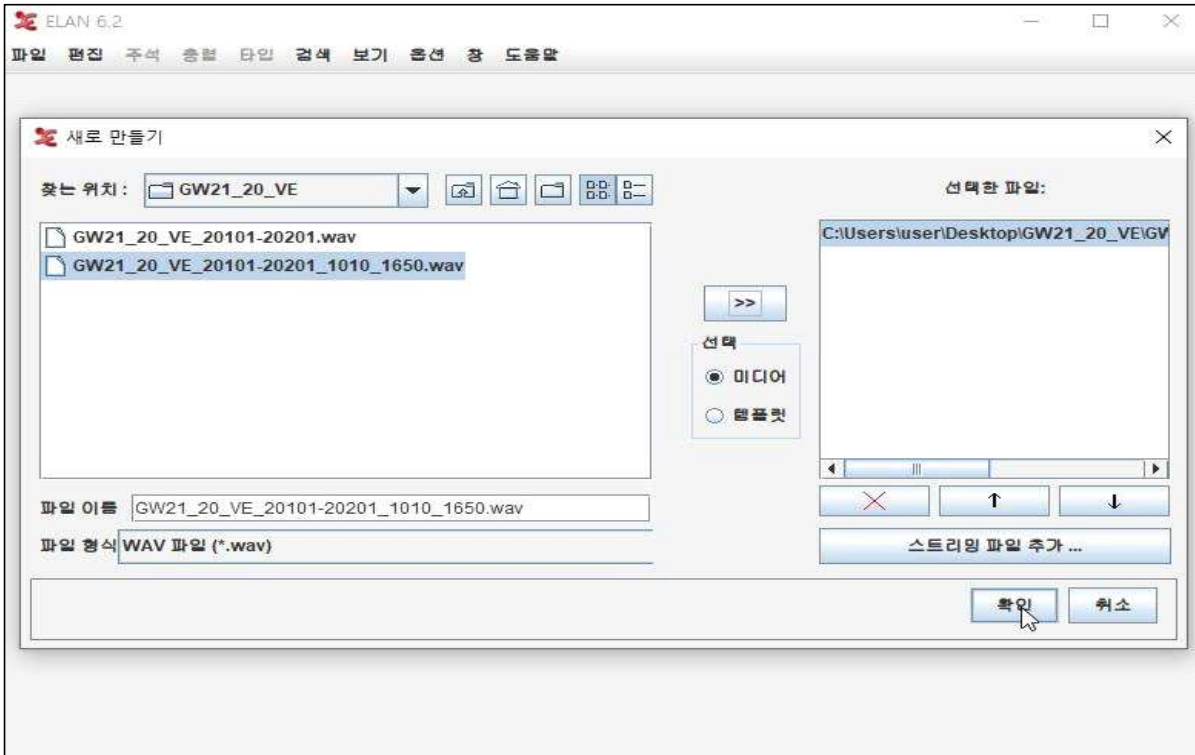


파일 - 새로 만들기



전사할 음성 파일 선택

④ 전사할 음성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전사할 음성 파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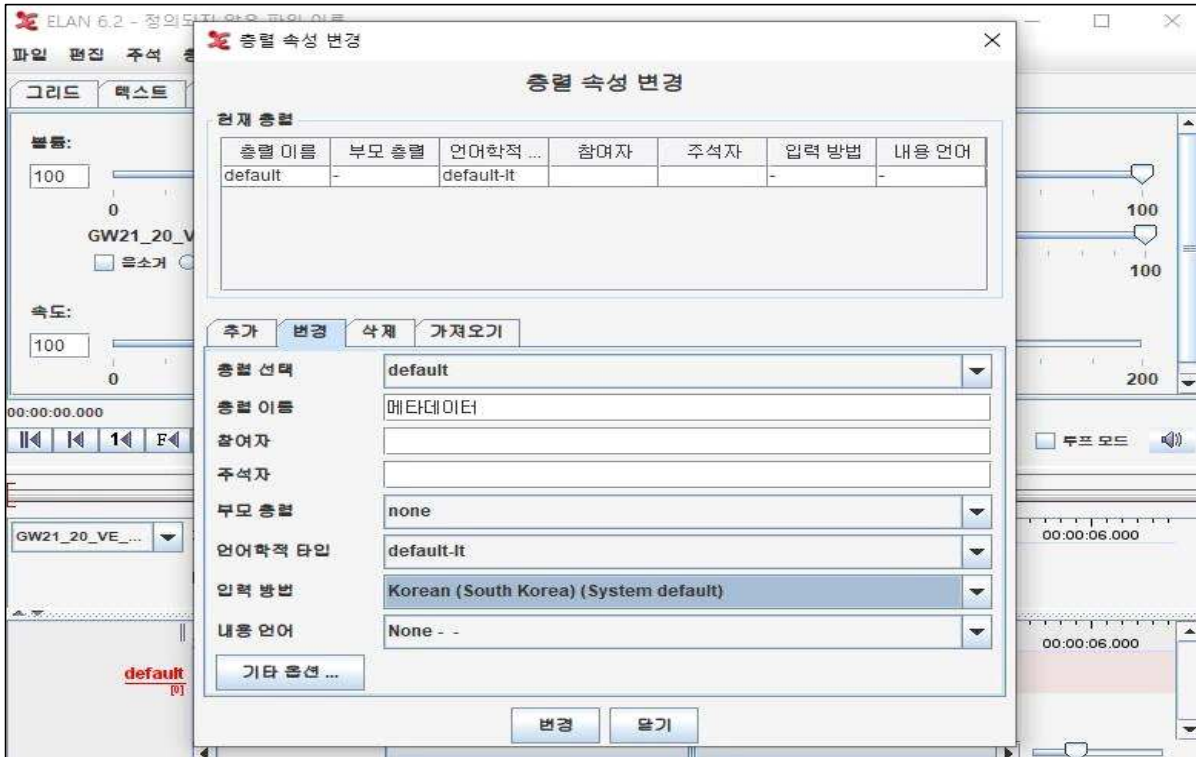
⑤ 전사 층렬 변경 및 추가를 실시한다. 전사 층렬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어휘·표현 음성 파일 전사의 경우: ‘메타데이터, 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고’ 층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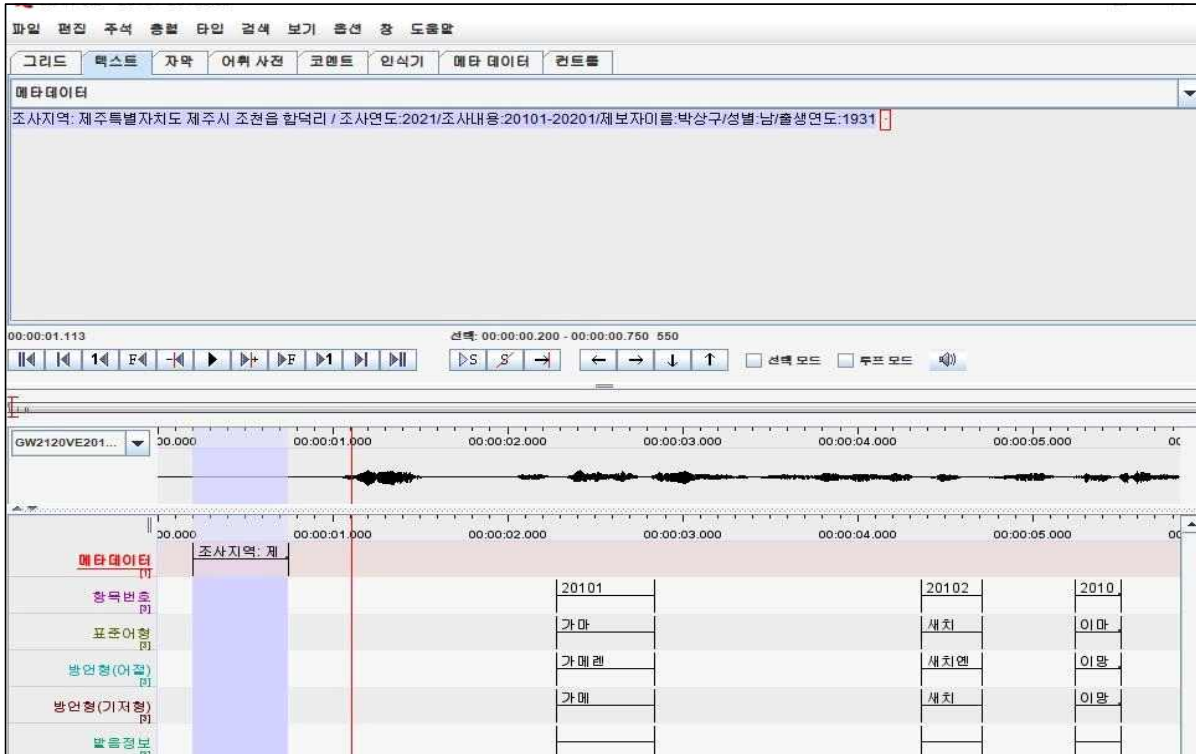
[층렬 - 층렬 속성 변경]을 선택하여 ‘default’ 층렬의 이름을 ‘메타데이터’로 변경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메타데이터의 경우 음성 파일의 가장 앞 부분에 ‘조사 지역 / 조사 연도 / 조사 내용 / 제보자 이름 / 성별 / 출생 연도’ 정보를 입력한다.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연도는 숫자 네 자리 형식으로 입력한다.

- 1) 출생 연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하며 형식은 숫자 네 자리로 고정한다. 예) 1939
- 2) 조사 내용의 형식은 어휘의 경우 ‘00000-00000’ 형식으로 입력한다. 예) 22349-22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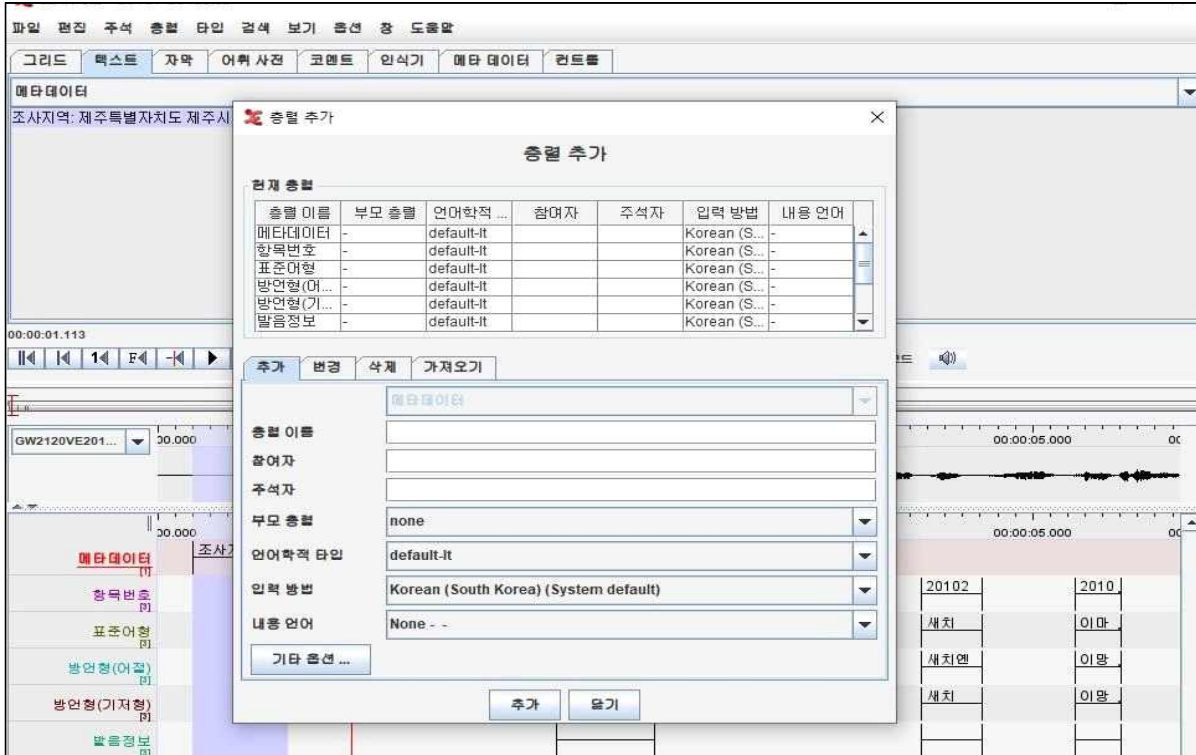
엘란(Elan)에서의 중립 설정 변경 예시



엘란(Elan)에서의 메타데이터 입력 예시



[층렬 - 새로운 층렬 추가]를 선택하여 ‘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 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교’ 층렬을 추가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그리고 참여자 정보에 제보자의 정보를 주석자 정보에 전사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엘란(Elan)에서의 층렬 추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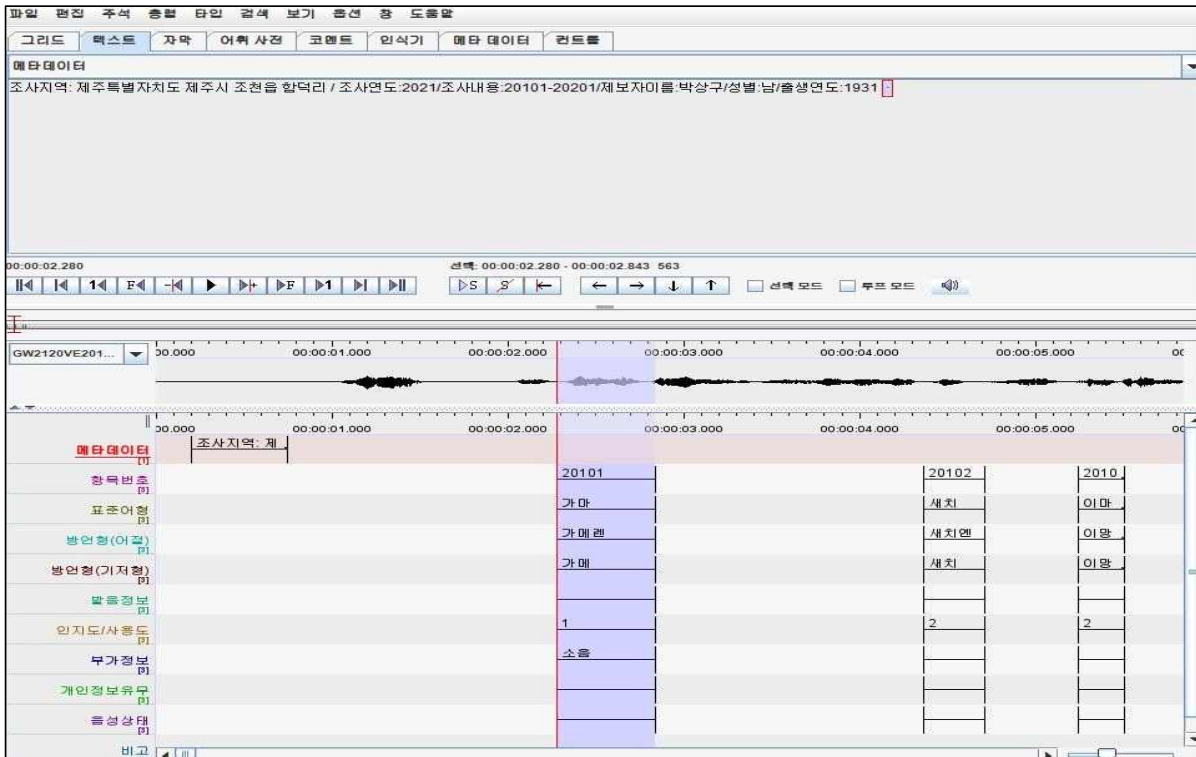
- ㉠ 구술발화 음성 파일 전사: ‘메타데이터, 항목 번호, 조사자(형태음소전사), 조사자(표준어대역),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제보자1(표준어 대역), (필요시)제보자2(형태음소전사), (필요시)제보자2(표준어 대역), 전체삭제여부, 음성상태, 비교’ 층렬 설정

[층렬 - 층렬 속성 변경]을 선택하여 ‘default’ 층렬의 이름을 ‘메타데이터’로 변경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메타데이터의 경우 음성 파일의 가장 앞 부분에 ‘조사 지역 / 조사 연도 / 조사 내용 / 제보자 이름 / 성별 / 출생 연도’ 정보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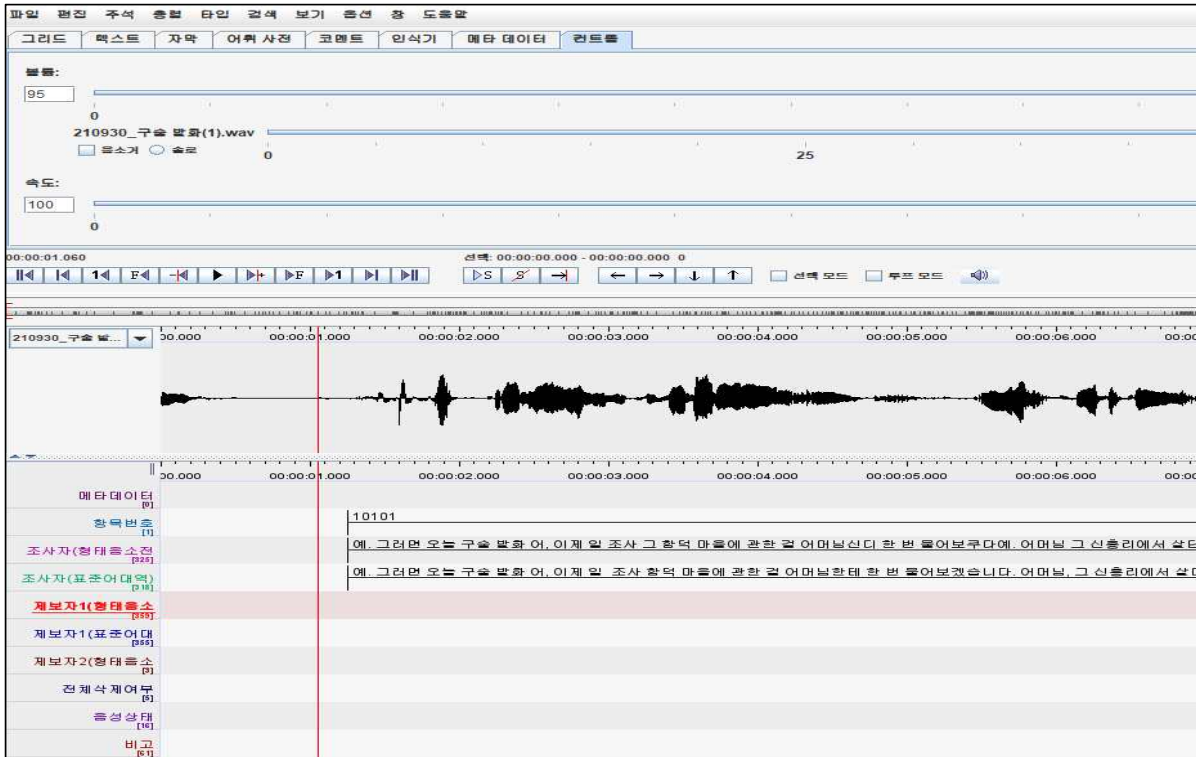
[층렬 - 새로운 층렬 추가]를 선택하여 ‘항목 번호, 조사자(형태음소전사), 조사자(표준어대역),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제보자1(표준어 대역), (필요시)제보자2(형태음소전사), (필요시)제보자(표준어 대역), 전체삭제여부, 음성상태, 비교’ 층렬을 추가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그리고 참여자 정보에 제보자의 정보를 주석자 정보에 전사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 엘란(ELAN)의 [층렬 - 층렬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음성 파일마다 층렬을 설정하는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표현 음성 파일을 전사할 때 활용할 'VE.eaf' 파일과 구술발화 음성 파일을 전사할 때 활용할 'UT.eaf' 파일을 하나씩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⑥ 전사할 층렬에서 전사할 부분을 설정하고(마우스 드래그), 마우스우클릭 한 후에 '여기에 주석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전사한다.([마우스우클릭-여기에 주석 새로만들기]를 활용하지 않고, [주석-여기에 주석 새로만들기]를 활용하면 첫 번째 층렬에만 경계가 생성된다.)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어휘 및 표현)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구술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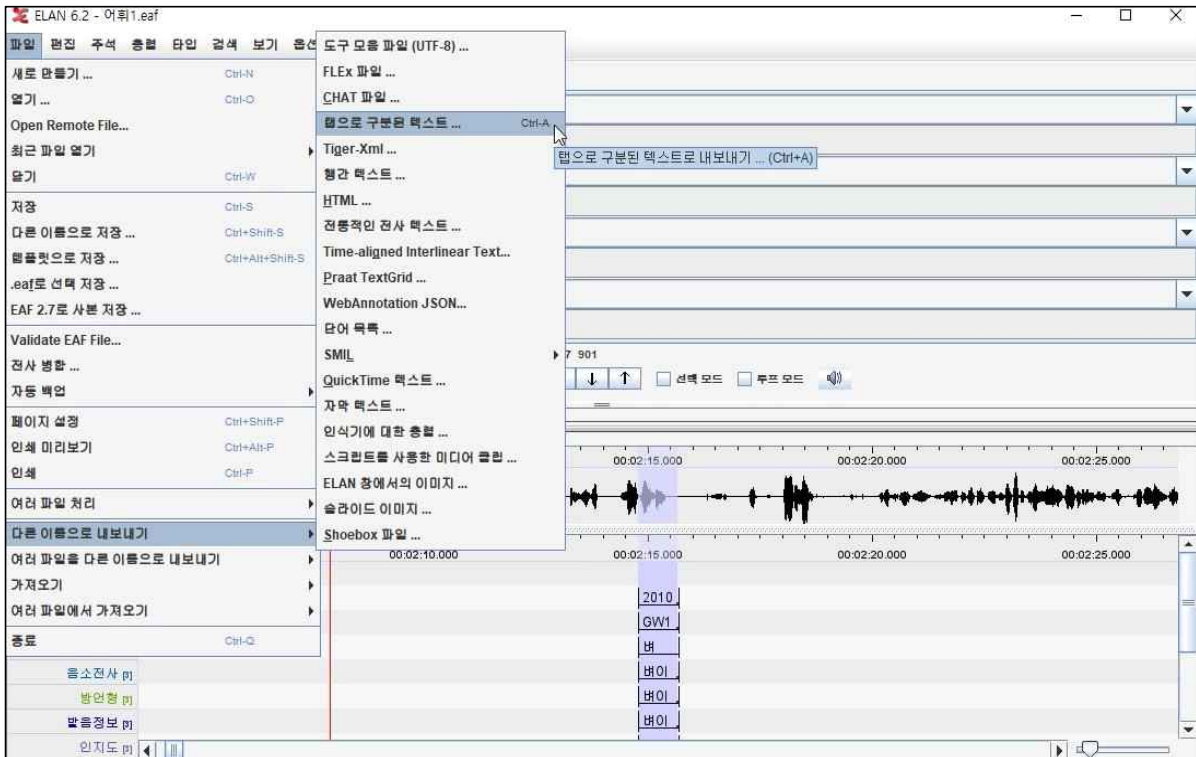
- ※ 전사할 때 분절(segmentation)한 구간을 반복하여 청취하려면 ▶S(Shift+Space)을 선택.
- ※ 전사할 때 **음성 구간 앞, 뒤에 200msec 이상의 휴지가 포함되도록** 조절해야 함.
- ※ 옛한글 입력 방법을 숙지하여([참조 2]), 아래아 및 쌍아래아를 전사할 때 활용.

⑦ 전사가 완료되거나 수시로 전사 파일을 저장한다. [파일-저장(Ctrl+S)]을 선택하여 저장한다. 엘란(ELAN)의 전사 파일은 .eaf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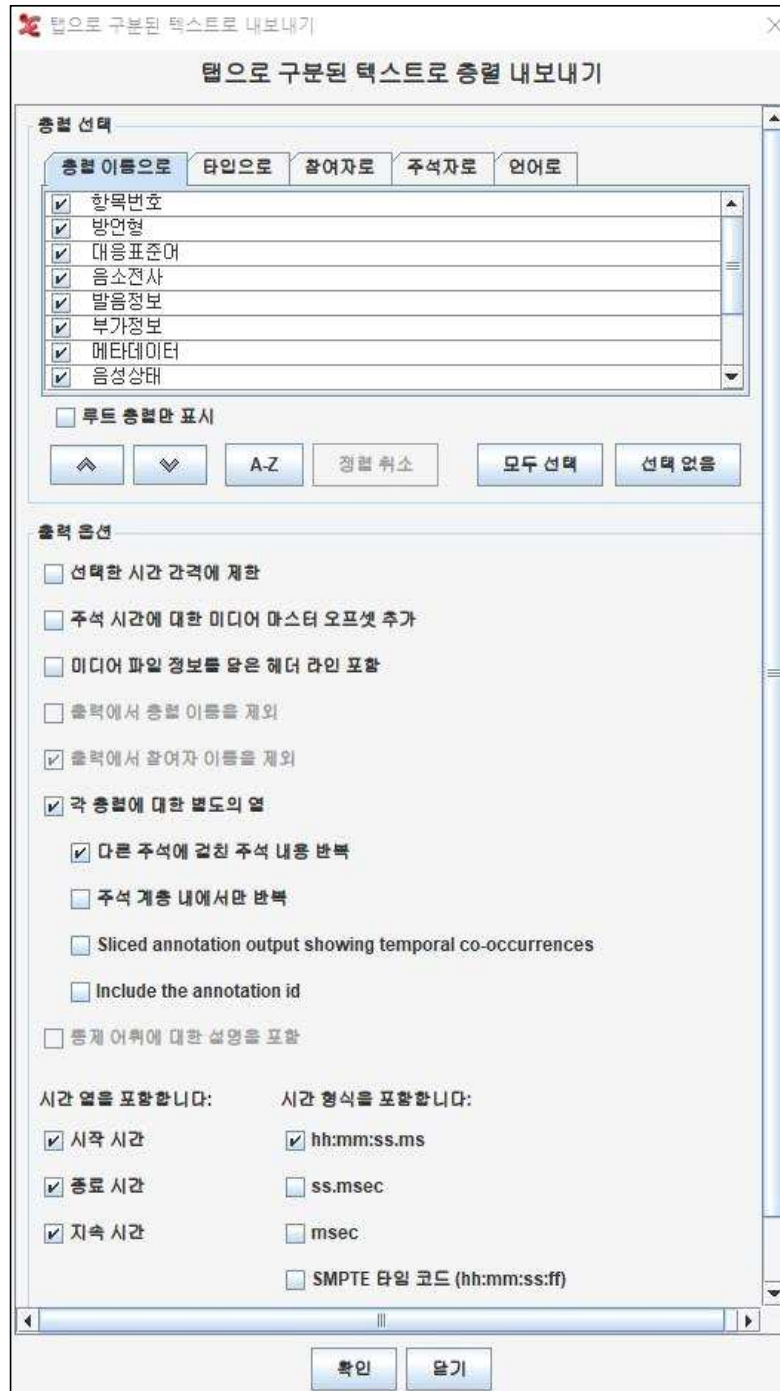
⑧ 전사 완료 후, **어휘·표현 전사 파일은** 엑셀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다.

- ※ 어휘·표현 음성 파일에 전사한 정보(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교)를 엑셀 파일에 기록.
- ※ 엘란(ELAN)의 기능을 활용하여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엑셀에 기록.

⑨ [파일 -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 -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Ctrl+ A) 선택한다.



- ⑩ [각 층렬에 대한 별도의 열]을 선택하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시간 형식 (hh:mm:ss:ms)]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⑪ 엘란(ELAN)에서 전사한 정보(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여부, 음성상태, 비교)를 확인한다.

파일(F)	편집(E)	색식(O)	보기(V)	도움말(H)	시작 시간 - hh:mm:ss.ms	종료 시간 - hh:mm:ss.ms	지속 시간 - hh:mm:ss.ms	메타데이터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00:00:00.200	00:00:00.750	00:00:00.550	조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조사연도:2021/조사내용:20101-20201/제보자이름:박성				
					00:00:02.280	00:00:02.843	00:00:00.563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00:00:04.362	00:00:04.712	00:00:00.350	20102 새치 새치엔 새치	2			
					00:00:05.244	00:00:05.506	00:00:00.262	20103 이마빼기 이망세기엔 이망세기	2			

전사 파일(.eaf)의 텍스트 파일(.txt) 변환 결과

⑫ 위 정보를 엑셀 파일에 기록한다. 엑셀 결과물 정비 시 ‘메타데이터’ 열은 삭제하고 ‘일련번호’ 열을 추가하여 분절된 음성 파일명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파일명은 “음성파일명.xlsx”로 한다. (예: GW2220FVE20101-20205.wav에 대한 전사 정보 파일은 GW2220FVE20101-20205.xlsx로 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메타데이터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	방언형(기)	발음정보	인지도/사	부가정보	개인정보유	음성상태	비고		
2	00:00.2	00:00.8	00:00.6	조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조사연도:2021/조사내용:20101-20201/제보자이름:박성구/성별:남/출생연도:1931												
3	00:02.3	00:02.8	00:00.6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4	00:04.4	00:04.7	00:00.4		20102	새치	새치엔	새치		2						
5	00:05.2	00:05.5	00:00.3		20103	이마빼기	이망세기	이망세기		2						
6																

엑셀 파일 기록(메타데이터 삭제 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	일련번호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	방언형(기)	발음정보	인지도/사	부가정보	개인정보유	음성상태	비고		
2	JJ2120VE2	00:02.3	00:02.8	00:00.6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3	JJ2120VE2	00:04.4	00:04.7	00:00.4	20102	새치	새치엔	새치		2						
4	JJ2120VE2	00:05.2	00:05.5	00:00.3	20103	이마빼기	이망세기	이망세기		2						
5																
6																

엑셀 파일 기록(메타데이터 삭제 및 일련번호 삽입)

[붙임] 자료 관리

1) 조사 지역 약호

①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 지역마다 고유의 지역 약호를 부여한다. 조사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문자 대문자로 표시한다. 영문자 대문자는 도명(道名)의 약어를 사용한다. 도명의 약어는 여권에 사용하는 약어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 영문자 MP를 부여한다.

지역	대도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코드	MP	GW	GG	GN	GB	JN	JB	JJ	CN	CB

② 각 도의 시, 군의 약어는 해당 지역의 조사 연도 끝자리 두 자리를 부여한다.

도별	2021 (시범조사)	2022 (1차조사)	2023 (2차조사)
대도시	대전	-	-
강원	춘천	춘천	원주
경기	고양	고양	수원/화성
경남	창원	창원	울산/울주
경북	경주	경주	안동
전남	무안/목포	무안/목포	광주/광산
전북	전주/완주	전주/완주	익산
제주	제주시(해안)	제주시(산간)	서귀포시(해안)
충남	아산	예산	공주
충북	청주	청주	충주

③ 세대별(20대, 50대, 70대) 표시는 ‘20, 50, 70’을 부여하고, 성별(남, 여) 표시는 ‘M, F’를 부여한다.

④ 어휘·표현 자료는 약어 ‘VE’와 함께 어휘항목별 코드를 부여하고, 구술발화 자료는 약어 ‘UT’와 함께 질문지 항목별 코드를 부여한다.

⑤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파일은 [보기]와 같이 조사 지역, 조사 연도, 세대, 자료 종류, 항목별 코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보기]

어휘·표현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어휘 항목별 코드’

GW2320FVE20100-20146.wav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20100-20146 음성 파일)

GW2320FVE20100-20146.eaf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20100-20146 전사 파일)

※ 어휘·표현 보충 조사 항목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어휘 항목별 코드(보충 조사 첫 어휘 항목 번호와 마지막 어휘 항목 번호) / 보충’으로 파일명을 부여한다.

GW2320FVE20130-20417보충.wav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보충 조사 음성 파일)

GW2320FVE20130-20417보충.wav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보충 조사 전사 파일)

※ 구술발화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질문지 항목별 코드 / (필요시 파일 번호)’

GW2320FUT10200.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음성 파일)

GW2320FUT10200.eaf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전사 파일)

※ 구술발화 음성 파일이 1시간이 넘으면 파일 번호를 넣어서 음성 파일을 편집한다. 예를 들어 ‘2. 일생 의례와 경험’의 음성 파일이 100분이면 50분씩 나누어 편집한다.

GW2320FUT10200\_01.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1번째 음성 파일)

GW2320FUT10200\_02.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2번째 음성 파일)

※ 구술발화 음성 파일이 1시간이 넘으면 파일 번호를 넣어서 음성 파일을 편집한다. 예를 들어 ‘2. 일생 의례와 경험’의 음성 파일이 100분이면 50분씩 나누어 편집한다.

※ 구술발화 보충 조사 항목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질문지 항목별 코드 / 보충’으로 파일명을 부여한다.

GW2320FUT10200보충.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보충 음성 파일)

GW2320FUT10200보충.eaf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보충 전사 파일)

## 2) 파일 관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을 작성하여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한다.
- ② 조사된 지역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조사 지점과 세대 그리고 자료 종류별로 고유 폴더 이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20대 여성 피험자의 어휘·표현을 조사한 녹음 파일이 25개일 경우, 이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폴더 이름은 약어 부여 방법에 따라 “JB2320FVE”가 된다. 이 폴더 안에는 확장자 이름을 “wav”로 갖는 음성 파일 25개와 이들 각각과 동일한 파일명을 갖고 확장자가 “eaf”인 전사 파일 25개가 포함된다.
- ③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은 같은 폴더에 있어야 자료의 수정이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같은 번호를 갖는 두 파일은 짝을 지어 동일한 폴더에서 관리한다.
- ④ 음성 전사한 각 파일의 정보가 담긴 정보 파일은 엑셀 문서로 입력하여 “조사지역약어.xlsx”의 이름을 부여한다. 이 정보 파일에는 각각의 폴더에 담긴 파일의 정보를 정리하여 입력한다.

[보기] JB2320FVE.xlsx (전라북도 20대 여성 피험자 어휘·표현의 정보 파일)

## 3) 녹음 파일(wav, eaf 파일)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관리

- ① 음성 파일은 16bit linear PCM으로 저장된 원본 파일을 전사용 파일로 사용하며,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한다.
- ② 원본 음성 파일은 엘란(ELAN)으로 전사한 전사 파일(.eaf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보관한다.
- ③ 어휘·표현 파일은 항목별 음성 분절 파일과 항목별 형태음소전사-표준어 대역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보관한다.
- ④ 구술발화 파일은 주제별 음성 분절 파일과 주제별 형태음소전사-표준어 대역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보관한다.



#### 4) 조사 결과 보고

연구 책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한 결과물에 대해 양적, 질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정리가 종료되면 아래의 결과물들을 제출하고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 ①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 ② 어휘·표현: 원본 음성 파일,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 파일(eaf 파일 & excel 파일), 항목별 음성 분절 파일
- ③ 구술발화: 원본 음성 파일(=주제별 음성 분절 파일),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 파일(=주제별 형태음소 전사-표준어 대역 파일: eaf 파일)
- ④ 조사된 질문지(제보자 조사표 포함: 주제보자 & 보조제보자)
- ⑤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별도 서식)
- ⑥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도 서식)



## [붙임 3]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

### I. 분절화 작업 개요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웹 환경에 맞는 형식이 필요하다.
- 기존의 조사 및 전사 자료는 연구를 위한 것이어서 개별 어휘 음성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한 형식이므로, 음성 파일 분절 및 일련번호 부여 작업을 통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분절 작업은 어휘·표현 부분과 구술발화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① 어휘·표현 음성 자료는 엘란(ELAN)을 활용하여 1,000항목 내외의 어휘·표현 항목을 분절한다.
  - ② 구술발화 음성 자료는 주제별로 분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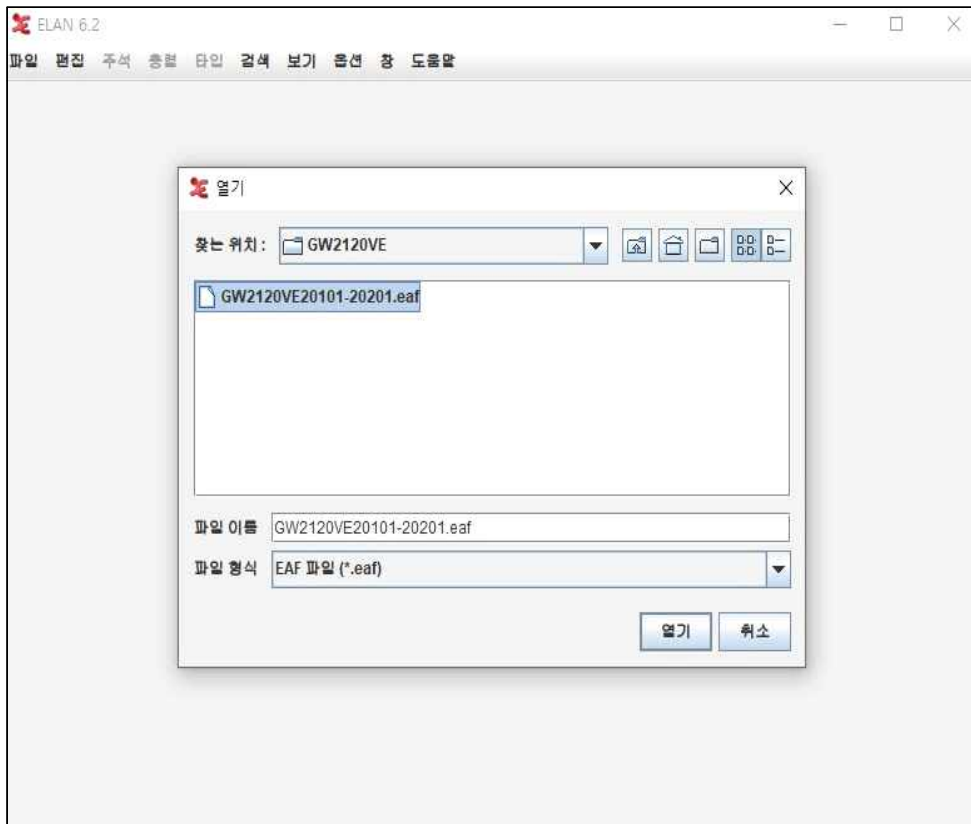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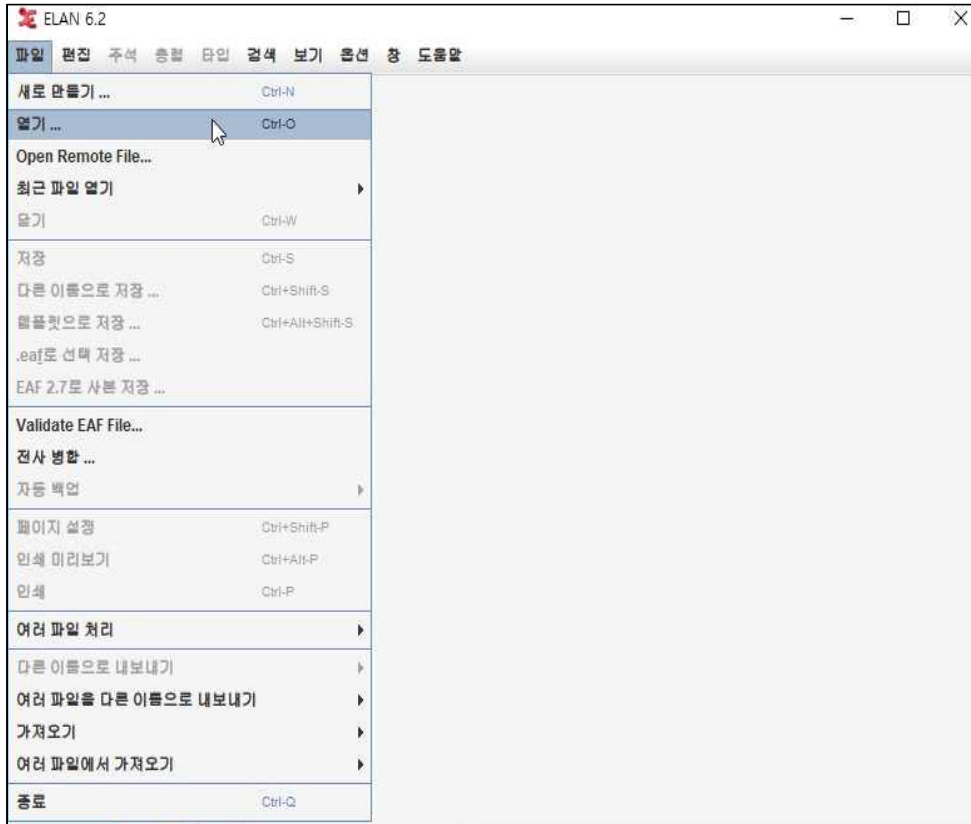
### II.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하기

#### □ 음성 파일 추출 원칙

-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은 엘란(ELAN)을 활용한다.
- 음성 파일을 분절할 경우 음성 구간 앞, 뒤에 200msec 이상의 휴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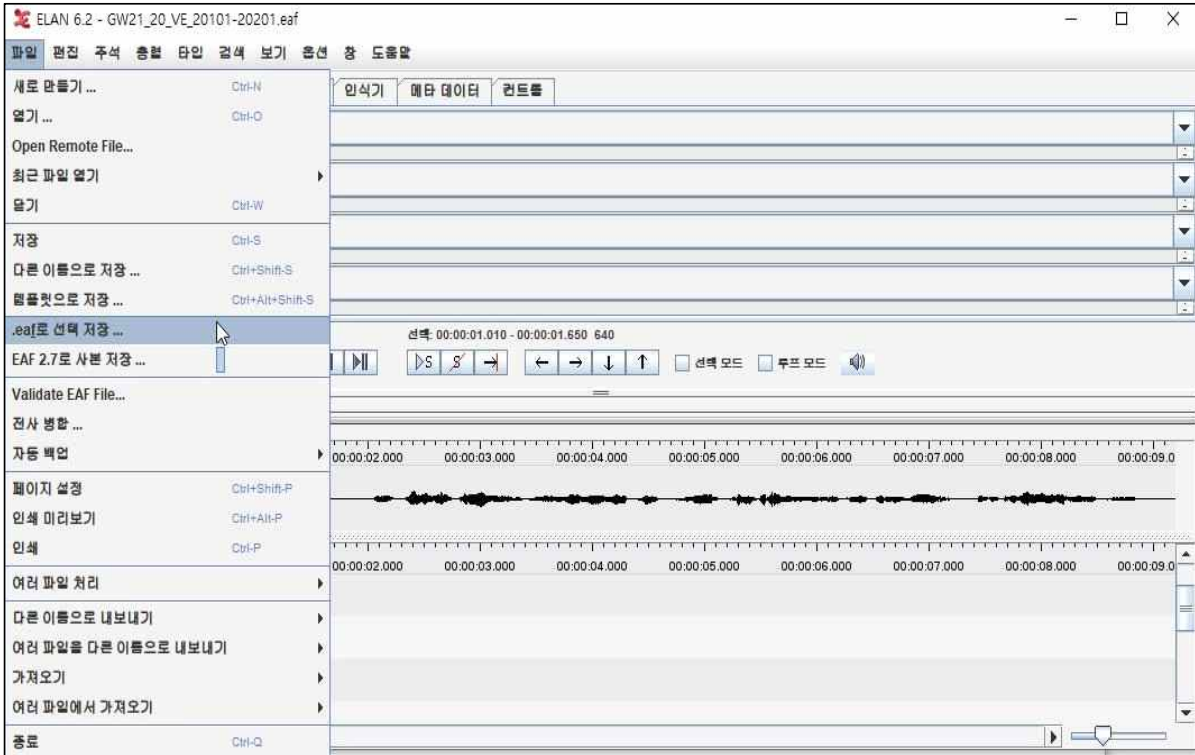
#### □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 과정

- ① 음성 및 전사 파일 분절은 엘란(ELAN)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② 음성 및 전사 파일을 분절할 폴더명은 영문으로 설정하고, 해당 폴더에 clip\_media.txt 파일을 찾아서 저장한다.
- ③ 구글에서 FFMPEG 파일을 다운 받고, 설치한다.
- ④ 전사 작업을 완료한 후 전사 파일(.eaf 파일)을 엘란(ELAN)에서 연다. [파일-열기...(Ctrl+O)]



.eaf 파일 열기

⑤ 분절할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파일 - .eaf로 선택 저장]을 선택한다.



파일 분절 작업 1

⑥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선택한 미디어 클립]을 선택하고, 파일명(일련번호)을 수정하여 저장한다.  
분절된 파일 제목은 음성 파일명 작성 지침에 맞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어휘·표현 항목별 코드를  
마지막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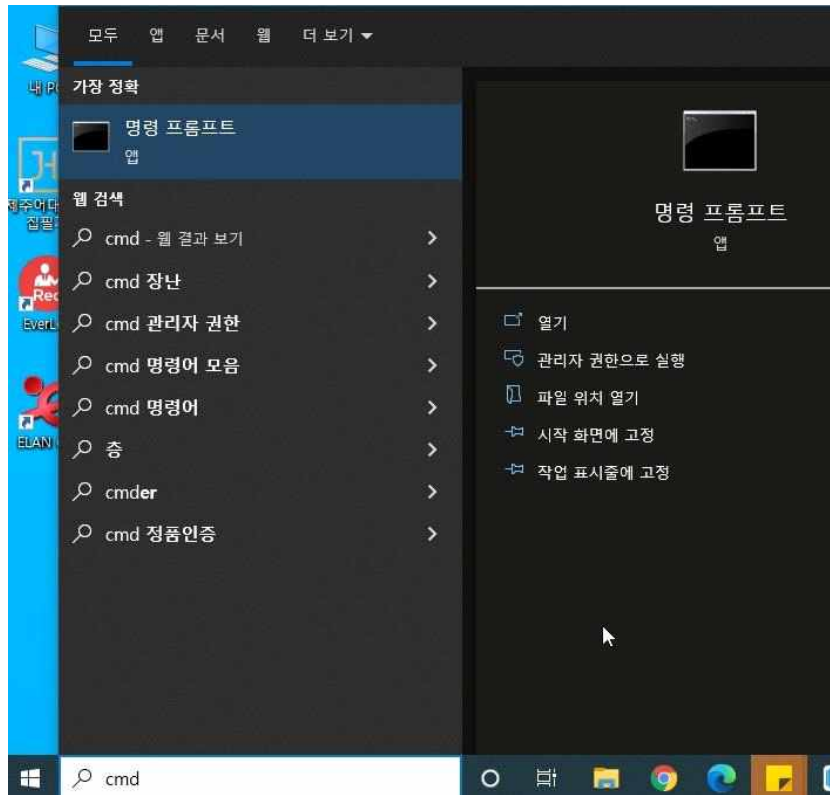
⑦ 분절할 부분의 전사 파일명(.eaf 파일명)은 설정할 수 있지만, 음성 파일의 파일명은 ‘기존 음성  
파일 이름\_음성구간’으로만 나타난다.

※ ‘GW2320FVE20100-20201’ 음성 파일에서 어휘·표현 항목 ‘20101’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절할  
때 .eaf 파일명은 ‘GW2320FVE20101.eaf’로 부여할 수 있지만, 분절된 음성 파일은 자동으로  
‘GW2320FVE20101-20201\_1010\_1650(음성구간).wav’로 생성된다. 따라서 분절된 음성 파일명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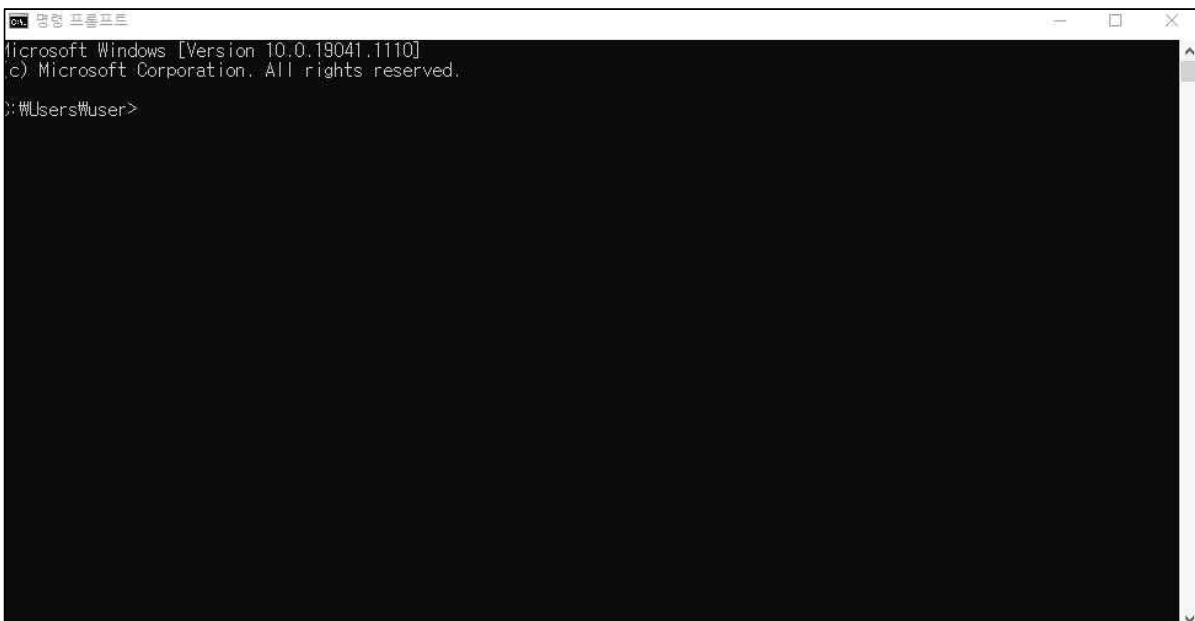
(예: GW2320FVE20101-20201\_1010\_1650.wav → GW2320FVE20101.wav)

⑧ 해당 폴더에 .eaf 파일과 .pfsx 파일을 삭제한다.(명령 프롬프트(cmd)의 del 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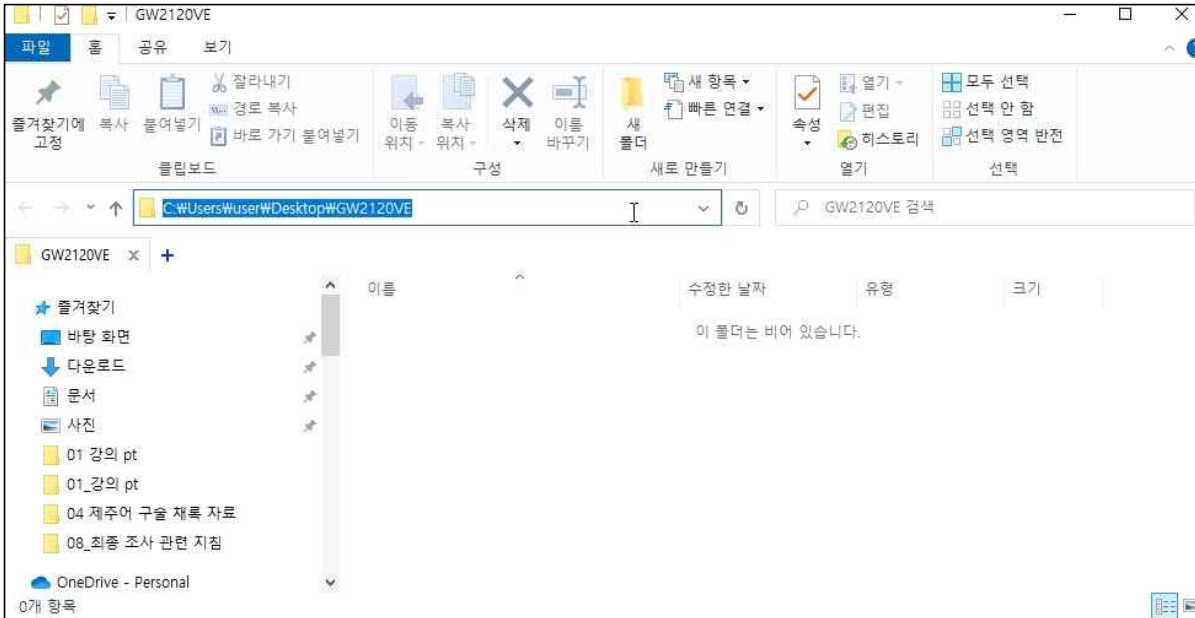
※ “del \*.eaf”을 실행하면 분절된 eaf 파일과 함께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파일(eaf 파일)도 삭제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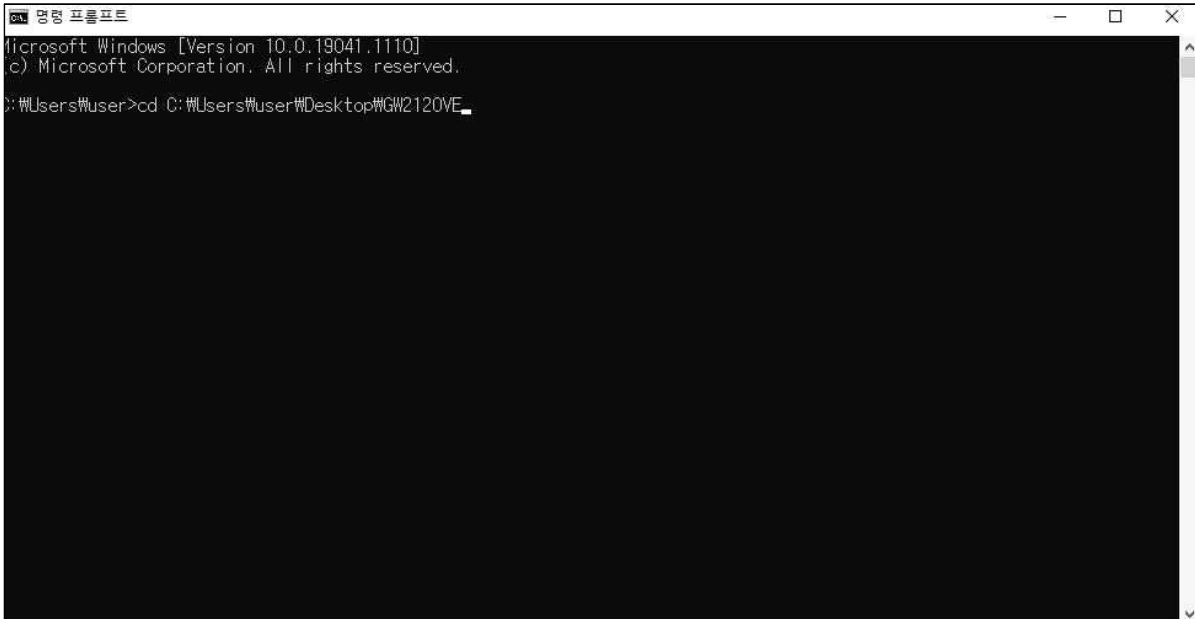
cmd 입력



명령 프롬프트 화면



폴더명 복사(Ctrl+C)



cd 폴더명(붙이기) 입력(해당 폴더로 이동)



```
명령 프롬프트
Microsoft Windows [Version 10.0.19041.1110]
(c)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Users\User>cd C:\Users\User\Desktop\GW2120VE
C:\Users\User\Desktop\GW2120VE>
```

음성 파일 및 분절 파일 위치로 이동

```
명령 프롬프트
Microsoft Windows [Version 10.0.19041.1110]
(c)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Users\User>cd C:\Users\User\Desktop\GW2120VE
C:\Users\User\Desktop\GW2120VE>del *.eaf
C:\Users\User\Desktop\GW2120VE>del *.pfsx
C:\Users\User\Desktop\GW2120VE>
```

del 기능을 활용하여 eaf 파일 및 pfsx 파일 삭제

### Ⅲ. 음성 파일에 일련번호 부여하기

#### □ 일련번호 구성

- 일련번호는 음성 파일의 파일명이면서, 음성 파일 목록과 음성 파일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 일련번호는 해당 음성이 언제, 어디에서 조사된 것인지, 어떤 항목의 방언형인지, 방언형들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일련번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역 코드(도)
  - 나. 조사 연도
  - 다. 세대(20대, 50대, 70대)
  - 라. 성별(남, 여)
  - 마. 자료 종류(어휘·표현, 구술발화)
  - 바. 어휘·표현 항목 번호, 구술발화 주제별 항목 번호
  - 사. 필요한 경우: 관련어

#### □ 항목별 세부 설명

##### 가. 지역 코드(도)

- 지역 코드는 도 단위로 배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각 지역 명칭의 두 글자의 초성을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지역	대도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코드	MP	GW	GG	GN	GB	JN	JB	JJ	CN	CB

##### 나. 조사 연도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을 5차년에 걸쳐 조사할 예정. 조사 연도를 21~25 사이로 부과하여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도별	2021 (시범조사)	2022 (1차조사)	2023 (2차조사)
대도시	대전	-	-
강원	춘천	춘천	원주
경기	고양	고양	수원/화성
경남	창원	창원	울산/울주
경북	경주	경주	안동
전남	무안/목포	무안/목포	광주/광산
전북	진주/완주	진주/완주	익산
제주	제주시(해안)	제주시(산간)	서귀포시(해안)
충남	아산	예산	공주
충북	청주	청주	충주

다. 세대(20대, 50대, 70대)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세대(20대, 50대, 70대)별로 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다. 세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20, 50, 70’을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라. 성별(남, 여)

- (다)와 마찬가지로 성별(남, 여)을 표시하기 위하여 ‘M, F’를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마. 자료 종류(어휘·표현, 구술발화)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어휘·표현 항목과 구술발화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료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하여 ‘VE, UT’를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바. 어휘·표현 항목 번호, 구술발화 주제별 항목 번호

- 세대별·성별 언어 다양성 조사 보고서에 부여되어 있는 항목 번호를 사용한다.
- 구술발화: 구술발화 파일은 주제별 코드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주제	코드 설정
1. 조사 마을(동네)의 환경과 배경	10100
2. 일생 의례와 경험	10200
3. 생업 활동과 경제 생활	10300
4. 의생활과 외모	10400
5. 식생활	10500
6. 거주 생활	10600
7. 질병과 건강	10700
8. 세시 풍속과 여가 문화	10800
9. 언어 의식/태도	10900

바. 동의어, 이형태

- 동의어, 이형태의 기본 개념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집에서 하나의 항목 번호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두 개 이상 조사한 경우, 해당 방언형끼리의 관계를 밝혀 줄 필요가 있다. 방언형끼리의 관계는 동의어, 이형태로 나뉜다.

- 동의어는 하나의 표준어형에 둘 이상의 방언형이 대응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 이형태는 조사된 방언형들이 서로 개별 어휘가 아니라 이형태 관계인 경우이며, 음운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의 기저형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다.

○ 동의어

- 하나의 표준어형에 대응되는 어휘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어휘를 모두 추출하고 해당 어휘에 ‘A’를 부여한다.

- 각 동의어가 구별될 수 있도록 A 뒤에 숫자 '1, 2, 3 ...'을 차례로 부여한다.
- 동의어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동의어 예시

예1) 형태가 다른 어휘: 가래떡 - 떡까랑, 가래떡

예2) 형태소 경계의 음운론적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 어휘: 송편- 송편, 송편

예3) 동일 형태이나 성조가 다른 경우: 모내기 - 이중(HH), 이중(HL)

예4) 구형과 신형의 관계에 있는 어휘

○ 이형태

- 하나의 방언 어휘의 음운론적 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언형이 조사된 경우 각각의 방언형을 추출한다.

예)     꽃 - [꼇], [꼬치]  
           밟다 - [발바], [밥꼬]

- 해당 방언형에 'C'를 부여하고, 각 이형태의 C 번호 뒤에 숫자 '1, 2, 3 ...'을 차례로 부여한다.
- 음운론적 교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형태를 중복해서 추출하지 않는다.
-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집에서 곡용형, 활용형을 조사한 경우 어휘 항목 뒤에 '-0-1, -0-2 ...'의 번호를 붙여서 구별한다. 이러한 곡용형, 활용형을 포함하여 이형태 관계인 경우에는 모두 'C'를 별도로 부착한다.

예)     JB2350FVE20301-C-1 가루고  
           JB2350FVE20301-C-2 가루에다가  
           JB2350FVE20301-C-3 가루덜

- 기저형 판별이 모호하여 동일 기저형의 이형태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동의어로 처리한다.

IV. 분절 파일 검수

□ dir 명령어로 파일명 매칭 검사하기

- 분절 파일은 수가 최소 1,000개 이상이므로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렵다.
-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명령 프롬프트(윈도우 검색창에 cmd 입력)를 활용하여 분절된 파일의 폴더에서 dir 명령어로 파일명 매칭 검사가 가능하다.

<관련란 표시>

연구 책임자: 정승철(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덕호(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우봉(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석규(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신(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인호(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 보조원: 고은향(제주대학교), 김고은(서울대학교),

김동은(아주대학교), 김민지(서울대학교),

김수영(한신대학교), 김영규(서울대학교),

김유겸(서울대학교), 김인규(경북대학교)

김주성(연세대학교), 김한중(서울대학교),

박정순(숭실대학교), 박주성(서울대학교),

배운정(서울대학교), 백은아(전북대학교),

안미화(서울대학교), 오청진(목포대학교),

윤예진(서울대학교), 이재섭(경북대학교),

이철희(경북대학교), 이현주(서울대학교),

임홍연(서울대학교), 전진호(서울대학교)

정성경(목포대학교), 최준호(서울대학교),

현혜경(제주대학교), 현혜림(제주대학교),

홍석우(서울대학교)

담당 연구원: 김선철(국립국어원), 김수현(국립국어원)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인 쇄: 서울문화사

---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2023  
-  
01  
-  
61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국립국어원

